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3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SEOUL AI STAR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3

차례

서울 AI 허브 소개

서울 AI 허브 센터장 인터뷰 · 10

서울 AI 허브 센터 소개 · 16

서울 AI 허브 기업 현황과 성과 · 22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

시각지능

구스랩스 메타버스에서 홈트하며 동기부여 주고받는 ‘피바’ · 30

내스타일 생성형 AI로 웹소설 창작하는 ‘아이작’ 운영 · 34

딥빌드 ‘핀테리어’와 ‘핀데이터’로 인테리어 시간 비용 줄인다 · 38

라이즈이엔엠 ‘턴업’,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 찾아주고 구매 연결까지 · 42

리티브 앱 하나로 프로리그 수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46

메라커 AI 활용해 자체 영상특수효과(VFX) 기술 개발 · 50

브이다임 가상 공간 하우스링 유튜버·스트리머 지원 서비스 · 54

블루프린트랩 ‘웨어’, 스마트폰에서 안경·옷·신발 가상피팅 가능 · 58

비주얼캠프 AI 기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제공 · 62

심바이오토AI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로 누구나 아바타 경험 제공 · 66

스튜디오랩 셀러캔버스로 15초 만에 쇼핑몰 상세페이지 ‘뚝딱’ · 70

아이텍솔루션 수식·그래프도 완벽 인식하는 교육콘텐츠 OCR 솔루션 ‘Qn.AI’ · 74

아키드로우 ‘아키스케치’로 나만의 3D 인테리어를 뚝딱 · 78

- 위시 다중카메라만으로 다인 3D 모션캡처 구현 · 82
- 트리플렛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 · 86
- 패션에이드 몇 분만에 생성하는 가상 피팅솔루션 ‘스타일AI’ 제공 · 90
- 펫나우 강아지 코·고양이 얼굴 인식하는 서비스 · 94
- 포디아이비전 임베디드 기반 초고속 엣지 AI 3D 비전 센서 개발 · 98
- 피아스페이스 CCTV 분석·영상 생성에 멀티모달 AI 적용 · 102

언어지능

- 모플 AI 시계열 예측 기반으로 상품 수요·공급 최적화 · 108
- 보다비 세일즈 성과 올려주는 ‘AI 기반 대화 분석’ 서비스 제공 · 112
- 에이엘아이 문서 학습하면 자연어로 답해주는 ‘에스크미’ 시스템 구축 · 116
- 엑스엘에이트 AI 활용한 실시간 자동번역 솔루션 제공 · 120
- 커먼컴퓨터 AI 네트워크와 AI NFT로 간편한 AI 활용 도와 · 124
- 테디썸 한국어 평가 위한 경량화 언어모델 ‘블러썸’ 개발 · 128
- 플랭 사용자 맞춤 영어회화 서비스 ‘실전 트레이닝’으로 차별화 · 132

음성지능

- 캐치플로우 초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개발 · 138
- 필드에스 3D-AI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로 3D 콘텐츠 실시간 제작 · 142

데이터 가공

- 드로미 딥러닝·드론 기반 도로 정보 솔루션 ‘카프리’ · 148
- 마이닝비즈랩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 152
- 아이앤아이솔루션 임신성 당뇨 환자 위한 개인맞춤 식습관 코칭 플랫폼 운영 · 156
- 에스앤피랩 보안에 강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 160
- 에스앤이컴퍼니 AI 기반 가격 예측으로 못난이 농산물 거래 돕는 ‘비굿’ · 164
- 코그콤 데이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리컬럼’ 기업 생산성 높여 · 168
- 피노랩 AI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 172
- 하이퍼이지 10만 개 이상의 3D 가공 데이터로 AI 학습 지원 · 176

범용 인공지능

- 그라운드윈 손쉬운 3D 건물 모델링 솔루션 개발로 각광 · 182
- 네이션에이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SaaS ‘뉴로이드’ 개발 · 186
- 넷록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 · 190
- 더발라 AI 기반 뷰티 콘텐츠 추천 및 화장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194
- 맨드언맨드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해 원하는 검색 찾아낸다” · 198
- 모빅랩 초음파 음향데이터로 설비 고장 예측 · 202
- 바비디 기업 분석 돕는 금융 AI 어시스턴트 제공 · 206
- 스마트마인드 타노SQL ‘혁신적인 DB시스템으로 비전문가도 AI 모델 구축’ · 210
- 스트라 ‘리스크’ 앱 “외국인도 K팝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 214
- 쓰리알이노베이션 시기술로 청소년의 ‘마음 건강·학습 건강’ 챙긴다 · 218
- 어크로스비 이커머스 기업 해외 진출 돕는 물류 서비스 운영 · 222

- 에임퓨처 AI처리에 필수인 NPU 가속·구동 솔루션 개발 · 226
- 에이엠스퀘어 AI 모델 성능 유지·관리 돕는 솔루션 제공 · 230
- 예스나우 AI로 안성맞춤 사이즈 추천하고 재고 줄여 · 234
- 오투오 메타데이터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 AI 추천 시스템 제공 · 238
- 인절미 딥러닝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 242
- 웍스비 O.B.C엔진으로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만족도 높여 · 246
- 카이어 보안 유출 걱정 없이 AI 프로젝트 원클릭 구축 지원 · 250
- 크로프트 작물 상태 보면서 제어하는 'AI 온실 시스템' 개발 · 254
- 투와이 '인버즈'로 저비용 고품질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 258
- 툰스퀘어 AI 활용해 웹툰 제작 혁신 주도 · 262

지능형 에이전트

- 스모어톡 생성 AI 기반 '플라멜' 통해 사용자 의도 비주얼 콘텐츠로 만든다 · 268
- 스웨번즈 AI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 입찰 제안 · 272
- 임팩티브AI 기업용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기업 수익 극대화 · 276
- 트라이피프티 "설계 경험 없어도 OK" GPT 기반 SW '런치바운드' · 280

로보틱스

- 루나랩스 다양한 레시피 조리하는 로봇 '봇띠' 운영 · 286
- 매크로엑트 강화학습 기반 로봇 솔루션 통해 개발 고도화 이끌어 · 290
- 온잇코리아 빅데이터 활용해 최적화된 배차 추천 서비스 운영 · 294

의료 인공지능

- 더블유닷에이아이 성형수술 분야 특화된 전문 진단 서비스 · 300
- 디아비전 스마트폰으로 신속 진단키트 분석·질병위험 관리 · 304
- 모닛 요로감염·육창 해결하는 스마트 성인 기저귀 개발 · 308
- 비트리스 데이터 분석 '팬오믹스'로 제약사 맞춤형 신약개발 돕는다 · 312
- 액티브레인바이오 일상생활 중 MRI 찍는 신개념 메디컬테크 제시 · 316
- 에이아이다이콤 골밀도 진단·관리에 AI 알고리즘 활용 · 320
- 프리베노틱스 AI로 암 예방하고 진단 돕는다 · 324

인터뷰

서울 AI 허브

함종민 센터장

세계 5대 창업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서울 AI 허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2월 '양재R&CD 혁신허브'라는 명칭으로 인공지능 분야 기술 창업 육성 전문기관을 개관하였다.

지난 5년간 많은 AI 분야 스타트업을 배출한 이곳은 2023년 '서울 AI 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AI 허브의 함종민 센터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함종민 서울 AI 허브 센터장

“AI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 목표”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서울 AI 허브의 위상과 경쟁력은 무엇인가.

2017년 12월 서울시가 서울 AI 허브를 설립한 이래 지난 5년간 입주기업 100개 이상, 졸업기업 110개, 멤버십 기업 163개 이상을 보육해 왔으며, 이들의 전체 누적 기업가치는 약 2조 원 이상이다. 현재까지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포함해 14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졸업기업인 클라우드웍스는 최근에 IPO 상장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인 역할로서 기술 문제 해결, 해외 진출, 경영 지원, 등의 많은 지원을 스타트업들에 해주고 있다. 또한 IT 산업의 핵심 지역인 강남 중심부와 가깝다는 근접성과 주변의 대형 IT 기업의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서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과 소통하기 쉽다는 지역적 장점도 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점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주요 테마로 사업을 전개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꼭 거쳐 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 매김했다.

우리 서울 AI 허브 팀은 이곳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여러 유니콘이 탄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

**서울 AI 허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별점은 무엇인가.**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서 투자, 경영 지원, 교육, 기술 문제 해결, 인력 공급, 해외 진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투자, 교육, 해외 진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이미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AI 허브 자체적으로는 AI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문제 해결', '글로벌 기술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심화 교육', '극초기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 문제 해결'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단서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외 연구 기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국내의 연구자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 AI 허브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 AI 허브의 지원 대상은 이상적으로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들인데, 이들은 대학교, 대학원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세컨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쉽게 팀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AI 비즈니스 문제 해결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술 측면에서 학교나 연구소가 가진 AI 역량을 스타트업·중견기업과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대기업, 중견 기업, 정부 기관, 지자체 등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표현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와 이런 선순환구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진출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서울 AI 허브와 비슷한 조직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도 있는데, 이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연구 기관의 기술 역량을 스타트업에 연계시키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해결해 줄 문제를 가진 10명의 고객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명확히 구체화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그것이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겪는 문제여도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아이디어는 그럴 듯 했지만 너무 추상적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팀을 만들어라.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의 시작이다.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에 SI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시대이다. 즉, 팀에서 SI를 기획하고 활용하고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서울 SI 허브는 그런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곳이다.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서울 AI 허브 소개

“서울시 조성, 세계적 인공지능 분야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서울 AI 허브는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AI 인재와 기업이 밀집한 인공지능 특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오픈했다. 2023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의 기술 자원 및 연구 역량, 개방형 혁신 연구 문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인공지능 특화거점 조성”

서울 AI 허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을 비롯해 하이브랜드와 희경빌딩 등에서 사무공간, 회의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예정으로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도 준비하고 있다.

시설 소개

서울 AI 허브 한국교총회관



조성 2017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구성

1층 · 개방형 라운지 ‘AI 플레이그라운드’, 서울 AI 허브 파트너스 공간

5층 ·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사무실, 서버실,
서울 AI 허브 스튜디오

6층 · 독립형 · 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8층 · 독립형 사무공간, 휴게 공간

서울 AI 허브 하이브랜드



조성 2019년 6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 16

구성

12층 · 독립형 사무공간, 라운지, 서버실, 회의실

13층 · 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14층 · 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회의실

서울 AI 허브 희경빌딩



조성 2020년, 2021년

주소

B·C동 ·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8길 47

D·E동 ·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 8길 39

F동 ·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 16길 32

구성

B·C동 · 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교육실, 회의실, 휴게공간, 서버실

D·E동 · 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휴게공간

F동 · 독립형·개방형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휴게공간, 다목적실

AI 교육 센터



조성 2020년 6월 조성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구성

지하1층 · 세미나실

1층 · 대·소강의실,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라운지

2층 · 대·소강의실, 운영사무실, 라운지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



조성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구성

지하 1층 ~ 지상 7층 : 공용 네트워킹, 교육, 공동연구, AI 전문 대학원

대상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예비·초기 AI 스타트업	신규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모집	유망한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또는 예비창업자) 모집 선발
	엑셀러레이팅, 시드 투자 유치 지원	전문 AC와 협력하여 성장 가능성 높은 예비·초기 AI 스타트업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 및 시드 투자 유치 지원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 소속 AI 스타트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Cloud 지원)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 소속 인공지능 특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자원 제공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및 멤버십 기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	소속 기업들의 기술 및 경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제공
	전문기관 성장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기관, 법무/특허/회계법인, 관련 협회 등 협업을 통해 소속 기업의 성장을 도모
	소속 기업 네트워킹데이	소속 기업들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킹 행사 진행
	투자자 연계 지원	소속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자 매칭, 1:1 멘토링 및 데모데이 행사 진행
	기술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원천/기반 기술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및 테스트베드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과의 사업화 기회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국내·해외 박람회 지원	소속 기업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
	국내·해외 공동연구 지원	소속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연구자 매칭 및 공동 연구 지원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Cloud/IDC 지원)
입주기업 홍보 지원		입주기업 대상 홍보 영상 제작, 기획기사 작성 등 입주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창구 제공

AI 전문인재 양성

미래의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제공됩니다.

분류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 소개
AI 기초 과정	AI 스마트 아카데미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비전공자 등 서울시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지식 및 원리 교육 진행
	데이터 라벨링 교육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중장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함양
	AI 데이터 입문 교육	인공지능 관련 재직자 및 비전공자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해석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통계 교육, 데이터 처리/분석/가공 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진행
AI SW 전문 과정	AI+X 융합 교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AI+X)하여 기술 혁신과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협업·융합 프로젝트 수행
	AI 실무 역량 교육	인공지능 관련 학부 전공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인공지능 이론 학습 및 실무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실무 개발자 양성 (추후 AI 인재채용박람회와 연계)
전문인재 양성	AI 인재채용박람회	서울 AI 허브 교육 수료자 중 취업희망자, 구인기업	서울 AI 허브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대상 구직자-구인기업 간 채용 인터뷰를 통한 취업 연계 지원
	AI 기업 인턴지원제	서울 AI 허브 교육 우수 수료자 중 취업희망자	서울 AI 허브 교육 우수 수료생 대상 입주기업 인턴 기회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활용 및 상호 연계)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서울시민 누구나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캠퍼스(서울 AI 허브 분원)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입주기업, 산·학·연·관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분류	프로그램명	대상	프로그램 소개
국내 인공지능 네트워킹 활성화	입주기업 기술 협력 사업 (Co-working 프로젝트)	서울시 공공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서울시 도시문제 정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기술개발, 기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 입주기업 컨소시엄 ·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등 컨소시엄
	AI 컨퍼런스	대학, 기업,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	인공지능 관련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파트너사 또는 공동 참여를 통해 서울 AI 허브 입주사 홍보 및 타기업, 투자자, 대학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인공지능 분야 기술 공유회	AI 산업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인공지능 산업에 관심있는 스타트업, 유관기관 관계자를 섭외하여 연구 및 기술 트렌드 관련 세미나 개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등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겪는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처 발굴 및 해외법인 설립 등을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서울 AI 허브 입주기업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 AI 허브에 입주한 인공지능 특화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

시각 지능



구스랩스, 메타버스에서
홀트하며 동기부여 주고받는
'피바'

기업
구스랩스

대표자
이서희

구스랩스는 메타버스 홀트레이닝(홀트) 앱 '피바(FIVA)'를 운영하고 있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그대로 아바타에 반영하는 동작 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2021년 11월 회사를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피바(FIVA)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gooselabs.io

구스랩스의 솔루션 이야기

구스랩스의 '피바'는 동작인식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홀트 앱이다. 나와 똑같이 움직이는 아바타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점에서, 그룹 필라테스 혹은 줌바 수업을 메타버스에서 받는 개념이다.

피바는 자칫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홀트의 문제를 재미있고 에너지가 가득한 경험으로 바꿔준다. 피바 이용자는 서로의 아바타를 통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실시간 음성 채팅으로 격려와 응원을 주고 받는다.

피바는 카메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아바타에 그대로 반영하는 동작인식 AI를 활용한다. 별도의 센서나 기기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이때 카메라 영상은 녹화나 송출되지 않는다.



구스랩스의 메타버스 홈트 앱 '피바(FIVA)'
(사진 제공 : 구스랩스)

구스랩스의 차별 포인트

별도 기기나 센서 없이도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동작인식 운동 서비스와 게임은 콘솔 게임기나 가상현실(VR) 헤드셋과 같이 최소 수십만 원의 초기 비용이 드는 기기를 구매해야 했다. 또 이용할 때마다 장비를 정비해야 하고, 세팅을 해야해 번거로움이 컸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피바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앱을 실행시키기만 하면 사용 할 수 있다.

구스랩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구스랩스는 현재 피바와 관련한 특허를 1건 등록하고, 1건 출원한 상태다. 2023년 9월에는 iOS 앱 오픈베타를 출시했고, 현재 라이브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CES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구스랩스는 지속적인 서비스 안정화와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운동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저 저변을 확대하고 B2B 협력을 통해 활용 사례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내스타일, 생성형 AI로
웹소설 창작하는 '아이작' 운영

기업
내스타일

대표자
이용균

내스타일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웹소설 창작 플랫폼 '아이작(AI-Zac)'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1월 회사를 설립했고,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아이작(AI-Zac)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nestyle.ai

내스타일의 솔루션 '아이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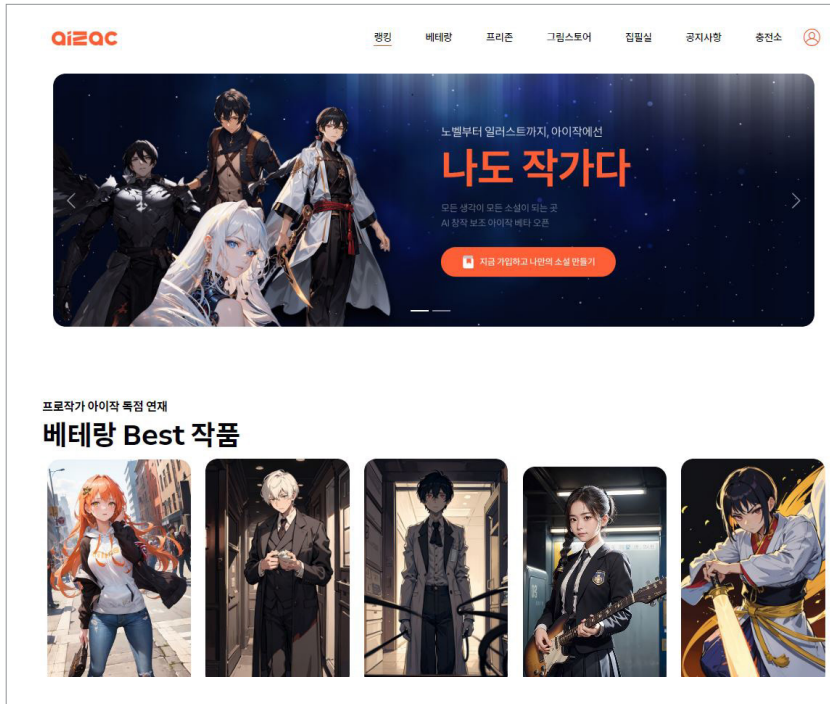
내스타일의 생성 AI 기반의 웹소설 창작 서비스 '아이작(AI-Zac 노벨)'은 웹소설 작가 또는 지망생들이 작품을 집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업시간을 절감하고 대량으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기능에는 글쓰기 기능과 글편집 기능이 있다. 글쓰기 기능에는 시놉시스, 등장인물, 씬, 스토리 생성 등이 포함된다. 글편집 기능에는 글자 수 늘이기, 문체변환, 스토리 재생성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표지 이미지 및 삽화 이미지 생성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토리 자동 분석 및 추출 기술, 언어 벡터 기반 유사도 분석 기술, 스토리 증강 필터링 기술 등이 사용된다.

내스타일의 차별 포인트

아이작의 차별점은 줄거리 담당, 집필자, 편집자 등 수십 명의 작가들이 할 업무를 AI가 분석하고



내스타일의 웹소설 창작 플랫폼 '아이작(AI-Zac)'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내스타일)

정리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스토리를 자동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시간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내스타일은 우수한 작가 수준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를 보유하고 있다. 장르별로 필요한 표현과 구성으로 등장 인물 설정 같은 IP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다. 집단 창작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래디쉬(Radish) 보다 진보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스타일의 성과 그리고 미래

내스타일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아이작 서비스는 개인 작가나 지망생뿐 아니라, 보유한 IP를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성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른 분야로 변환하는 수요가 있는 웹소설 제작사나 구독 플랫폼과 협력하는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도 이후에는 일본어와 영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딥빌드,
'핀테리어'와 '핀데이터'로
인테리어 시간 비용
줄인다

기업
딥빌드

대표자
한상국



DeepBuild

주요 제품(서비스)
핀테리어, 핀데이터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pinterior.co.kr

딥빌드는 인공지능(AI)과 라이더(LiDAR) 기술
을 기반으로 상가 인테리어 중개 및 상업 부동산
공간데이터 구축·판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2021년 1월 설립했다.

딥빌드의 솔루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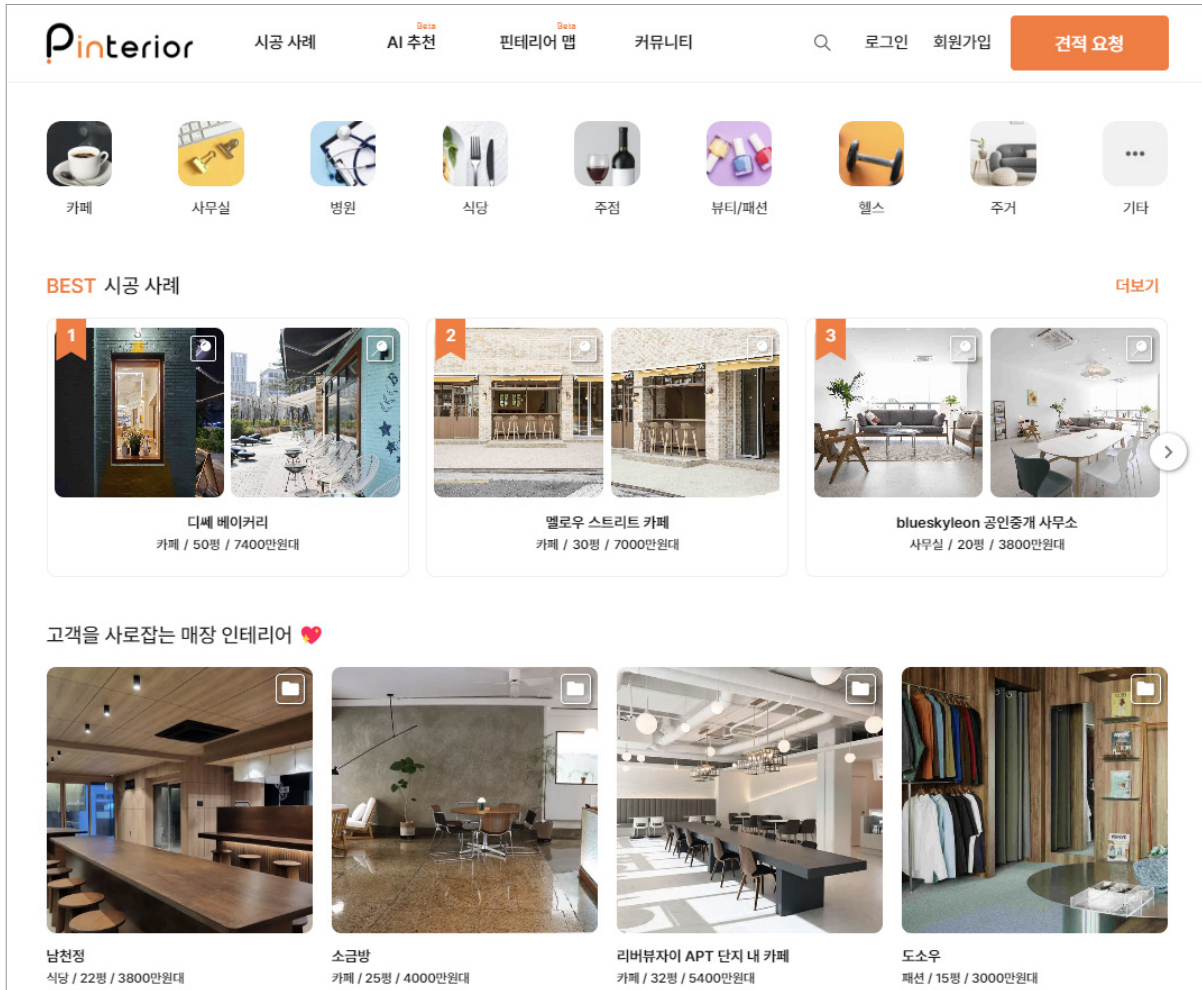
딥빌드는 '핀테리어'와 '핀데이터'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 '핀테리어'는 라이더 기술을 통한 실내
공간 실측과 AI 기반 사용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
해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핀데이터'는 라이더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
실내외 형상을 3D모델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실내 공간 정보 플랫폼이다. 원하는 공간을 3D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인테리어, 부동산 등 다양
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딥빌드는 위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매장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등 사용자에게 실
내 디자인 이미지를 추천한다. 나아가 데이터의
AI 분석을 활용해 사용자의 디자인 니즈를 인테
리어 업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딥빌드의 차별 포인트

딥빌드는 AI와 라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에
게는 현장 컨설팅 기반의 하이엔드 인테리어 서비



딥빌드의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 '핀테리어' 화면
(사진 제공 : 딥빌드)

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고정밀의 3D 공간정보를 추가로 판매해 기존 인테리어 플랫폼과 대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수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을 거쳐 도면을 제작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다. 딥빌드는 이러한 점을 개선코자 라이더 기반의 실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이용해 실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제공 가능한 도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해 인테리어 업체와의 소통 시간과 비용 등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딥빌드의 성과 그리고 미래

딥빌드는 2023년 10월 현재 제휴업체 357곳을 확보했다. 딥빌드의 목표는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업체에게는 이용자의 디자인 니즈 분석을 통해 효율적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추상적으로 상상하던 디자인을 핀테리어의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향후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산업과 메타버스에 활용 가능한 공간데이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넘어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라이즈이엔엠의 '턴업',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
찾아주고 구매 연결까지

기업
라이즈이엔엠

대표자
김정환

라이즈이엔엠은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 다채널
AD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
하는 기업이다. 2022년 5월 설립했으며, 3억 원
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컴퓨터 비전 기술 기반 다채널
AD SaaS 솔루션 '턴업(TURN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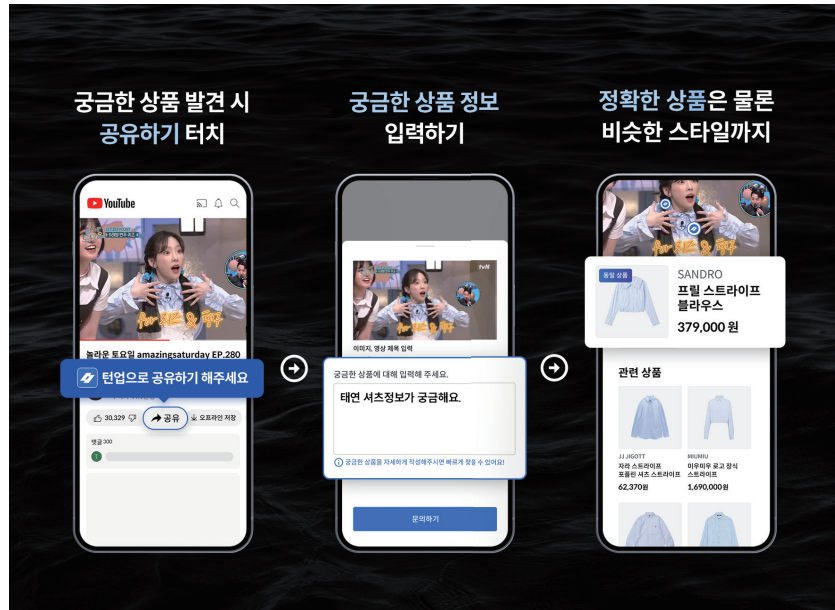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turnup.ai

드라마·예능에 나오는 상품을 찾아주는 '턴업'
턴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나오는 패션, 디지털, 가구 등의 상품 정보를 찾아주고 연결해주는 상품검색 AI 서비스다. 드라마, 예능 등을 보다가 궁금한 상품이 생기면 버튼 하나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채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TV, 네이버 NOW, 페이스북,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왓차,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등이다.

턴업에는 시각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AI 기술을 결합한 검색엔진이 핵심 기술로 적용됐다. 라이즈이엔엠은 이러한 시각 검색 엔진(visual search engine)을 기업에서 별도 개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즈이엔엠의 '턴업' 모바일 실행 화면 및 설명
(사진 제공 : 라이즈이엔엠)

턴업의 차별점

일반적인 검색엔진(포털사이트)은 텍스트를 분석하지만, 턴업은 시각 정보(이미지, 동영상)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찾아줄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서도 이미지 검색 기능은 사용 가능하지만, 턴업은 동영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턴업 상품검색 시는 단순히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상품명, 가격, 구매처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한 턴업 솔루션으로 패션, 인테리어, 뷰티 등의 브랜드는 별도 캠페인 셋팅 없이 상품 DB 연동만으로 간편한 광고 캠페인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광고 전환율 평균은 1% 미만이지만 턴업 애드(Ads)의 광고 전환율 평균은 5%수준이다.

라이즈이엔엠의 성과와 미래

라이즈이엔엠은 2023년 4월 기술보증기금, 신한금융그룹, 엔슬파트너스에서 선발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라이즈이엔엠은 AI 시각 검색 엔진 SaaS의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턴업의 경우 현재 패션 카테고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인테리어와 뷰티 카테고리로 확장해 더 많은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상품이 검색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리티브, 앱 하나로
프로리그 수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기업
리티브

대표자
김지훈



주요 제품(서비스)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바스탯(Bastat)'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litiv.net

리티브는 스마트폰, 액션 캠 등의 카메라 기능을 기반으로 스포츠 활동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 2020년 9월 회사를 설립했다.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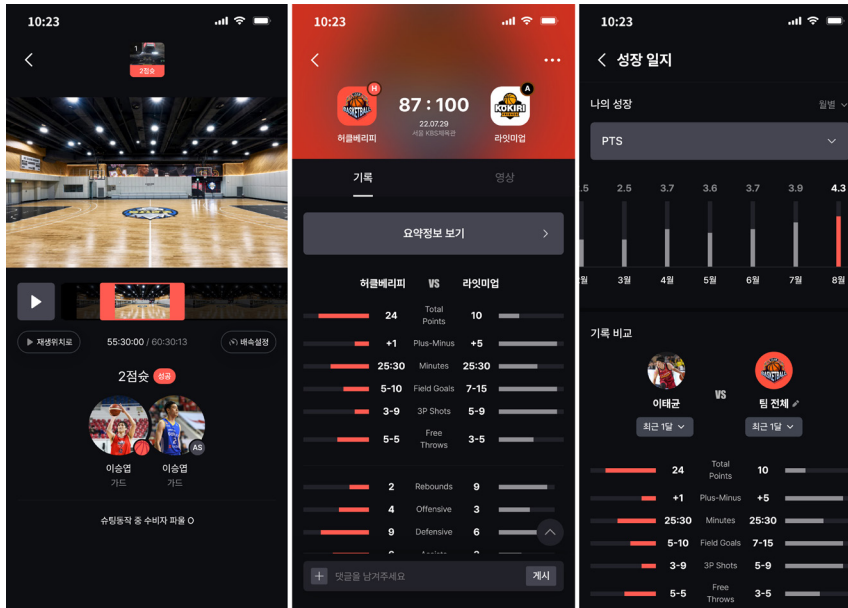
'바스탯' 이야기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은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을 요구하기에 비용이 높고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로 인해 주로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스탯 서비스는 전문적인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경기 영상만으로 사용자의 경기 플레이를 손쉽게 기록,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다. 누구나 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탯의 차별점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공과 선수를 정확하게 검출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리티브는 경기 영상에서 매우 작게 촬영되는 공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들 간에 경합이 잦은 단체 구기 종목의 특성 상 선수들끼리 가리는 장면에서도 선수



스포츠 동영상 분석 및 공유 플랫폼 '바스켓'의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 : 리티브)

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리티브는 이러한 핵심 기술에 대해 한국 및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바스켓 서비스는 누구나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접 참여한 경기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보급형 액션 캠으로 촬영한 뒤, 바스켓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로드하면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 분석 동영상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앱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경기 주

요 구간 추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하이라이트 구간 편집도 할 수 있다.

슈팅,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파울 등 NBA와 동일한 수준의 박스 스코어 기록도 가능하며, 개인별 선수 통계 및 팀 통계 분석도 가능하다.

리티브의 성과와 미래

2023년 9월에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 정식 버전의 서비스를 런칭했고, 2023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 IB리그에 바스켓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체육관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체육관을 이용(대관)하는 아마추어 팀들에게 경기 영상 촬영, 업로드, 하이라이트 장면 자동 추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 사업부와 제휴를 맺었다.

현재 부산 인피니트 체육관 사하점에서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POC(개념 증명)를 진행 중이다. 베트남 호치민시 농구연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리티브는 우선 국내 시장에서 제휴 체육관의 수를 늘려 아마추어 농구 팀들이 자신들의 경기 장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SNS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마추어 및 유청소년 대회의 운영진이 기록을 진행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 데이터를 영상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할 계획이다.

메라커, AI 활용해
자체 영상특수효과(VFX)
기술 개발

기업
메라커

대표자
김선권

메라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체 영상특수
효과(VFX)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11월에 회사를 설립했다. 2023년 10월 기준
12억5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QuuP (프로젝트명)

사업 분야
시각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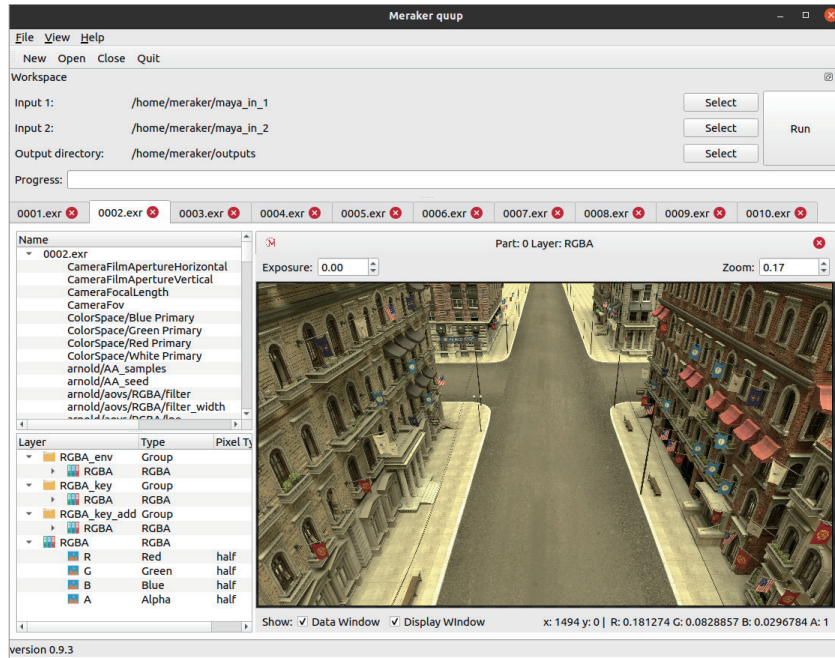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meraker.co.kr

메라커의 솔루션 이야기

메라커는 자체 개발한 AI 영상특수효과(VFX)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QuuP'을 운영하고 있다. VFX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CG) 영화뿐 아니라 실사 영화 및 드라마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고화질 VFX 제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화질 VFX 제작을 위한 시간, 비용, 인력의 증가는 제한적이어서 VFX 스튜디오의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메라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VFX 기술인 QuuP(VFX Quality Up)은 기존의 VFX 제작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QuuP은 영화, 드라마 VFX 품질 기준으로 2K 렌더링 결과물을 4K 렌더링 결과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메라커의 AI 영상특수효과(VFX)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QuuP' 화면
(사진 제공 : 메라커)

메라커의 차별 포인트

메라커는 편리하고 유연한 사용이 장점이다. QuuP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존의 VFX 작업 루틴을 변경하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영상 저작툴인 마야(Maya), 블렌더(Blender), 누크(Nuk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툴을 배울 필요없이 기존 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작업한 렌더링 결과물을 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작업만으로 고화질 렌더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메라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메라커는 AI 기반 업샘플링 요소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튜디오와 협업해 제품을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상품화하려 하고 있다.

메라커는 현재 위지웍 스튜디오와 협업해 AI를 활용한 업샘플링 개발 기술을 VFX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안과카메라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AI를 융합한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고화질 영상 생성 분야에도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

향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영상 생성부터 렌더링, 합성 등 파이프라인 전체에 AI 기술을 도입해 비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콘텐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브이다임, 가상 공간 하우스링
유튜버·스트리머 지원 서비스

기업
브이다임

대표자
김영완

브이다임은 2020년 5월 설립했다. 딥러닝 기반 3D 아바타 생성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재는 'TIH(Tomorrow, In Here)' 브랜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TIH는 가상공간 하우스링 및 버추얼 유튜버·스트리머 지원 서비스, AI 아바타 기반 라이프로그를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구성된다.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3D 아바타 생성 솔루션 및
'TIH' 서비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vdigm.com

브이다임의 솔루션 이야기

브이다임의 목표 고객은 영상 콘텐츠가 일상인 글로벌 Z세대, 타깃 시장은 실감형 3D 기반 스포츠·영상 시장이다. 'TIH' 서비스는 가상공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하우스링 기능을 제공한다. 버추얼 스테이지 하우스링을 위해 가상공간에 집을 짓고, 인테리어 아이템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배치하거나 꾸밀 수 있다. 이 기능은 버추얼 유튜버 방송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한다.

또한 'TIH' 서비스는 버추얼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에게 자신과 닮은 아바타, 혹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를 꾸밀 수 있게 지원한다. 그 외에도 방송용 대본을 생성하고 아바타 표정과 동작을 쉽게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브이다임의 차별 포인트

기존 버추얼 유튜버의 동작 방식은 3D지만 그래픽 품질은 2D 스타일의 귀여운 애니메이션 풍에 머물러 있다. 일



브이다임의 버추얼 유튜버·스트리머 지원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브이다임)

반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고품질의 3D 그래픽을 활용하기엔 비용과 제작에 어려움이 따랐다.

브이다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감형 3D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에 필요한 3D 실감형 공간과 본인의 얼굴을 반영하거나 개성 있게 커스터마이징 한 실감형 아바타, 손쉬운 모션 캡처 방식을 통해 실감형 방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브이다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브이다임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실감형 3D 아바타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2021년부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돼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2023년 3월, 서울 시 허브 입주기업에 선정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양재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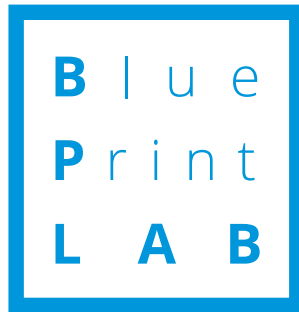
브이다임은 3D 객체와 배경 공간을 어울리게 보정해주는 ‘딥리얼(DeepReal)’이라는 AI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 버추얼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유튜버·스트리머도 3D 배경 공간이나 소품을 ‘TIH’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1인 방송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유저나 영상 콘텐츠 소비를 즐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라이프 로깅 기반 AI 아바타 헬스케어 서비스’ 특허를 출원했고, 현재는 실감형 AI 아바타를 이용한 ‘메디컬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루프린트랩의 '웨어',
스마트폰에서 안경·옷·신발
가상피팅 가능

기업
블루프린트랩

대표자
신승식



주요 제품(서비스)
비전AI 기반 AR 가상피팅 솔루션
'웨어(WeAR)'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blueprint-lab.com

블루프린트랩은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가상현
실(AR) 가상피팅 솔루션 '웨어'를 제공하는 기
업이다. 2017년 2월 설립했고, 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비전AI 기반 AR 가상피팅 솔루션

'웨어' 이야기

블루프린트랩의 '웨어'는 비전AI 기반으로 인체 혹은 사물을 인식한 뒤 그 위에 AR 효과를 더해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웨어는 웹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이미지 위에 AR 기술을 사용해 가상의 제품을 실시간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안경, 주얼리 등 액세서리를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다.

웨어에 사용되는 AI 인식기술 및 3D 처리기술은 인체뿐만 아니라 사물 등 모든 이미지에 사용 가능해 AR 가상피팅 솔루션, 3D 가상공간 및 아바타 제작,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

웨어의 차별점

웨어는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실시간 가상착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가상착용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블루프린트랩이 자체 개발한 인식모



귀걸이, 목걸이

안경

신발

옷

그 외 모자, 시계, 의료보조기구 등 신체 착용이 가능한 제품에 다양하게 확장 가능하며 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360도 뷰어도 함께 제공 가능

비전AI 기반 AR 가상피팅 솔루션 '웨어'의 피팅 기능들
(사진 제공 : 블루프린트랩)

델이 적용됐다.

이 인식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가볍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인식모델들은 하드웨어 성능이 뛰어난 서버나 고성능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동작했다. 블루프린트랩은 인식모델의 경량화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기기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웹 기반 기술을 적용해 인터넷 환경에 연결됐다면 언제, 어디서나 환경 제약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블루프린트랩은 안경 AR 가상피팅 솔루션, 귀걸이 및 목걸이와 같은 주얼리 가상피팅 솔루션, AR 가상 네일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블루프린트랩의 성과와 미래

블루프린트랩은 2019년 팁스(TIPS, 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페이스북 엑셀러레이터 서울',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등에 선정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블루프린트랩은 2021년 3월, 서울 AI 허브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본사를 양재로 이전했다. 서울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블루프린트랩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품 홍보를 위한 이미지, 모델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자사몰을 운영하는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비주얼캠프,
AI 기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
비주얼캠프

대표자
석윤찬

비주얼캠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들
의 시선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 개발을 위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하는 기업
이다. 2014년 설립했고 현재까지(시리즈B) 약 58
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시소(SeeSo)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visual.camp

비주얼캠프의 AI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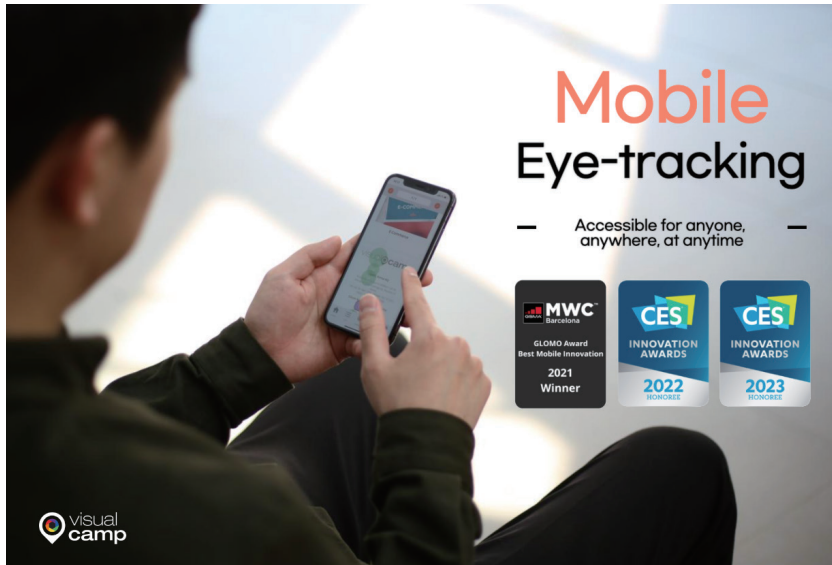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시소' 이야기

'시소'는 사용자가 화면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시소는 SDK 형태로 제공된다. SDK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와 노트북에 내장된 전면 카메라 혹은 PC 웹 카메라를 사용해 구동할 수 있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시선추적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웹/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주얼캠프의 차별 포인트

시소 SDK의 차별 포인트는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 기기 혹은 PC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시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 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소의 시선 추적 솔루션은 교육, 의료, UI/UX 분야, e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경쟁사의 경우 시선 추적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즉 보정 포인트가 5~9개가 필요한 반면 시소는 단일



비주얼캠프의 AI 기반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모바일 구현 이미지
(사진 제공 : 비주얼캠프)

포인트로도 보정이 가능하다. 보정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다. 시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또한 길고 복잡한 기존 제품 대비 간단하고 빠르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비주얼캠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주얼캠프의 기술은 우선 교육 분야에서 학습태도 모니터링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학생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지, 특정 구간의 학습 콘텐츠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를 추적한다. 이 기술은 교원, 비상M러닝, 아이스크림 에듀, 웅진씽크빅 등이 사용하고 있다.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력 진단 앱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인지기능을 진단하고 측정 할 수 있게 했다. 이대목동병원, altoida, 이모코그, 주식회사 하이 등이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분석 분야에서는 영상미디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 시선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상의 퀄리티에 대한 검증과 사용자의 시선이 관심영역(AOI)에 머무르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아모레퍼시픽, 한국리서치, PLAYGROUND XYZ 등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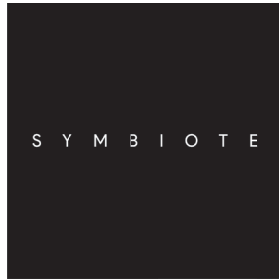
전자상거래용 시선기반 추천 기능도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시선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매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시선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융합해 CRM 향상을 도모한다. 사용 사례로는 에이코닉 등이 있다.

비주얼캠프는 2024년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선추적 기술의 글로벌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심바이오프시,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로
누구나 아바타 경험 제공

기업
심바이오프시

대표자
김태훈



주요 제품(서비스)
VIRTU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symbiote-ai.com

심바이오프시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소셜 플랫폼 'VIRTU'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설립했다.

심바이오프시의 솔루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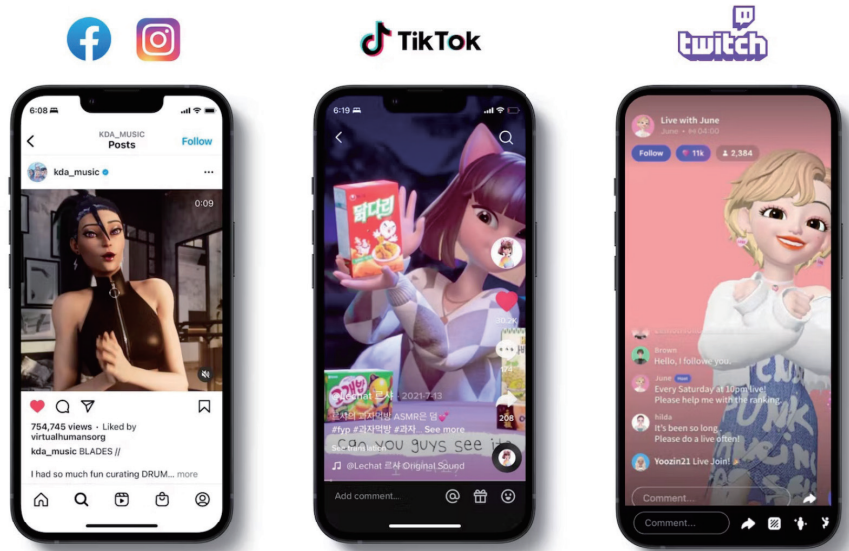
심바이오프시의 주요 서비스 'VIRTU'는 실시간 영상 통화·방송을 하거나 쇼츠(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소셜 플랫폼이다. 심바이오프시는 70억 인구에게 '내가 아닌 다른 디지털 존재가 되는 경험'을 전달하고자 VIRTU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VIRTU는 현실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 외모와 성별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경험은 원초적인 재미를 제공한다. VIRTU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진짜 얼굴을 기반으로 했던 유튜브, 트위치, 아자르와 같은 서비스에 완전히 다른 유저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심바이오프시의 차별 포인트

심바이오프시의 VIRTU에는 모바일 모션 캡처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모션 캡처 장비가 아닌, 20만 원의 저가형 휴대폰에서도 아바타를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실제 VIRTU는 출시 후 6개월간 별다른 마



VIRTU로 생성한 아바타 예시 이미지
(사진 제공 : 심바이오토시)

케팅 없이 북미, 중국, 중동, 일본 등의 국가에서 260만명 이상의 유저를 모았다.

심바이오토시의 성과 그리고 미래

VIRTU는 지금까지 자신의 진짜 얼굴을 기반으로 했던 유튜브, 트위치, 아자르와 같은 서비스에 완전히 다른 유저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심바이오토시는 1억 명의 취향에 맞는 1억 개의 아바타를 제공하기 위해 3D 아바타 생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선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심바이오토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아바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스튜디오랩, 셀러캔버스로
15초 만에 쇼핑물
상세페이지 '똑딱'

기업
스튜디오랩

대표자
강성훈

스튜디오랩은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 디자인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2021년 6월 삼성전자 사내 벤처프로그램(C랩)을 통해 분사창업을 했다. 2023년 4월 스프링캠프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STUDIO LAB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 디자인
자동화 서비스 '셀러캔버스'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studiolab.ai

스튜디오랩의 셀러캔버스는 생성 AI를 활용한 커머스 콘텐츠(상세페이지, 광고물 등) 자동 제작 서비스다.

패션 제품의 상세페이지는 구매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콘텐츠이지만 상세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비용, 시간 등 많은 노력이 따른다. 셀러캔버스는 상세페이지를 제품 사진 업로드만으로 제작해줘 셀러들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준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스튜디오랩이 몇십 만 건의 패션 상품 이미지 학습을 통해 개발한 비전 AI 모델이 상품의 특징을 파악해 상품에 어울리는 레이아웃, 디자인, 설명 문구가 포함된 상세페이지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 준다.

스튜디오랩은 브랜드 캔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디자인(브랜드명, 로고, 핵심가치 등)도 자동화 해 주고 있으며, 상품 등록 이후 판매 증진을 위한 광고물 등의 영역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 디자인 자동화 서비스 '셀러캔버스' 앱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스튜디오랩)

셀러캔버스의 차별점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직접 제작 시 디자인 툴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외주 제작 시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셀러캔버스는 포토샵을 다루지 못하거나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웹에 상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AI가 페이지 디자인을 제안해줘 일관된 품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들 또한 검색엔진 최적화(SEO)를 한 문장들을 제안해주기 때문에 검색결과에 상품이 더욱 잘 노출된다.

셀러캔버스는 사진 자동 촬영 로봇을 통해 누구나

쉽게 혼자서도 고품질의 커머스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진 촬영의 자동화를 통해 균일한 이미지 퀄리티와 정확도를 보장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상세페이지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셀러캔버스가 활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톤앤매너를 일정한 틀에 맞춰 시즌 당 2000개가 넘는 제품 상세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다보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MD, 디자이너 등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된다. 셀러캔버스는 일관된 디자인, 분위기의 상세페이지 제작으로 생산성을 높여준다.

스튜디오랩의 성과와 미래

셀러캔버스는 2022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로 30곳 이상의 소호 셀러들, 국내 패션 대기업과의 PoC(개념 증명)를 통해 서비스의 시장성을 입증해왔다.

글로벌 진출도 발빠르게 준비 중이다. 2023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비바텍(Vivatech) 2023' 전시회에 참가했고, 리테일 솔루션 경진 대회에서는 1등을 수상했다. 202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빅데이터 & AI 월드 2023'에서는 셀러캔버스를 소개해 쇼피(Shopee)를 비롯한 동남아, 일본의 커머스 플랫폼과 PoC 도입 미팅을 진행하는 등 이커머스 플랫폼, 패션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텍솔루션,
수식·그래프도 완벽 인식하는
교육콘텐츠 OCR 솔루션
'Qn.AI'

기업
아이텍솔루션

대표자
유왕상

아이텍솔루션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의 광학문자인식(OCR) 솔루션 개발 및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특히 수학 교육에서 인식이 어려운 수식, 그래프 등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2014년 9월 설립됐다.

iTeXSolution™

주요 제품(서비스)
교육 콘텐츠 디지털라이징 서비스
'Qn.AI'

사업 분야
시각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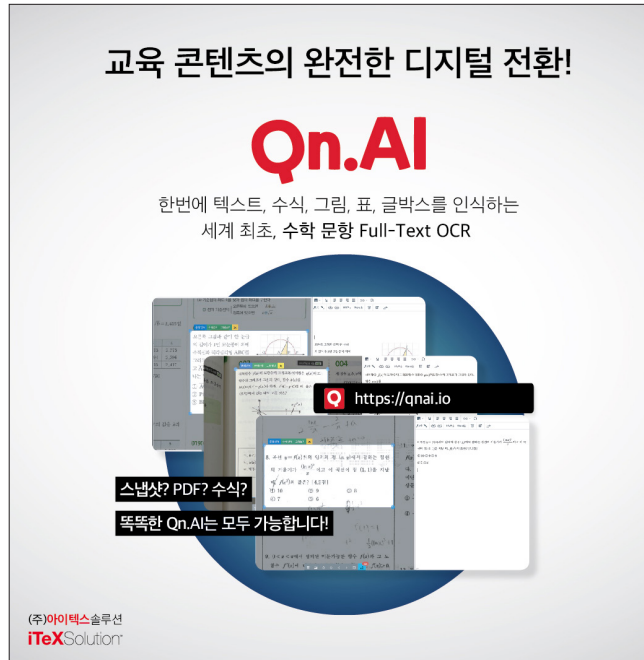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itexsolution.co.kr

아이텍솔루션의 솔루션 이야기

아이텍솔루션의 핵심경쟁요인은 인공지능 기반 'Qn.AI' OCR 솔루션이다. Qn.AI는 필기로 입력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집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다.

특히 Qn.AI는 수학 콘텐츠에서 강한 면모를 선보이는 풀텍스트(Full-Text) OCR 솔루션이다. 개인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 스마트펜 등을 사용해 필기하면 웹텍스트 형식으로 변환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인식과 동시에 수식과 텍스트를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GUI(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에디터를 제공한다. 스냅샷, 스캔 수학 교재, PDF 문서, 낙서를 포함한 훼손이 있는 문서도 인식한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학 그래프 자동 보정이 가능하다. 인식한 결과물을 아래아 한글, 워드 문서로 변환할 수 있다.



아이텍솔루션의 'Qn.AI' 이미지
(사진 제공 : 아이텍솔루션)

아이텍솔루션의 차별 포인트

Qn.AI 솔루션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자 비대면 학습 플랫폼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각광받을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Qn.AI의 수학식 필기인식은 최초 수식의 예측 결과와 함께 후보자 리스트를 제공해 잘못 판독된 문자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또 수식 구조 자체의 오류가 있을

때는 지우개 기능을 활용하면 틀린 부분만 수정해 다시 인식시킬 수도 있다.

기존의 입력 화면과 결과 화면의 분리 구조를 통합해 하나의 화면에서 입력, 결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시켰다.

아이텍솔루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이텍솔루션의 Qn.AI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CBT 기반 학업성취도평가에 수학 주관식 필기입력 솔루션으로 채택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풀텍스트 OCR 솔루션으로는 콘텐츠 디지털 전환 기술 사용량면에서 국내 최대다. 교사, 강사, 대규모 DB 구축용 클라우드 소싱 업무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돼 월 30만 문항 이상 디지털화되고 있다. 단순 문항 인식에 그치지 않고, 오류를 수정하고, 퍼블리싱 수준의 편집까지 가능한 에디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아이텍솔루션은 Qn.AI교육 콘텐츠 OCR 기술을 챗 GPT와 같은 LLM(거대언어모델)과 결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냅샷 촬영만으로도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풀이와 답을 얻는 진정한 AI 튜터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영역에 특화된 LLM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연구, 모델 파인튜닝에 활용될 양질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메가스터디교육 인강 강사, 콘텐츠 연구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콘텐츠 양쪽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중이다.

아키드로우,
'아키스케치'로 나만의
3D 인테리어를 똑딱

기업
아키드로우

대표자
이주성

아키드로우는 2014년 11월 회사를 설립한 가
상 인테리어 플랫폼 기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한 3D 공간 스캐너 '아키스케치'와 온라인 3D 인
테리어 플랫폼 '시숲'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6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모바일 3D 공간 스캐너
'아키스케치(Archisketch)',
온라인 3D 인테리어 플랫폼
'시숲(seasoop)'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rchisketch.com

AI 기반 3D 공간 솔루션 '아키스케치' 이야기

아키스케치는 ▲AI 디자인 솔루션(모델링 디자인)
▲고화질 렌더링 솔루션(모델링 시각화) ▲디자인 데이
터 생산 연동 솔루션(모델링 제조 & 생산) ▲콘텐츠 디
지탈 에셋 솔루션(모델링 관리 및 분석) 등을 제공한다.

먼저 AI 디자인 솔루션은 다양한 고객 인테리어 사
례를 적용공간별, 스타일별 무제한으로 추출해 활용하도
록 지원한다. 고화질 렌더링 솔루션은 고성능 컴퓨팅 파
워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16K 렌더링 이
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자인 데이터 생산 연동 솔루션은 3D 설계 데이
터를 이용해 수작업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관된 품질을 유
지하는 자동화 제조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또 커스텀 가
구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생산 소프트웨어와 연동
이 가능하다.

콘텐츠 디지털 에셋 솔루션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도면 뿐만 아니라 3D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
현해 생산 가능한 데이터로 저장 관리 및 분석(모델링 제

클라우드 고품질 렌더링 솔루션

설치형 렌더링 방식(스케치업, 오토캐드 등)은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 대비, 아키스케치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약 1-2분만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CPU와 GPU의 병렬처리로 저연산 고품질 렌더링을 수 초(sec)만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키스케치 에디터에서 생성한 16K 렌더링 이미지



동일한 공간에 다양한 컨셉 인테리어 스타일을 적용한 고품질 렌더링 사례

아키드로우의 클라우드 고품질 렌더링 솔루션
(사진 제공 : 아키드로우)

작, 모델링 통합, 시뮬레이션, 콜라보레이터)한다.

아키스케치의 차별점

아키스케치 차별점은 AI 디자인, 시각화, 생산, 디지털 자산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 설치프로그램 필요 없이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웹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며, 16K의 고품질 인테리어 렌더샷을 짧은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결과물은 일인칭뷰, 탑뷰, 720뷰, 파

노라마뷰 등 다양한 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술엔진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모듈 형태 설계로 구성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키드로우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키스케치 솔루션은 오늘의집 3D 인테리어 커뮤니티에 가상 셀프인테리어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LG 오브젝트 컬렉션 제품의 3D 및 화보 및 B2B 솔루션 렌더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 광클점 이벤트용 디자인 쇼룸 제작과 이노메싸 온·오프라인 인테리어 상담 솔루션, 원더라운 온·오프라인 인테리어 상담 솔루션 제작에 활용됐다. 이외에도 퍼시스 그룹(일룸, 퍼시스, 데스크, 시디즈)에 디지털 트윈 방식의 가구 생산에 적용됐으며, 듀오백의 가구 생산에도 AR 솔루션으로 제공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규 입주 체험 프로젝트에서 입주민에게 가상 셀프 인테리어 서비스로 제공됐으며, 일본 엔슈 부동산과 신규 모델하우스 구축 및 콘텐츠에도 활용됐다.

아키드로우는 인테리어 & 대형 가구 브랜드 공급에서 인테리어 및 건설회사, 가구 제조사 브랜드 및 유통회사 등 중소형 및 개인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위시,
다중카메라만으로 다인
3D 모션캡처 구현

기업
위시

대표자
이범우

위시(WiSH)는 2023년 5월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다.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기존 모션캡처의 단
점과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여러 영상 콘
텐츠 제작 환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WISH

주요 제품(서비스)
실시간 다중카메라 다인
3D 모션캡처 솔루션
'위모션(WiMOTION)'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wish.global

'위모션' 이야기

위시의 실시간 다중카메라 다인 3D 모션캡처 솔루션 '위모션(WiMOTION)'은 멀티뷰 영상들에서 사람들의 관절 위치를 추출하고, 이를 취합해 3D 모션 정보로 변환해주는 컴퓨터비전 AI 기술이다.

위모션은 다수의 RGB 카메라가 설치된 캡처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카메라들로부터 영상 입력을 받아 실시간/비실시간으로 3D 모션캡처를 진행한다. 언리얼엔진, 유니티 등 물리엔진 및 블렌더, 마야 등 상용 3D 툴과 호환 가능하다.

위모션이 기존 모션캡처와 다른 점

기존 모션캡처는 배우들이 고가의 마커수트(Marker Suit)를 입고 제한된 배경과 조명이 갖춰진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위모션은 일반 RGB 카메라 몇 대와 AI 인퍼런스용 PC 1대만 있으면 구동이 가능하고, 촬영 때 배우가 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이 신체와 손가락 트래킹이 가능하다.

위시는 위모션의 이러한 차별점이 비용 및 편의

성 측면에서 3D 모션캡처에 대한 사용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모션은 실시간 모션 추정과 비실시간 정밀 모션 추정으로 나뉜다. 실시간 모션 추정은 최대 10인까지 동시에 모션 추정이 가능하며, 순수 추정 FPS가 초당 30프레임으로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시각적 효과를 전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실시간 정밀 모션 추정은 실시간 모션 추정에 비해 수십 배 이상 거대한 AI 모델을 사용해 각 사람별 양 손과 얼굴을 포함한 100개가 넘는 인체 중요 키포인트 정보를 추출하고 키, 체형과 같은 그 사람의 고유한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보정한 후 신체 역학 고려해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동작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모션캡처 시장의 대안 제시

위모션은 기존 모션캡처와 동일하게 영화, 드라마, 게임 제작 등에 활용 가능하다. 그 외 여러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위모션을 실시간 모션 인풋 장치로 활용한 실시간 인터랙티브/이머시브 콘텐츠 서비스를 미술관에 납품하는 계약도 진행(2023년 10월 기준) 중이다. 위모션은 상설 전시나 팝업 스토어, 단기 행사 등에서 체험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다.

위시는 2023년 5월 설립한 6개월 차 신생 스타트업이다. 앞으로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 상기한 활용 사례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여러 전시회 참여 등으로 위



실시간 다중카메라 다인 3D 모션캡처 솔루션 '위모션'을 통해 사람의 동작이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모습(사진 제공 : 위시)

시의 기술을 더 알리고 잠재 고객들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얼굴 트래킹 기능과 기존에 개발한 '신체+손 트래킹' 기능과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트리플렛,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

기업
트리플렛

대표자
신동화

트리플렛은 인공지능(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를 제공해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업체다. 2015년 5월 회사를 설립했고, 프리 A 투자를 받았다.

Triplet

주요 제품(서비스)
딥라운지(DeepLoung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triplllet.com

트리플렛의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 이야기

트리플렛은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딥라운지는 매장 방문객의 성별, 연령과 동선, 매대별 체류시간, 행동을 분석하는 ‘매장분석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1:1 초개인화 추천 AI’ 솔루션과 ‘무인매장 AI’ 솔루션 등 3가지 솔루션을 담고 있다. 모든 솔루션은 AI 카메라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매장분석 AI는 매장의 방문자, 행동을 데이터화한 후 고객의 구매 여정을 꼼꼼하게 분석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가 올바른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초개인화 추천 AI를 통해 소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취향과 정보를 기반으로 알맞은 상품을 추천받고 구매과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딥라운지 무인화 AI는 완전한 무인매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재고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결품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알림을 보내 인력 효율화, 매장운영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자사에서 개발한 RFID 및 바코드 기반의 계산대와 도난방지 게이트도 있다.

이처럼 트리플렛의 솔루션을 통해 매장 점주와 매장 이용



트리플렛의 AI 리테일 플랫폼 ‘딥라운지’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트리플렛)

자 모두, 새롭고 유용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찾아 혁신적인 모습의 오프라인 매장을 만날 수 있다.

트리플렛의 차별 포인트

트리플렛은 데이터 기반의 매장 운영을 돕는다. 360도 AI 카메라라는 끊임 없이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솔루션 사용자들은 입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트리플렛은 오탐지와 데이터 유실, 시각에서의 데이터 고임문제, 중복 카운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다수의 대기업, 스타트업, 해외고객사의 사업을 통해 입증받고 있다.

트리플렛의 딥라운지 솔루션은 경제적이다. 하나의 카메라로 방범용 CCTV와 분석용 도구라는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고, 무인 매장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건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트리플렛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딥라운지 솔루션은 이마트,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물론 게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도 관련 솔루션을 정식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에도 솔루션을 납품했다.

트리플렛의 기술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 CES 2023 한국관에 참여한 뒤로, 2023 싱가포르 Big Data & AI World, 2023 바르셀로나 SCEWC 등 해외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해외 시장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트리플렛은 딥라운지 솔루션과 함께 AI 카메라 기술력을 검증받고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리플렛의 모토인 ‘Design New Humanity’에 걸맞게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패션에이드,
몇 분만에 생성하는
가상 피팅솔루션
'스타일AI' 제공

기업
패션에이드

대표자
백하정

패션에이드는 단 몇 분 만에 사실적인 패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상 피팅 솔루션 '스타일AI'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20년 6월 회사를 설립한 후 7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FASHIONADE

주요 제품(서비스)
가상 피팅 솔루션 '스타일AI(StyleAI)'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styleai.kr

'스타일AI'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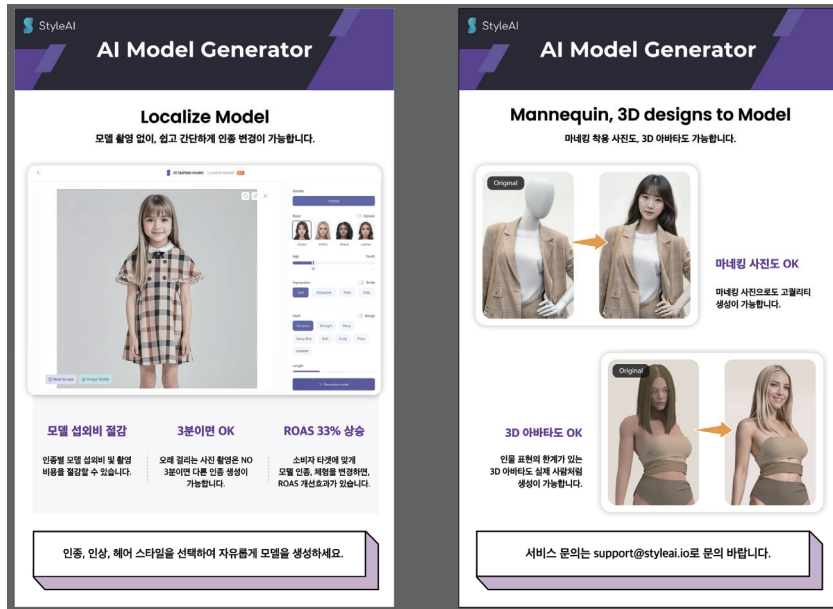
패션에이드의 '스타일AI'는 AI 기반으로 제품 사진에서 피팅 모델사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다. 스타일 AI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자들은 모델 섭외 없이 모델 사진을 생성할 수 있다.

스타일AI는 모델 착용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품의 길이감과 착용감을 분석해 모델사진을 생성한다. 원하는 외모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 모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인종, 연령, 얼굴, 헤어를 자유자재로 생성해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AI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스타일AI'로 피팅 모델 고민 해결

기존의 가상 피팅 서비스들은 3D 모델링 작업을 통해 아바타에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반면 스타일AI는 상품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가상 착용 기술로 기존 대비 5배 빠르게 가상 착용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패션 트렌드 데이터, 알고리즘 전문가를 통한 스타일링 방법을 조합해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상품 정보



스타일AI의 활용 예시로, 원하는 인종, 연령, 얼굴, 헤어을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패션에이드)

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스타일AI는 ▲제품의 착용감을 고려한 모델 생성 ▲초상권/저작권 걱정없는 모델 생성 ▲모델 매출영향도 측정 및 ROAS 관리 등이 서비스 차별점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휴먼생성 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

스타일AI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의 성격과 주요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경우 모델을 서양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실제 이 솔루션을 사용한 쇼핑몰들은 광고수익률(ROAS)을 최대 33%까지 증가시켰다.

스타일AI는 일반 의상은 물론 속옷, 주얼리, 가구(쇼파)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활용되고 있다.

패션에이드의 성과와 미래

패션에이드는 202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 3월에는 팁스(TIPS, 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됨과 동시에 서울 AI 허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패션에이드는 서울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패션에이드는 피팅모델 이미지/영상 생성 솔루션을 중심으로 패션/잡화/뷰티 분야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강아지 코·고양이 얼굴
인식하는 서비스 '펫나우'

기업
펫나우

대표자
임준호

펫나우는 2018년 8월 회사를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생체 인식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현재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의 생체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하고 조회하는 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
'펫나우(Petnow)'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petnow.io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 '펫나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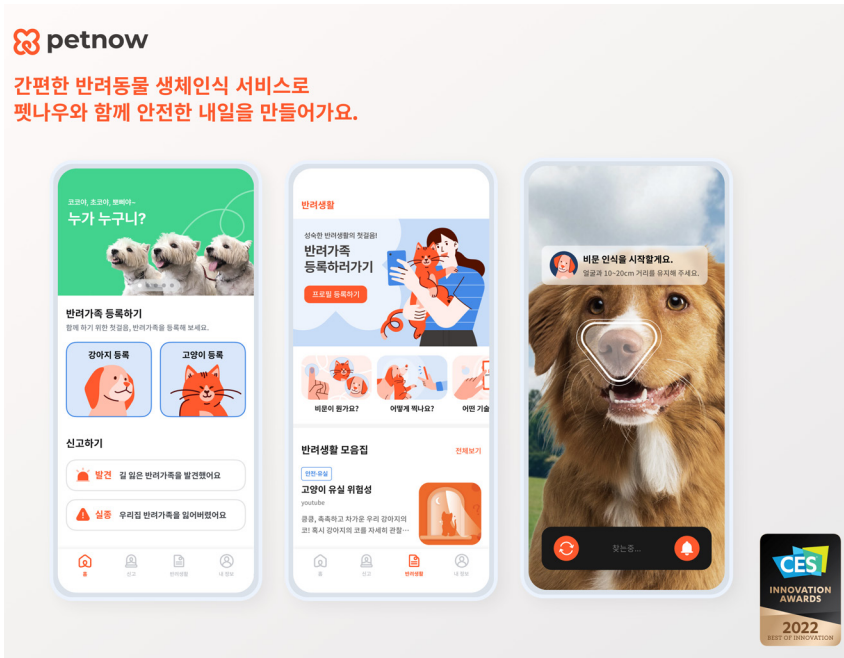
반려동물 또한 사람처럼 고유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려견의 경우 비문(코의 무늬)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생체 정보다. 또 반려묘는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펫나우는 이러한 생체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취득해 반려동물 각각을 식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펫나우 앱을 실행한 후 반려동물을 향해 스마트폰을 비추면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비문 위치를 찾아 사진을 자동으로 찍는다. 이러한 '오토 포커싱' 기능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펫나우의 차별 포인트

대표적인 반려동물 신원확인 방식은 '마이크로칩 삽입'이다. 명확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다. 일단 동물의 몸에 이물질을 삽입해야 한다는 점과 이는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가야 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스캐너가 필요하다.

펫나우는 3개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체별 특징을 구분하



AI 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 '펫나우'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펫나우)

는 방식을 개발했다.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앱에 탑재된 3개의 인공지능 기술이 강아지 얼굴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코를 찾는다. 강아지가 움직여도 자동으로 코를 추적하면서 촬영한다.

펫나우는 명확한 촬영을 위해 독자적인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했다. 촬영된 사진의 품질을 즉석에서 평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데이터는 버리고 다시 촬영을 시도한다. 촬영된 사진은 AI 기술을 통해 인식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0.08초에 불과하다.

펫나우는 2023년 고양이 얼굴 윤곽선 인식을 통한 등록 기술을 상용화 했다. 고양이는 털 고르기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얼굴 윤곽선이 유지된다는 특성을 살린 것이다. 여기에는 펫나우의 인공지능 객체 인식기술이 적용됐다. 또 반려묘의 행동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 신경망을 새롭게 설계하고 학습시켰다. 그 결과 고양이 얼굴 인식을 99%를 달성할 수 있었다.

펫나우의 성과 그리고 미래

펫나우는 2022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으며 2023년에도 CES에 참가해 한층 개선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T 전시회 'MWC 2023'에도 참가했으며,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에서는 AI 분야 피칭대회 '피치 배틀' 1위를 차지했다.

동물등록제 개선 성과도 있었다. 지난 8월 동물등록 방법에 비문, 흉채 등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프랑스, 캐나다도 동물등록 방법으로 펫나우의 비문 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펫나우는 반려동물 생체 인식 기술이 보험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생체 인식이 되면 이중 등록이나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생체 인식 기술을 한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국가로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펫나우 기술은 8개국에 진출해 있다.

포디아이비전,
임베디드 기반 초고속 엣지
AI 3D 비전 센서 개발

기업
포디아이비전

대표자
이희공



주요 제품(서비스)
TesseraVu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4division.co.kr

포디아이비전은 임베디드 기반 초고속 엣지 인
공지능(AI) 3D 비전 센서 'TesseraVue'를 개발
하는 기업이다. 2023년 8월 설립했다.

포디아이비전의 솔루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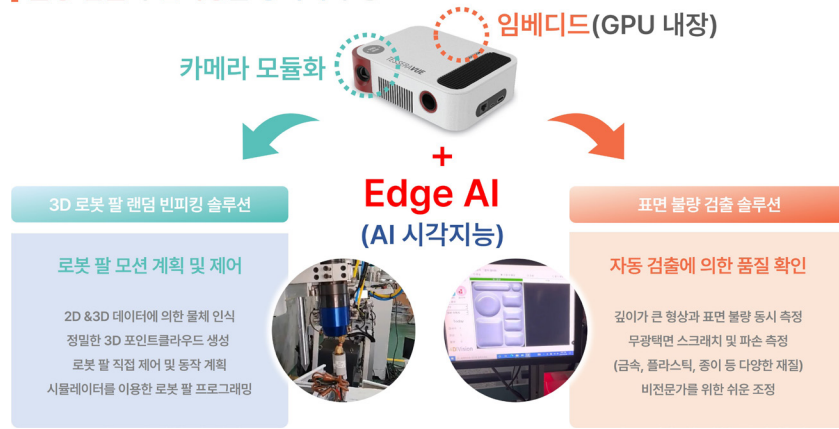
포디아이비전의 제품 'TesseraVue'는 3D 로봇 팔 랜덤 빈피킹 솔루션, 표면 불량 검출 솔루션을 지원한다. TesseraVue는 1kg 내외의 초경량 소형 센서다. 구조광 기반 위상측정 방식을 적용해 단시간 내에 서브마이크로미터 급으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로봇팔 자동화 조립공정 및 표면 측정에 적합하다. 로봇팔에 장착해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작업계획을 수행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초고속 및 멀티카메라 라인스캔 기반 'IronVue'는 금속과 플라스틱 표면 인쇄 및 형상 검사에 쓰인다. 3차원 레이저 프로파일러와 결합해 깊이 측정을 할 수 있다. 또 적외선 분광을 통한 화학적 조성 분석 기능도 수행한다.

포디아이비전의 차별 포인트

TesseraVue는 딥러닝 학습모델을 내장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객체 인식 기능 및 불량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2D 영상과 3D 포인트클라우드를 결합해 PC나 서버 없이도 센서에서 온라인 학습 최적화를

불량 검출과 빈피킹을 동시에 수행



포디아아이비전의 임베디드 기반 초고속 엣지 인공지능(AI)
 3D 비전 센서 'TesseraVue' 이미지
 (사진 제공 : 포디아아이비전)

이를 수 있다.

포디아아이비전은 시뮬레이터를 통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로봇팔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해 복잡도를 낮췄다. 또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포디아아이비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전세계적으로 무인공장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완전 무인화 공정을 위해서는 고정밀 정확도와 시각지능을 갖춘 로봇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2D 센서와 3D 센서는 정확도가 낮아 미세공정에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반면 고정밀 3D센서와 AI의 결합은 사람의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현재 포디아아이비전의 서비스는 LG전자의 창원 공장, 현대위아 PTU 기어 치흔 분석 POC(실증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포디아아이비전은 3D센서 기반 로봇팔 랜덤 빈피킹 솔루션으로 산업별 혹은 공정별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대기업 공장의 무인화 공정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보급된 로봇팔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피아스페이스,
CCTV 분석·영상 생성에
멀티모달 AI 적용

기업
피아스페이스

대표자
유현수

피아스페이스는 멀티모달 (Multi-modal) 인공
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영상분석 솔
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2021년 4월 설
립했으며, 현재까지 4.3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
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멀티모달 AI 기반 CCTV 보안 솔루션
'MACS' 멀티모달 AI 기반
영상 편집 솔루션 'SSAVE'

사업 분야
시각지능

사이트 주소
pia.space

멀티모달 AI 기반 CCTV 및 영상 분석 솔루션

피아스페이스의 주요 솔루션은 MACS(Multi-modal AI for CCTV Safety solution)와 SSAVE(Smart Search AI For Video Editor)다.

MACS는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CCTV에 찍힌 영상
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MACS
는 폭력, 흡연, 고소작업, 위험상황 예측, 중장비 간섭, 범람,
화재, 쓰러짐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한 연동은 API, 클라우드 서
버, 온프레미스 등으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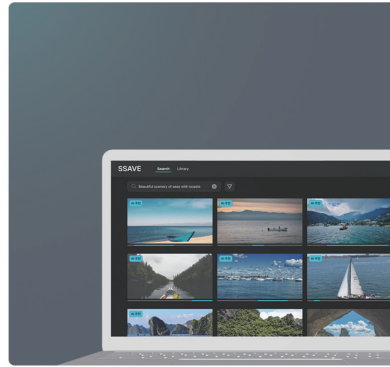
SSAVE는 영상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솔루션이
다. SSAVE 또한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해 장면별로 비디
오 섹션을 검색하는 다중 모드 AI SaaS로, SSAVE를 사용하
면 새 비디오를 생성하고, 비디오 콘텐츠 IP 침해를 모니터링
하고, 비디오 작품에 가장 적합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있다.

MACS와 SSAVE의 차별점

MACS는 오브젝트 디텍션(Object Detection, 객체 탐지),



MACS



SSAVE



피아스페이스의 멀티모달 AI 기반 영상 솔루션 'MACS'와 'SSAVE'
(사진 제공 : 피아스페이스)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지오펜스(Geo-fence, 가상 울타리)의 기존 지능형 CCTV 기술을 넘어 장면자체를 이해하고, 특정상황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SSAVE는 영상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태그가 돼 있는 영상에 한하여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할 수 있었다. 반면 SSAVE는 태그 없이도 영상 내 필요한 장면을 검색할 수 있고, 영상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도 원하는 장면을 찾아낼 수 있다.

피아스페이스의 성과와 미래

MACS는 AI 기반의 4세대 CCTV 관제 솔루션을 제안해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각 산업 별 통합관제시스템과 계약 단계에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안전관리 솔루션, HD현대 안전관제, 신동디지텍 선박 내 CCTV 솔루션 등을 협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 내 구청별 AI 기반 CCTV고도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외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내 보안 업체와 CCTV 분석 관련 PoC(개념증명) 진행단계에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의 요청(선박, 헬기 등에 필요한 영상분석 AI 도입)으로 기술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SSAVE는 국내 주요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내부 대량의 DB을 AI를 기반으로 검색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한 방송사(제이원더, 연합뉴스 등)에서 소유한 내부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포츠제작 및 과거 영상 검색에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아스페이스 단기 글로벌 계획으로 2024년 중 북미 시장 및 싱가포르(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한 CES(IT·가전 전시회,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큰 국제 박람회 및 기술 행사에 참여해 기술 및 제품을 전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언어 지능



AI 시계열 예측 기반으로
상품 수요·공급 최적화

기업
모플

대표자
성시현



주요 제품(서비스)
mofl Exsight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mofl.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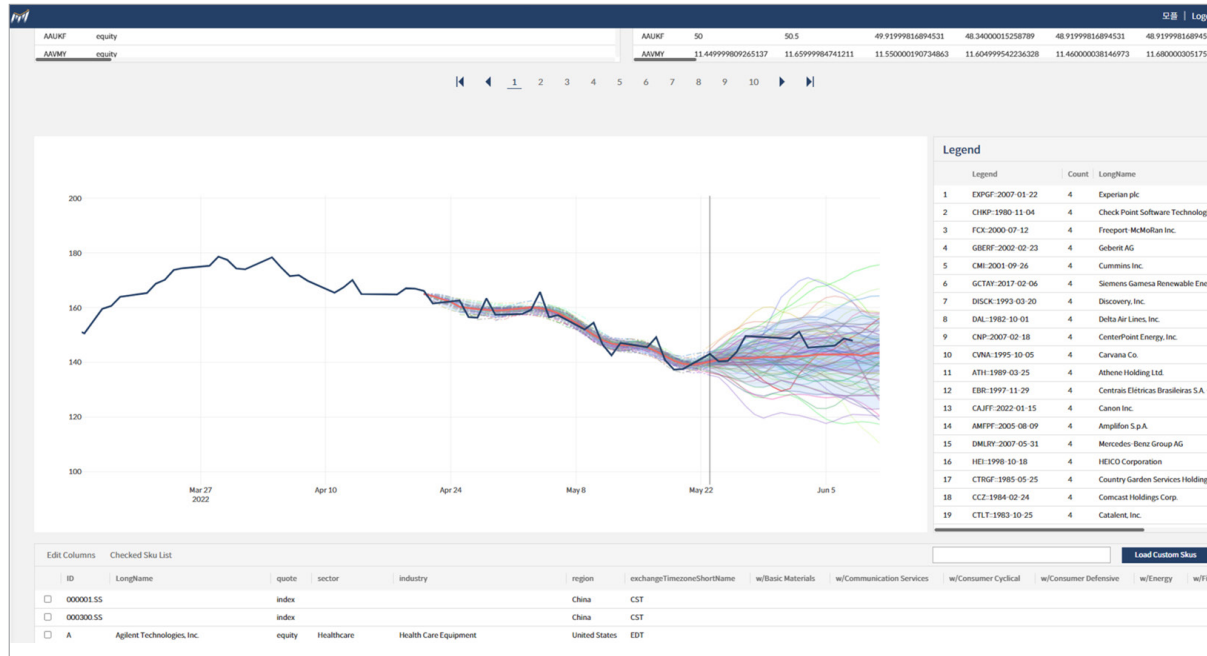
모플은 인공지능(AI) 시계열 예측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업무 자동화·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18년 12월 설립해, 현재까지 2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모플의 솔루션 'mofl Exsight' 이야기

모플은 시계열 예측 AI 기반 실물경제 수요·공급 최적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플의 서비스 'mofl Exsight'는 데이터 검수·보정·연동부터 AI 모델 생성, 대시 보드를 통한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플은 현재 시계열 예측 AI를 통해 리테일 수요와 주가 예측 두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밀한 미래 예측을 통한 공급망의 효율화 및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고객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를 결합해 DB구축, 검수/보정, 관리 등을 수행하고 고객 비즈니스를 관통하는 핵심 시계열 데이터의 미래를 예측한다. 리테일 수요 예측은 의류매장의 과거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수요를 예측해 실수요에 근접한 재고 배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재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모플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모플)

모플의 차별 포인트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기술이 대부분 이미지나 자연어 처리에 집중돼 있는 반면 모플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하고 있다.

모플의 장점은 높은 정확도를 가진 AI 모델링 기술이다. 모플은 실제 업무에 투입해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임계점을 넘긴 수준의 AI 시계열 예측 엔진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계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복잡한 공급망관리(SCM) 로직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

모플의 성과 그리고 미래

모플은 국내 매출 1조원 이상의 패션 SPA 브랜드의 물류를 자동화해 결품 손실을 20% 이상 개선하고, 업무 투입 시간을 80% 줄인 바 있다.

향후 AI 기술을 꾸준히 강화해 고객 재무 지표를 크게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개선해 빠르게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세일즈 성과 올려주는
'AI 기반 대화 분석' 서비스
제공

기업
보다비

대표자
이삼현

보다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
기술 전문 기업이다. 2020년 1월 회사를 설립
했으며 2023년 10월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
에 성공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 기술

사업 분야
언어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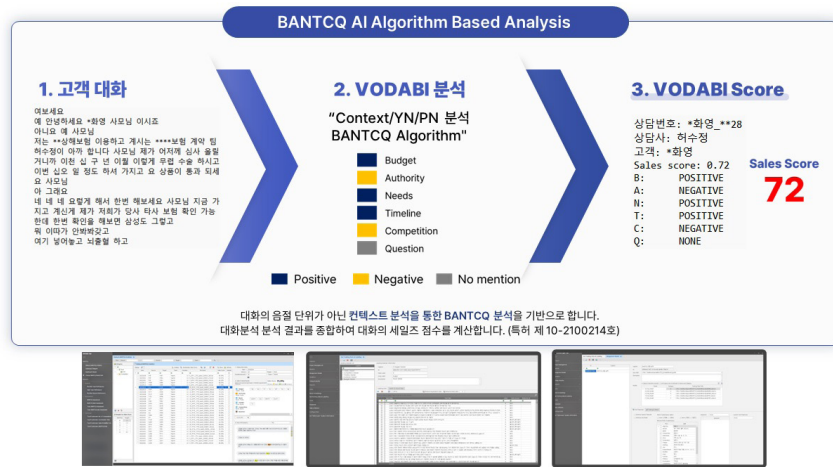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vodabi.com

보다비의 AI 기반 대화 분석 기술

보다비 서비스는 콜센터 및 챗봇의 대화 내용 분석, 세일즈 대화의 충실도 평가, 세일즈 성사 가능성 점수를 제공하는 분석 알고리즘 모델 및 솔루션이다. 실제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나 세일즈팀 운영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고객과 나누는 세일즈 대화는 매우 많으나 고객 상담원마다 스킬과 경험 차이로 인해 많은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 고객센터나 영업팀은 랜덤콜을 듣고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코칭포인트를 찾는 것이 현실이었다.

보다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성사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성과 개선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발견해 성사가능성을 높이는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영업팀/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보다비의 AI 알고리즘 기반 대화 분석 처리 과정
 (사진 제공 : 보다비)

보다비 기술의 차별점

보다비는 스마트폰 통화, 화상회의 대화, 메신저 대화 등 고객과 진행한 여러 방식의 대화를 'BANTCQ' 기술을 통해 분석한다. 이 기술은 보다비의 분석 프레임 특허로, 이 기술의 라이선싱을 통해 북미 시장 경쟁사들을 고객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현재 줌(Zoom) 회의, 줌 챗, 줌 폰과 연동되는 'VODABI for Zoom 앱'은 '줌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등록돼 있다.

보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보다비는 2022년 KT와 서울 AI 허브가 주최한 '서울 AI 허브 × KT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KT와 AI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양한 금융 고객 레퍼런스도 쌓고 있다. DB손해보험 PoC(개념증명) 진행 중이며, 생명보험사와도 투자를 포함한 PoC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외 IBK,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도 PoC 검토 중에 있다.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인 유아이패스(UiPath)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AI 센터 플랫폼'에 탑재시켰으며, 오픈AI의 챗GPT와 연동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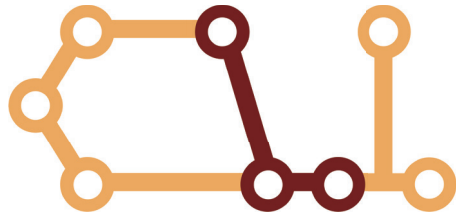
보다비는 국내 보험(62개 보험사, 1050개 종합보험사)사들을 1차 고객으로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외 시장 진출과 영역의 확대(자동차, 부동산 등)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캐나다 지사를 설립했으며, 2023년 북미 고객 유치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다양한 국가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이엘아이, 문서 학습하면
자연어로 답해주는
'에스크미' 시스템 구축

기업
에이엘아이

대표자
이민호

에이엘아이는 문서 처리 기술 및 자연어 처리 기술 스타트업으로 2019년 1월에 설립했다. 2020년 기술보증기금 3억 원을 투자 받은 이후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2023년 4월 1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문서 처리 기술 및
자연어 처리 기술
'에스크미(AskMe)'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neoal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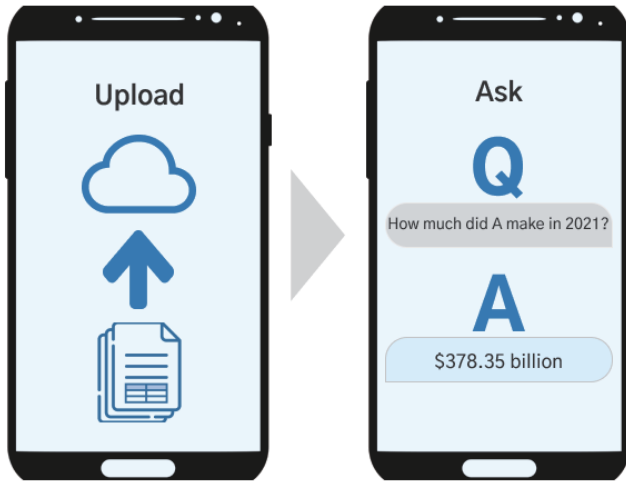
문서 형태 지식을 학습하는 '에스크미' 이야기

에이엘아이의 AI 지식서비스 '에스크미(AskMe)'는 기존의 비효율, 저성능의 온톨로지(Ontology) 방식을 탈피하고 문서 형태의 지식을 학습해 자연어로 정답을 전달하는 새로운 응답(Answering) 솔루션이다. 다양한 서식으로 구성돼 있는 문서 처리에서부터 생성형 답변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기법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은 사용이 가능하다.

에스크미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AI에 적용한다. AI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단순 텍스트에 불과한 방대한 문서를 지식으로서 가치 있는 텍스트로 승격시킨다. 또한 에스크미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30초 내외로 문서를 학습 할 수 있다.

AskMe

An AI that studies for you!



에이엘아이의 문서 처리 기술 및 자연어 처리 기술 '에스크미'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이엘아이)

에스크미의 차별점

에스크미는 ▲고도화된 문서 처리 기술과 검색 기능 ▲구축형으로 제공 가능한 온프레미스 언어모델이 주요 특징이다.

먼저 고도화된 문서 처리 기술과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모델 인풋을 가공하는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DF, ODT, HTML 등의 파일로부터 바로 정보

를 추출할 수 있다. 긴 보고서나 책 한 권 분량의 문서에서도 빠른 시간에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문서 처리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온프레미스 언어모델은 보안 문제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구축형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도메인에 특화시켜 작은 모델 사이즈로도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에이엘아이의 성과와 미래

에스크미는 HR 시스템의 사내 규칙 질의응답 챗봇, 채용 정보 문의 응답 챗봇, 건강정보 질의응답 챗봇 등에서 업로드된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질문을 답변해주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에이엘아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어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페르소나 챗봇 모델과 연계해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뿐 아니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가능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생성 AI 모델을 개발 및 활용해 사용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문서에 있는 표 및 차트 이해 기술들을 이용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엑스엘에이트,
AI 활용한 실시간 자동번역
솔루션 제공

기업
엑스엘에이트

대표자
정영훈

엑스엘에이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자동번역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2019년 10월 회사를 설립했고, 150억 원 규모
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이벤트캣(EventCAT)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xl8.ai

엑스엘에이트의 솔루션 이야기

엑스엘에이트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해 자막을 제공한다. 대표 서비스로는 ‘미디어캣(MediaCAT)’과 ‘이벤트캣(EventCAT)’이 있다.

번역 서비스 ‘미디어캣(MediaCAT)’은 영화, 드라마 등 제작된 영상 자막 번역에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 미디어캣은 고객들이 AI 기술이 탑재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 기업이나 번역가들이 쓰고 있다.

실시간 번역 솔루션 ‘이벤트캣(EventCAT)’은 오프라인 행사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언어로 스크린 혹은 개인 태블릿, 모바일 등에서 번역된 자막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엑스엘에이트의 차별 포인트

엑스엘에이트는 엑스엘에이트는 영상 분야의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완벽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번역 엔진을 구축했다.

미디어 및 구어체 통번역 정확도가 타사 대비 20% 이상 우수하다. 또 구어체 번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모달(Multimodal) 번역, 문맥인식(Context Awareness) 기술, 개인화(Personalization) 기술 등 다양한 AI 기술을 탑재했다.

인력 중심의 프로세스 대비 최소 30%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쉽고 현장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엑스엘에이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엑스엘에이트의 미디어캐트는 영화, 드라마 등 기제작된 영상에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의 자막 번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 현재 글로벌 1위 OTT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다.

엑스엘에이트는 실시간 번역 솔루션 이벤트캐트를 활용해 영상 번역을 넘어 홈쇼핑, 라이브 방송, 온오프라인 국제회의 등 이벤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Nature 포럼과 리움미술관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 2023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등 다양한 행사에서 이벤트캐트를 사용했다.

엑스엘에이트는 앞으로도 전 세계 누구나 언어의 다름이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엑스엘에이트의 미디어 번역 자동화 솔루션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엑스엘에이트)

커먼컴퓨터, AI 네트워크와
AI NFT로 간편한 AI 활용
도와

기업
커먼컴퓨터

대표자
김민현

커먼컴퓨터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누구나 웹 및 메타버스 상에서 간편하게 인공지능(AI)을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 3.0 시대의 'The Internet for AI(AI를 위한 인터넷)'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이다. 2018년 5월 설립했다. 130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AI 네트워크(AI Network),
AI NFT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comcom.ai

커먼컴퓨터의 솔루션 이야기

커먼컴퓨터의 AI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로 AI와 메타버스를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반의 협업 컴퓨팅 아키텍처다. 누구나 AI 개발에 필요한 모델,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자유롭게 모듈 형태로 결합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AI 네트워크상에서 운영 중인 AI 모듈들은 서비스 형태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최소한의 튜닝만으로 최적화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AI NFT'는 웹3.0 시대의 메타버스 시장에서 형성되는 NFT(아바타, 아이템, 예술품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AI를 결합해 기존 NFT를 재창조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체성을 부여해 사용자들과 상호 작용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커먼컴퓨터의 AI 네트워크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커먼컴퓨터)

커먼컴퓨터의 차별 포인트

AI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AI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과 데이터가 라이브 서비스 형태로 공유된다. 누구나 AI를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개발이나, AI 백엔드 인프라에 대한 전문성 없이도 간편하게 최신 모델을 튜닝하거나 서비스화할 수 있다.

커먼컴퓨터의 솔루션의 또다른 특징은 초거대 공개모델도 함께 해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업 AI(Collaborative AI)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메타버스 상에서 수많은 대규모 AI를 연결하고 NFT와 결합해, 웹3.0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DB) 인프라 및 서비스형 AI(AIaaS)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커먼컴퓨터의 성과 그리고 미래

커먼컴퓨터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함께 창업했다. 자체 블록체인 기술인 AI 네트워크를 지속 개발하면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AI x NF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LG전자, LG AI 리서치, 라인 넥스트, 핑크퐁 USA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시리즈 B 브릿지 라운드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커먼컴퓨터는 2025년까지 2만 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AI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신 초거대 공개모델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AI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GPU,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을 접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델을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맞게 훈련하고 제공해 글로벌 B2B로 확장 지원할 예정이다.

NFT 분야에서는 1만 개의 AINFT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AI Network 기반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내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테디썸, 한국어 평가 위한
경량화 언어모델
'블러썸' 개발

기업
테디썸

대표자
함영균

테디썸은 자연어처리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월 회사를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경량화 언어 모델 '블러썸(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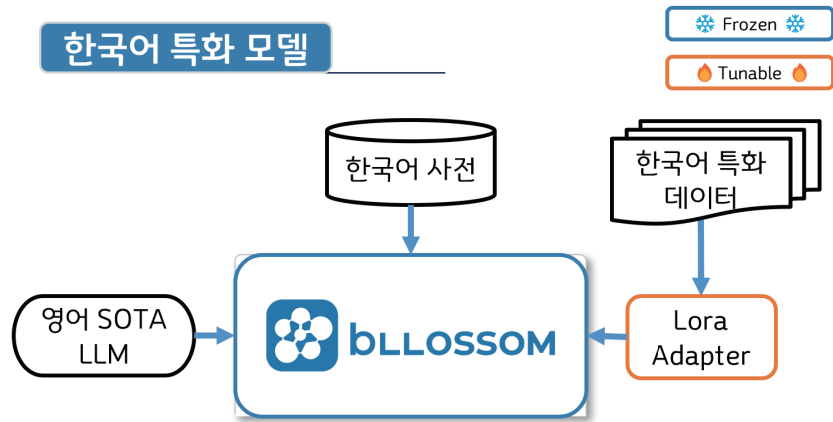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teddysum.ai

테디썸의 경량화 언어 모델 '블러썸' 이야기
테디썸은 자체 언어 모델로 한국어 평가에 특화된 경량화 언어 모델 '블러썸(Blossom)'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대화 이해와 요약, 글쓰기 자동평가가 가능하며, 요약 및 추론 능력에 특화돼 있다.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다.

블러썸 모델은 최소한의 데이터로 효율적인 학습을 통한 특수 도메인 적용에 유리하고, AI를 통한 글쓰기 자동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이 기술은 한국어 글쓰기 평가에 특화된 LLM(거대 언어모델)을 바탕으로 시의 응답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평가에 특화된 '블러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류의 영향으로 연평균 16.1%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수작업 평가를 통한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러썸 모델은 시간과 비용을 줄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언어모델 '블러썸'의 작동 방식
(사진 제공 : 테디썸)

이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평가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

블러썸은 AI 평가 플랫폼인 국립국어원의 AI 말평의 기준 모델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되고 상용화 된 다른 경량화 언어 모델과 비교해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으며, 이는 해외 우수학회 논문으로 제출됐다.

테디썸의 성과와 미래

테디썸은 KAIST 자연어처리 연구실 석박사 출신이 모여 창업했다. 2021년 창업 후 인공지능 챔피언십 수상, 2022년 국가 R&D과제 수행, 주요 학회에서 연구성과 발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자연어처리 연구나 기술이 문서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디썸의 AI 모델은 국내 한국어 모델 중에서도 우수한 요약 성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테디썸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의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자동 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다국어로 제공되는 AI 기반의 평가 및 첨삭 수행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블러썸의 멀티모달 모델을 개발해 평가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플랭, 사용자 맞춤
영어회화 서비스
'실전 트레이닝'으로 차별화

기업
플랭
대표자
강민규

플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어회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AI 기술을 통해 개인의 영어 실력을 분석하고, 학습 콘텐츠를 추천한다. 2019년 6월 회사를 설립했다. 시리즈 A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플랭

사업 분야
언어지능

사이트 주소
plang.ai

플랭의 솔루션 이야기

플랭의 주요 서비스인 '플랭'은 AI를 활용해 학습자의 실력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플랭은 학습자의 영어 실력 분석을 위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음성 인식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음성, 텍스트 입력을 AI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어휘 수준, 문법 구조 이해도, 발음 정확도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 프로필에 저장되고,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데 사용된다.

플랭은 또한 AI를 활용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한다. 알고리즘이 학습자 데이터와 영어 학습 리소스 사이에서 패턴과 연관성을 찾아낸 후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제공한다.

플랭의 목표는 개개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플랭의 AI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플랭)

플랭의 차별 포인트

플랭은 AI를 활용해 완전한 개인 맞춤 영어 학습을 제공한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AI는 학습자가 발화하는 문장의 패턴과 길이, 정확도, 단어, 발음 등을 수집해 취약점을 분석한다. 이후 분석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학습을 추천한다.

또 플랭은 실전 회화 트레이닝을 강조한다. 플랭에서는 직접 말하는 학습 비중이 90%에 달한다. 학습자가 직접 영어 문장을 말하고, 해당 문장이 의미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인지 평가 받는다. AI는 어색한 부분을 짚어주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플랭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다양한 연령 및 직업의 학습자가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플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 30개 학교에서 5000명의 학생이 플랭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최근 AI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기관에서도 서비스 도입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플랭은 최근 일본 B2C 시장에 진출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남북미의 다른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2B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음성 지능



캐치플로우,
초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개발

기업
캐치플로우

대표자
김태영

캐치플로우는 특정 영역에만 소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지향성 사운드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2018년 6월 회사 설립 후 삼성벤처투자, 현대자동차제로원, 씨엔티테크 등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SRAY-S, SRAY-P 등

사업 분야
음성지능

사이트 주소
catchflow.co.kr

캐치플로우의 솔루션 이야기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지향 특성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원하는 특정 지역에만 소리를 전달한다. 40KHz 초음파 대역에 음을 실어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 소리가 전송될 때는 사람의 귀에 안 들리지만, 사물 혹은 사람에게 부딪히면 귀에 들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리의 확산을 제어해 2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사용자 인식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사용자 자세 인식과 상황인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향성 스피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캐치플로우의 차별 포인트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작은 크기와 가격 경쟁력이 특징이다. 최적 설계를 통해 저전력, 긴 제품 수명,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추가설치 모듈(AMP)이 불필요하고 마



도쿄의 ATM 20곳에 설치돼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인식형 초지향성 스피커 SRAY-D(사진 제공 : 캐치플로우)

운트 체결의 범용성이 높아 설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캐치플로우의 초지향성 스피커는 일체형, 모듈형으로 구성돼 사이니지와 키오스크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마트, 미술관, 버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활용성이 높다.

캐치플로우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까지 초지향성 스피커 SRAY-S는 아시아문화원, 서울시 서울비엔날레, 성남시 장례문화 사업소 등에 적용됐다. 사용자 인식형 초지향성 스피커 SRAY-D는 2023년 상반기 일본 경시청의 협조로 도쿄의 ATM 20곳에 설치돼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치플로우는 현재 사용자 자세 인식과 상황 인식, 사용자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AI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지향성 스피커와 AI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융합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필드에스, 3D-AI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로 3D 콘텐츠
실시간 제작

기업
필드에스

대표자
전준혁

필드에스는 3D 콘텐츠나 서비스에 인공지능
(AI)을 쉽게 접목할 수 있게 돕는 3D-AI 플러
그인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2년 설립했다.

field S

주요 제품(서비스)
3D-AI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음성지능

사이트 주소
field-s.com

필드에스의 솔루션 이야기

필드에스는 실시간 3D 콘텐츠와 서비스에 AI 모
델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필
드에스의 솔루션은 2D 얼굴 이미지를 넣어 3D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 자동으
로 이뤄진다. 음성의 단어와 감정을 판별해 3D 캐
릭터의 얼굴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실시간 통
역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필드에스의 차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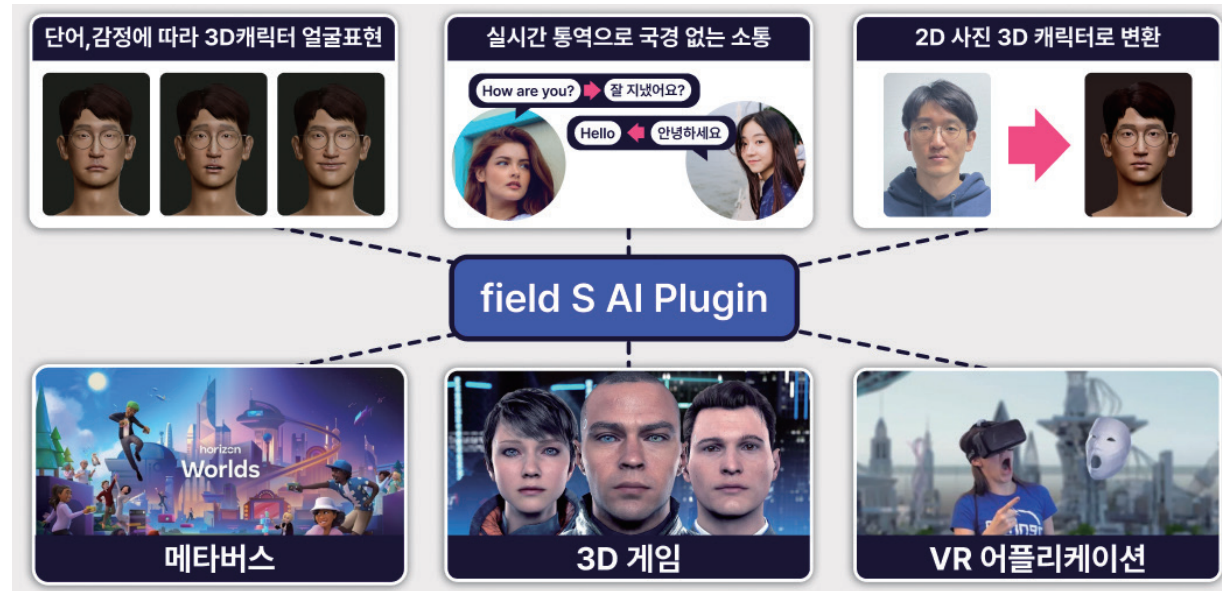
필드에스 솔루션의 차별 포인트는 다양한 게임 엔
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VR(가상
현실) 내부에서 텔레포트 이동이나 물건을 잡고
던지는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고가의 카메라 장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
며,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캐릭터의 표정을 실시
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필드에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필드에스는 이 기술을 VR 팬미팅, 콘서트, 뮤지컬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버츰 아이돌 양성 외에도 메타버스, 소셜라이징, 데이팅, 여행,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음성에 따른 캐릭터 표정이 변하는 AI 모델과 2D 얼굴 이미지에서 3D AI 모델을 생성하는 기능, VR 테마공간 등의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엔터테인먼트사를 비롯한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 앱/웹 제작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베타서비스 및 정식서비스할 계획이다.



필드에스의 3D-AI 소프트웨어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필드에스)

데이터 가공



드로미, 딥러닝·드론 기반
도로 정보 솔루션 '카프리'

기업
드로미

대표자
이승호

드로미는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3D 공간정보를
만들고, 머신러닝을 결합해 다양한 도로 정보 솔
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다. 2017년 9월 회사를 설
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카프리
(CfSM, Car-free Street Mapping)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drome1123.wixsi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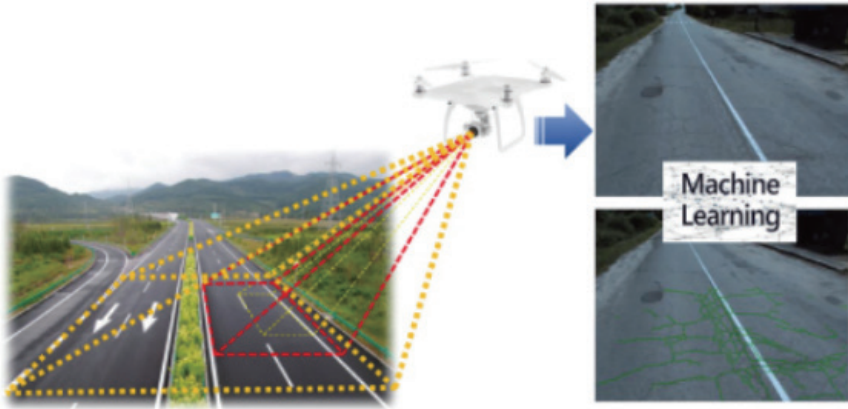
드로미의 솔루션 '카프리(CfSM)' 이야기

드로미는 딥러닝, 드론 기반의 도로위 차량 이미지 자동 제거 솔루션을 운영한다. 드로미의 AI 기반 도로 이미지 처리 기술 '카프리'는 드론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이미지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제거한다. 그 결과 차량이 없는 깨끗한 도로의 모습을 제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도로 이미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로미의 차별 포인트

드로미는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의 융합 솔루션이라는 차별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도로 측정 기술은 MMS(Mobile Mapping System)와 같은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드로미의 카프리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드론을 기반으로 하기에, 도로의 양방향 전체를 모두 촬영해 일괄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도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재조사,



카프리 내의 DTM ML 서비스
(사진 제공 : 드로미)

재촬영 등을 여러차례 거쳐야했다면, 카프리 솔루션은 한번의 촬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프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도로정밀안전지도(HDSMap) 제작에 필수이며, 도로 노면의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2D 및 3D 모델링에도 활용할 수 있다.

드로미의 성과 그리고 미래

드로미는 딥러닝 및 드론 기반의 도로 정사사진(모든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사진) 제작 솔루션, 다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3D 모델 제작 솔루션, 드론 기반의 실사형 도로정밀 안전지도(HDSMap) 제작 솔루션, 노드(Node) 기반의 네트워크 분산처리를 이용한 영상처리 자동화 솔루션 등을 개발했다.

현재는 드론 데이터의 객체 인식과 트래킹 기술을 통한 결과와 기존 블랙박스 데이터를 융합해, 교통흐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모델 구현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교통흐름 최적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마이닝비즈랩,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기업
마이닝비즈랩

대표자
박상현

마이닝비즈랩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전 주
기에 걸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스타트
업이다. AI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021년 3월
설립했다. 2023년 10월 기준, 18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데이터 애널리저(Data Analy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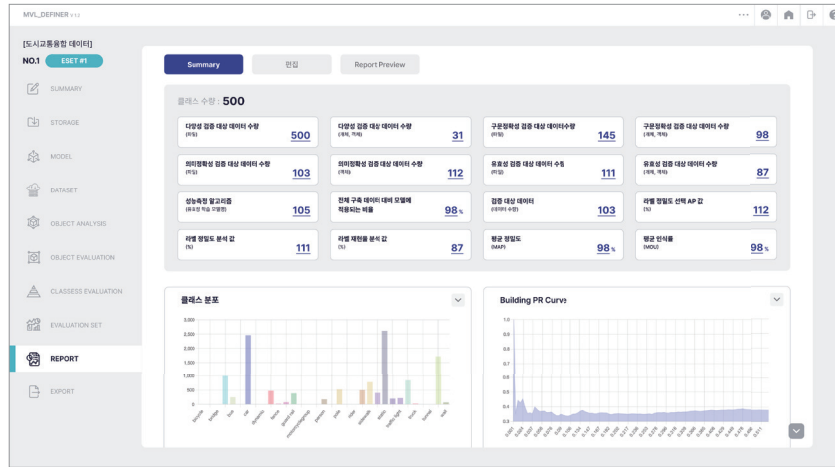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miningvizlab.com

마이닝비즈랩의 솔루션 이야기

마이닝비즈랩의 데이터 애널리저(Data Analyzer)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AI 모델의 성능과 직결되는 학습데이터의 다양성, 의미 정확성, 유효성을 분석해 학습 데이터셋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합목적성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애널리저에는 데이터셋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통계적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또 데이터의 품질 점수에 기반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양질의 데이터만을 추출해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낮은 점수의 데이터는 재가공해 전체적인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레포트 제공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 품질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마이닝비즈랩 솔루션 실행 이미지
(사진 제공 : 마이닝비즈랩)

마이닝비즈랩의 차별 포인트

마이닝비즈랩의 데이터 애널리저는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 빠르고 직관적인 전수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일부 샘플 데이터 추출 및 검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일반화 오류, 편향성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전체 데이터셋의 품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UI/UX를 지원하고, 데이터셋의 정보 검색 편의를 위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프로젝트별 키워드를 사용해 데이터 파일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데이터 탐색의 속도와 효율성 향상을 지원한다.

데이터의 보안을 위한 프로젝트 분리 기능을 제공하며, 코드별로 프로젝트별 페이지를 완전히 분리해 고유하고 안전한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마이닝비즈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마이닝비즈랩은 데이터 애널리저의 자동화 기능을 통해, AI 프로젝트 전체 시간·비용의 50%에 달하는 데이터 정제 및 품질검증 자원 소모를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자율주행 및 인체 동작 분야 데이터의 품질 검증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 레퍼런스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이닝비즈랩은 생성형 AI와 통계 모델을 적용해 GT 생성 및 검증결과 기능을 강화한 데이터 애널리저2.0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데이터 품질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아이앤아이솔루션,
임신성 당뇨 환자 위한
개인맞춤 식습관 코칭
플랫폼 운영

기업
아이앤아이솔루션

대표자
김양원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 식습관 코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 회사를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잇코(eatco)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inisolution.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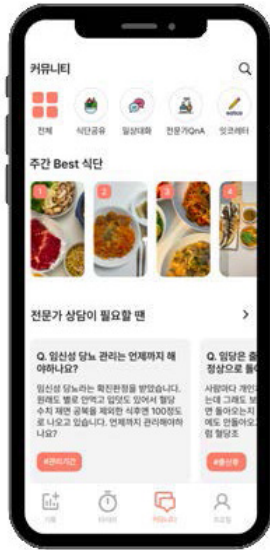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솔루션 이야기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잇코(eatco)’ 서비스는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을 기록해 스스로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다.

잇코는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AI) 기술이 음식을 인식해 영양 정보 분석 및 개인의 식습관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잇코 서비스는 당뇨 환자에게 특화됐다. 당뇨 환자들은 식습관이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하고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잇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식이기록 기반 혈당 관리를 통해 기록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인포그래픽화된 정보를 통해 한눈에 자신의 식단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차별 포인트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영양점수 라벨링(Nutri-Socre)’ 등급제에 기반해서 영양 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점을 가진다. 영양점수 라벨링 등급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임신성 당뇨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 식습관 코칭 플랫폼 이미지(사진 제공 : 아이앤아이솔루션)

제도는 정확한 식품 영양 등급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프랑스 보건국에서 개발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은 식품 내 영양소를 분석해 5등급(A, B, C, D, E)으로 영양 등급을 라벨링할 수 있는 영양 등급제도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잇코 서비스가 음식 사진을 인식하고 영양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다.

아이앤아이솔루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아이앤아이솔루션은 누구나 쉽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식이 기록 기반 혈당 관리 시스템을 지원한다.

현재는 국내 임신성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 해외 시장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스엔피랩, 보안에 강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에스엔피랩

대표자
이재영

에스엔피랩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기업이다. 2019년 12월 설립했다. 주력 사업모델은 개인데이터 중개 앱 ‘마이디(my:D)’와 서비스형 개인정보서비스(PDaaS) ‘ODM패스’가 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Security & Privacy Laboratory

주요 제품(서비스)
마이디(my:D), ODM 패스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snplab.io

에스엔피랩의 마이데이터

솔루션 이야기

에스엔피랩의 대표 서비스인 ‘마이디(my:D)’는 기업이 개인데이터 이용권을 활용해 개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마이디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계약을 선 수행하면, 기업은 승인된 개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이 보관·관리 하지만, 기업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ODM 패스’는 즉시 구축가능한 이종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으로 개인이 아닌 기업과 기관을 타겟으로 한다. 이를 활용하면 미인가 마이데이터 기업이나 별도 플랫폼이 없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에스엔피랩의 솔루션은 엘디피(LDP, Local Differential Privacy) 기술을 활용하기에 개인정

보 수집 없이도 결합 데이터 통계를 추출하거나 로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에스엔피랩의 차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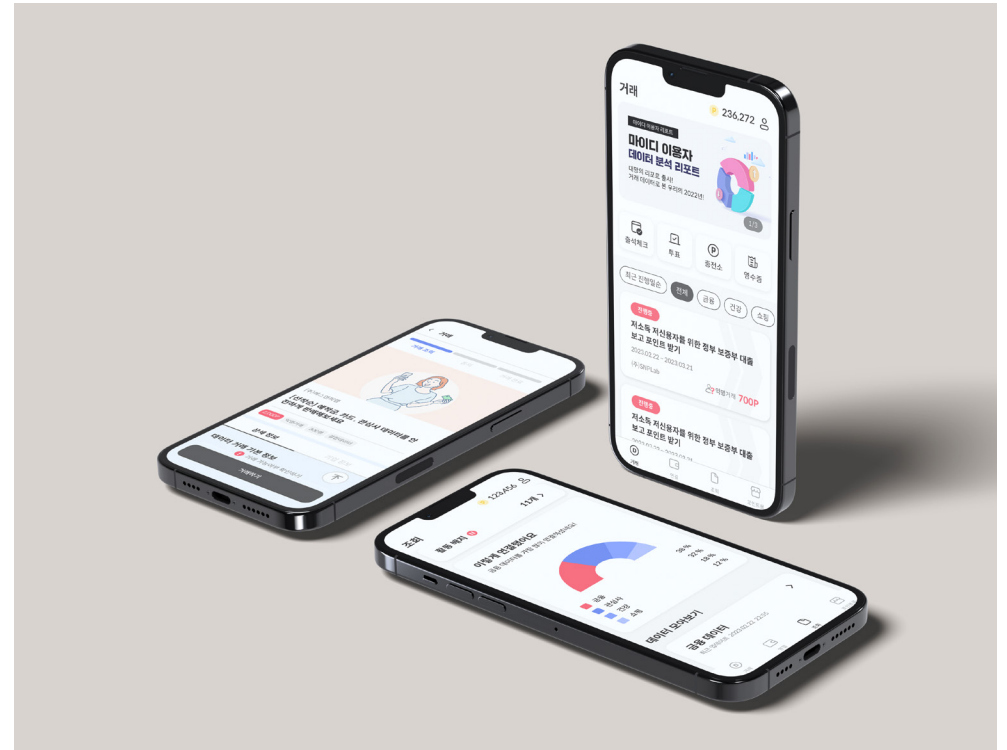
에스엔피랩 솔루션은 보안에 강점을 가진다. 솔루션을 구동하는 동안 데이터 이용과 결합은 제 3의 기관이 아닌 개인 단말에서 이뤄진다. 이에 보안 리스크 측면에서 보안의 위험이 개인 단말로 분산된다. 단말 보안만으로도 개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데이터 결합이 개개인의 단말에서, 소유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에스엔피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에스엔피랩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데이터 주권이 개인의 주권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기업은 '개인 정보가 개인의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서 지속성장 가능한 개인정보 이용 플랫폼 구축이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스엔피랩은 앞으로도 마이디와 ODM 패스를 통해 개인 중심 데이터 세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스엔피랩의 개인데이터 중개 앱 '마이디(my:D)' 모바일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스엔피랩)

AI 기반 가격예측으로
못난이 농산물
거래 돕는 '비굿'

기업
에스앤이컴퍼니

대표자
장세훈



에스앤이컴퍼니

주요 제품(서비스)

AI 가격 예측 기반 못난이 농산물
B2B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B·good)'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bgood.co.kr

에스앤이컴퍼니는 농산물 B2B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B·good)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2020
년 설립했다.

B2B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 이야기

에스앤이컴퍼니의 비굿은 모양이나 크기가 불규칙해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 거래되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되는 과정을 최소화 해 가격은 낮추면서 생산자의 이익을 높이는 균형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굿의 특징 중 하나는 '선도거래'다. 선도거래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높은 가격 예측력을 확보해야 한다. 에스앤이컴퍼니는 15억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모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했고, '양상불 기법'을 고도화해 예측력을 높였다. 그 결과 과일·채소류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의 'D+30일 가격예측' 성능은 평균오차 7~8%대이다.

비굿만의 차별 포인트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B2C 솔루션은 다양하게 등장했다.

잠재적 최대 수요처인 식품 제도가공 분야 기업



에스앤이컴퍼니의 '비굿' 모바일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스앤이컴퍼니)

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은 아직 빈약한 상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경매시장 특성상 구매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B2B 구매시스템의 선주문 방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굿은 핵심 기술을 토대로 기존 농산물 유통의 '선매입' 방식이 아닌 '선주문' 구조로 유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도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수확량 전체를 구매해야 하는 계약 재배와 달리 못난이 등 필요한 스펙, 필요한 물량만 구매할 수 있다.

비굿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굿은 2021년 B2B 서비스 출시 이후 2023년 8월까지 누적 거래량 1600톤, 매출액 30억 원을 각각 넘어섰다. 또한 국내 음료 ODM 1위(딸기), 음료 OEM 1위(사과, 배), 육가공 1위의 기업들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농가의 1%가 넘는 1만 2000여 개 농가와 공급 네트워크도 구축한 상태다.

앞으로는 상품 거래부터 데이터 거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수익모델을 다각화해 글로벌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에는 연매출 1000억 원대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코그콤, 데이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리컬럼'
기업 생산성 높여

기업
코그콤

대표자
정치훈

코그콤은 인공지능(AI) 엔진을 활용해 데이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리컬럼(ReColumn)'을 개
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이룬다.
회사는 2020년 8월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리컬럼(ReColumn)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cogcom.kr

코그콤의 솔루션 '리컬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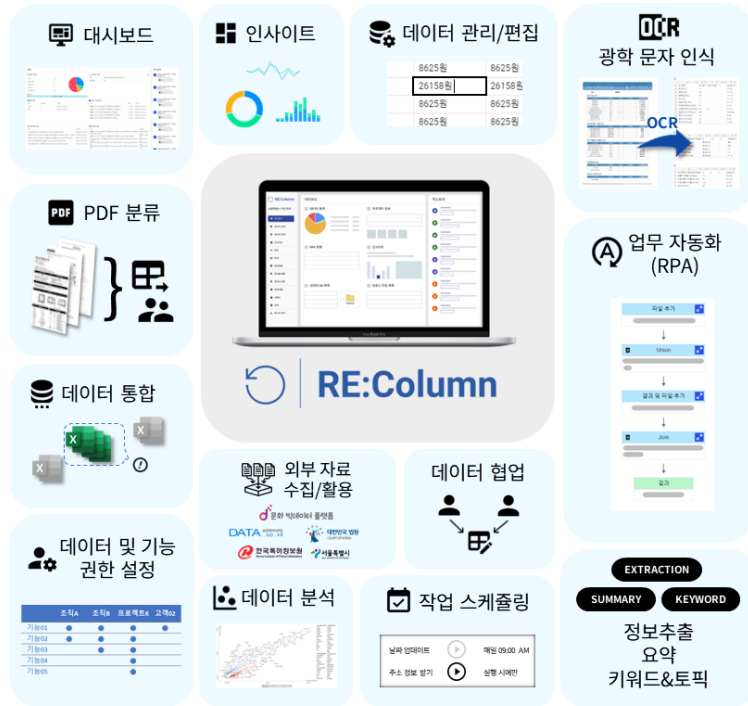
코그콤은 기업용 문서, 데이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리컬럼'을 출시·운영 하고 있다. 리컬럼은 문서/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전처리에 자동화된 모듈 및 커스텀 AI 엔진을 이용해서 손쉬운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를 실천하고 있다.

리컬럼은 AI를 활용한 정보추출, 검색, 문서/데이터 변환, 데이터 통합, 커스텀 업무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내의 데이터 수집, 통합,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작업을 자동화해 업무 효율을 달성한다.

코그콤의 차별 포인트

기업은 ERP, Excel, PDF 등의 문서 및 데이터를 원하는 결과 형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BI(비즈니스 인사이트), SI(시스템 인더그레이션) 솔루션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변화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 즉각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되는 솔루션은 없었다.



코그콤의 데이터 업무 자동화 솔루션 '리컬럼'의 기능들
(사진 제공 : 코그콤)

코그콤은 리컬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기업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고 데이터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복잡한 설치 과정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자동화

(RPA)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한다.

코그콤의 리컬럼 플랫폼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이커머스, 금융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을 모두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겠다는 목표다.

코그콤의 성과 그리고 미래

코그콤은 현재 벤츠코리아에 문서/데이터 통합 업무 자동화, 강원대학교에 논문 정보관리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그콤은 향후 엑셀, PDF 데이터를 LLM과 연동해 자동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활용해 검색과 생성 기술을 발전시키고,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 니즈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피노랩, AI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기업
피노랩

대표자
안성원

피노랩은 인공지능(AI) 기반 생수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워터 소믈리에'를 개발하는 기업이
다. 2021년 6월 설립했고, 시드 투자 5억 원을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워터 소믈리에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pinotlab.com

피노랩의 솔루션 이야기

피노랩의 주요 서비스는 '워터 소믈리에'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 AI 기반의 워터 추천, 데이터 비교 분석 플랫폼, 워터 데이터 가공 등을 수행한다. 현재는 전 세계 60개국, 1000개 이상의 생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맛과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생수 업체와 워터 전문가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피노랩의 차별 포인트

기존에는 생수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시장 데이터, 물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노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물맛 데이터와 고객군, 채널별 선호 데이터를 수집해 타깃 고객군 별로 선호하는 물맛 정보를 추천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 하고 있다. 또 생수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에이전트를 통해 워터 콘텐츠와



피노랩의 워터 소몰리에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피노랩)

스토리텔링 정보를 자동 생성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최고 수준인 60개국 1000개 이상의 생수의 물맛, 수원지, 성분, 판매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외부 컨설팅 및 자체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노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피노랩은 워터 소몰리에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AI가 분석한 생수 데이터를 국내외 주요 수입사 및 식음료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신규 제품 수입, 마케팅 컨설팅 등의 수요가 발생하면 제공한다.

이때 채널별, 고객별로 맞는 브랜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통 정보를 바탕으로 B2B (호텔, 레스토랑) 및 B2C (VIP 고객) 대상으로 생수 유통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워터 소몰리에 2022년에 첫 매출이 발생한 이래 2023년은 전년 대비 3배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생수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향후에는 사용자들이 취향별로 맞춤형 생수 구입, 프리미엄 워터 선호도가 증가하며 생수 시장에서도 다양한 구매 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노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수 데이터와 AI 추천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마케팅 컨설팅, 직접 유통판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영역을 워터에서 음료, 주류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이퍼이지,
10만 개 이상의 3D
가공 데이터로 AI 학습 지원

기업
하이퍼이지

대표자
윤상석

하이퍼이지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3D 데이터를 사고 파는 스토어를 운영한다. 맞춤형 3D 모델링을 제작하는 서비스로 2023년 4월 회사를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3D 데이터 스토어 '파이3D(PIE3D)',
웹기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핀치(Pinch)'

사업 분야
데이터 가공

사이트 주소
hyperez.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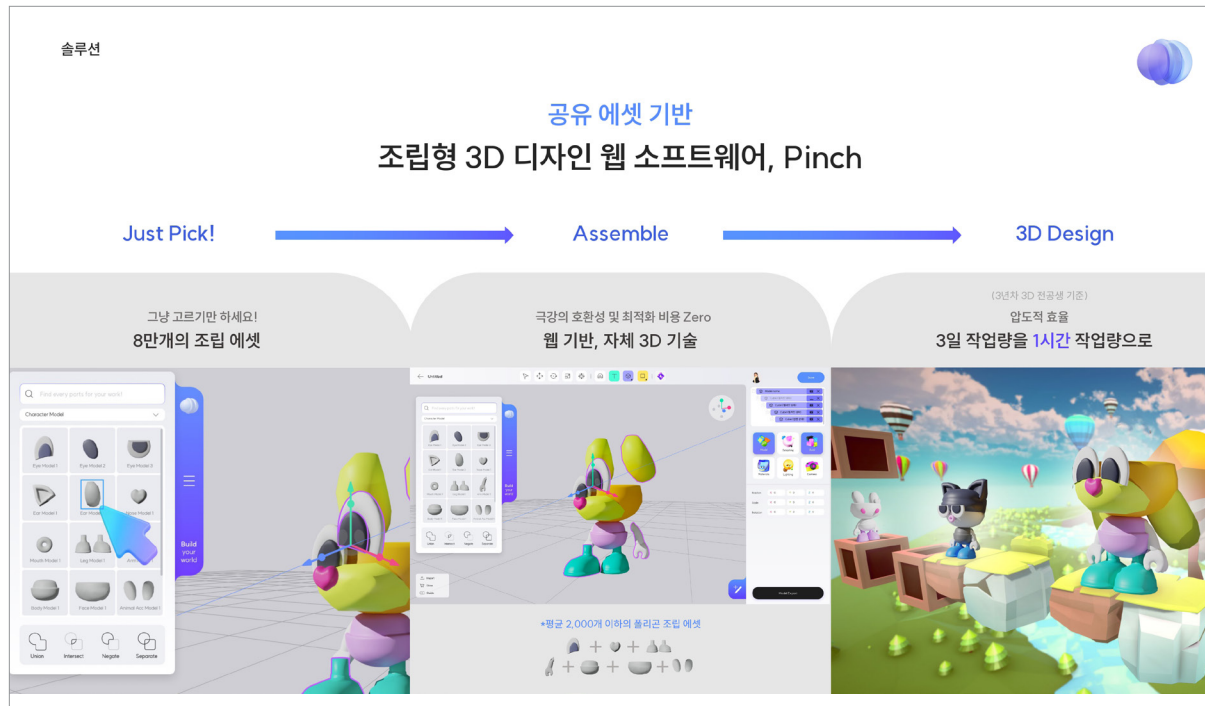
하이퍼이지의 솔루션 이야기

하이퍼이지는 3D 데이터 스토어 '파이3D'와 웹기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핀치'를 운영하고 있다. 파이 3D는 AI 학습에 필요한 3D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스토어로, 디지털 자산으로써 디지털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3D 데이터 공급이 가능하며, 엔터테인먼트&실감형 미디어 아트웍 제작 리소스를 줄인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핀치'는 기업 요청시에 맞춤형 3D 모델링을 제작해준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에셋을 웹상에서 쉽게 조립해 완성할 수 있고, 후 작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핀치는 메타버스 에듀테크 시장에서 다양한 회사와 협업해 3D 디자인 교육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이퍼이지의 차별 포인트

3D 에셋은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확장현실(XR)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3D 에셋이 필요하다. 하이



하이퍼이지의 웹기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핀치'
(사진 제공 : 하이퍼이지)

퍼이지는 많은 양의 에셋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파이3D도 있다.

3D 콘텐츠를 처음 제작하는 입문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하이퍼이지는 10만 개 이상의 3D 가공 데이터, 자체적인 3D 디자인 엔진, 300명 이상의 파트너 3D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3D 데이터 디자인의 높은 퀄리티와 낮은 단가, 많은 양의 데이터가 강점이다.

하이퍼이지의 성과 그리고 미래

하이퍼이지는 현재 3D 관련된 사업인 게임, 미디어 아트,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까지 4가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4가지 산업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 고객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퍼이지는 점점 발전하는 XR 하드웨어 시장에 맞춰 기존의 웹, 모바일, 콘솔을 넘어 XR 하드웨어에 적합한 다양한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핀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북미권을 타깃으로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범용 인공지능



그라운드원,
손쉬운 3D 건물 모델링
솔루션 개발로 각광

기업
그라운드원

대표자
홍윤정

그라운드원은 2022년 11월에 설립된 AI 스타
트업으로, 건물 정보를 활용한 3D 모델링과 지
리적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하는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이미지 기반 BIM 자동생성 서비스
'넥스트럭AI(NexStruct AI)',
빌딩3D 크리에이터 '레보(lev0)'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GRND1.org

이미지 기반 BIM 자동생성 서비스

'넥스트럭AI' 이야기

그라운드원의 '넥스트럭AI(NexStruct AI)'는 AI비전 기술 기반으로 건축물을 분석하고 3차원의 BIM(빌딩 정보 모델링)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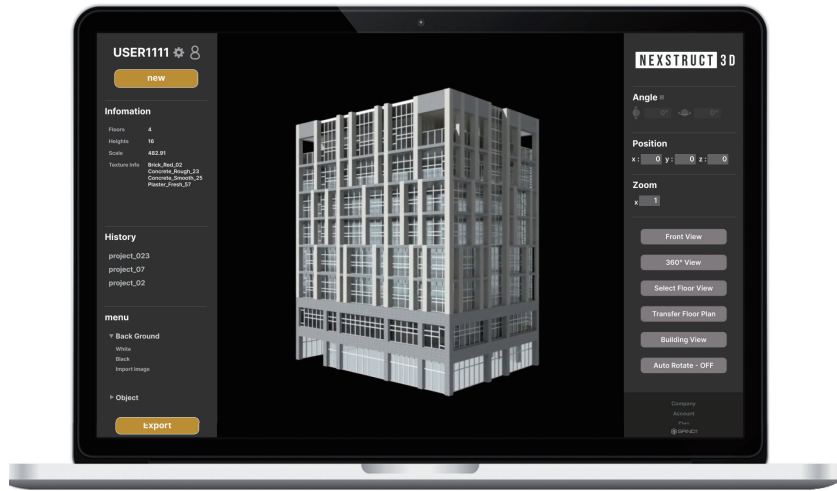
건축 도면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외벽 건축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BIM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빌딩정보 객체 식별은 물론이고, 건물의 층수와 높이 등의 건물 현실에 대응되는 기본 정보를 인식해 3차원의 공간정보와 융합해 디지털 빌딩을 시각화한다.

넥스트럭AI의 차별점

대표적인 BIM 생성 방식은 도면으로부터 기능요소를 더해 저작도구로부터 생성한다. 최근에는 3D스캐너 장비를 통해 생성하기도 한다.

반면 넥스트럭AI는 도면과 장비의 도움없이 기존 건축물의 건물 정보를 건축물 이미지로부터 식별하고 도면 생성 및 시각화한다.

이는 건축물에 특화돼 있는 AI모델이라는 특성을 살



그라운드원의 이미지 기반 BIM 자동생성 솔루션 '넥스트럭시' 실행 화면
(사진 제공 : 그라운드원)

려 공간 분석과 측정 기술이 함께 개발됐기 때문이다.

시각화된 건물 정보는 건설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부터 확대되는 BIM 설계방식이 의무화되면서 설계 작업에 상당한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때 넥스트럭시를 적용하게 되면 BIM 저작 시 초기 공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넥스트럭시는 표준되는 BIM 라이브러리에 따라 자동으로 객체인식해 제공되기에 호환성과 이식성이 높다. 최근 공인인증기관의 시모델 정확성 시험에서 빌딩정보 객체 식별을 99% 이상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그라운드원의 성과와 미래

그라운드원은 건물을 디지털화 하는 데 있어 높은 비용 부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독자적인 기술로 접근했고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 우수특허를 수상했다.

현재 그라운드원은 넥스트럭시를 고객중심 서비스 상용화 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BIM 자동설계 시엔진을 완성해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돕고자 한다.

이외에 쉽고 빠르게 빌딩3D를 생성하는 콘텐츠 서비스인 '레보(lev0)'를 설립일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다.

레보는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만들고자 하는 빌딩을 손쉽게 3D로 제작할 수 있고 로블록스와 같은 창작 플랫폼에 활용되기에 직접 콘텐츠를 보유해 사용할 수 있다. 접근성이 넓은 레보를 통해 초보자도 건축설계 기본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도구로 활용될 전략이다.

네이션에이,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SaaS
'뉴로이드' 개발

기업
네이션에이

대표자
유수연

네이션에이는 2022년 3월에 설립한 스타트업
이다. 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오랜 기간 AI 분야
에서 연구해온 팀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창업 직
후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팀스(TIPS)에 선정되
는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입증 받았다.

Nation A

주요 제품(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SaaS
'뉴로이드(Neuroid)'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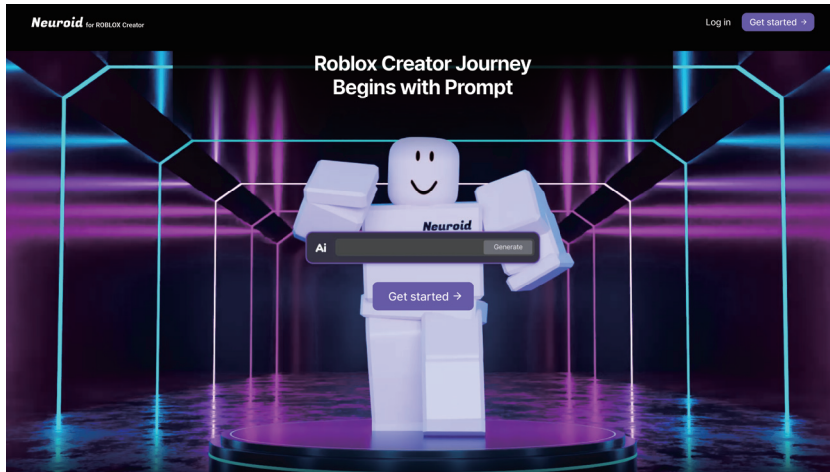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nation-a.com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SaaS '뉴로이드' 이야기

네이션에이가 개발한 '뉴로이드'는 SaaS(서비스
형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
용한 3D/4D 모션 콘텐츠 서비스다. 뉴로이드는
고가의 촬영 장비 없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3D 데
이터를 빠르게 생성하도록 지원한다.

3D 콘텐츠 제작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수작업 비용
은 물론, 모션 캡처 등을 위한 특수장비 사용에 많
은 비용이 든다. 뉴로이드는 3D 콘텐츠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용
자가 텍스트만 입력하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해 서비스 출
시 전부터 글로벌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SaaS '뉴로이드'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네이션에이)

뉴로이드에 적용된 기술

뉴로이드에는 VTM(비디오를 모션으로 변환), TTM(텍스트를 모션으로 변환) 등의 기술이 적용돼 있다. VTM은 영상에서 2D 동작을 추출해 3D로 정확히 전환해주고, TTM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텍스트를 시각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술이다. 특히 TTM은 설명에 따른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고도화 한 3D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해 맥락에 맞는 모션을 완성한다.

이러한 차별점으로, 기존 모델들의 비디오

모션 생성 서비스 대비 뉴로이드는 빠른 속도로 결과를 낼 수 있고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쟁력이 크다. 또한 모든 3D 소프트웨어 도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스탠다드 모델을 지원하며, 코딩이 없이도 빠르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출시 7일 만에 50만 가입자 돌파

네이션에이는 뉴로이드를 2023년 10월 출시했고, 7일 만에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네이션에이는 뉴로이드 론칭 직후, 3D 게임을 개발하는 플랫폼 로블록스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션에이는 10월 중 뉴로이드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연내 사용자 1000만 달성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향후 다양한 고객들에게 적용가능한 3D 콘텐츠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네이션에이의 타깃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넷록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

기업
넷록스

대표자
공석환, 임재홍

2020년 7월 설립된 넷록스는 최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넷록스는 차세대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통해 기존 네트워킹, 보안 및 가시성 인프라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NETLOX

주요 제품(서비스)
네트워킹 솔루션
'록시로드밸런서(LoxiLB)'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netlox.io

네트워킹 솔루션 'LoxiLB' 이야기

LoxiLB는 eBPF(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라는 차세대 커널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서비스의 네트워킹과 보안 기능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참고로 eBPF는 네트워킹, 모니터링 및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LoxiLB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쿠버네티스) 기반 AI 서비스와의 표준 연동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없다. 또한 지능형 텔레메트리 기술을 활용한 AI 서비스의 엔드투엔드 가시성 및 보안성을 확보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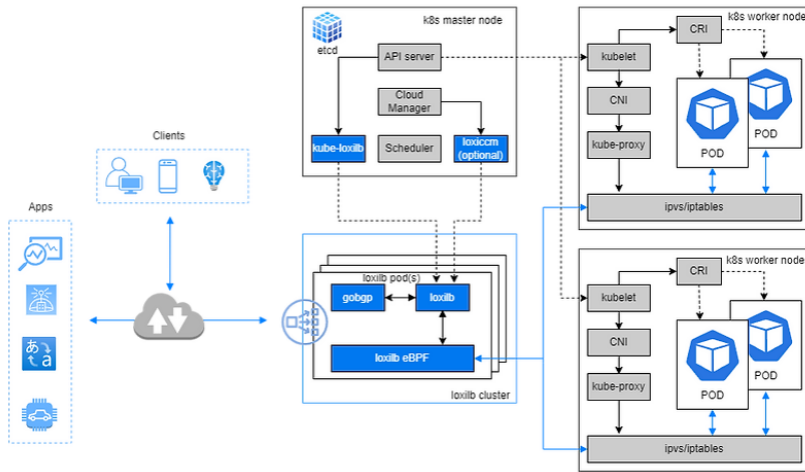
이같은 장점을 통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메타버스와 같은 대용량 초저지연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시성을 제공한다. 또한 퍼블릭·프라이빗·엣지 클라우드를 통한 ML옵스(MLOps) 환경을 제공한다.

What is LoxiLB ?



LoxiLB is an open source hyper-scale software load-balancer for cloud-native workloads. It uses eBPF as its core-engine and is based on Golang.

LoxiLB turns Kubernetes network load balancing into high speed, flexible and programmable LB services. It automates the tasks of external load balancer administration: deployment, bootstrapping, configuration, provisioning, scaling, upgrading, migration, routing, monitoring, and resource management. It is primarily designed to power on-premise, edge and public-cloud Kubernetes apps but it should work equally well as a standalone load-balancer.



넛록스의 네트워킹 솔루션 '룩시로드밸런서(LoxiLB)'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넛록스)

'LoxiLB'의 차별 포인트

LoxiLB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서비스의 네트워킹 및 보안 성능 가속화를 통해 기존 대비 20% 이상의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CPU 자원 사용률 향상을 보여준다. 또한 AI 서비스의 지능형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격 측정) 및 오픈서버 빌리티(Observability, 관측 가능성) 제공(로깅, 메트릭, 트레이싱)을 통한 운영 편의성 증대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LoxiLB는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기 때문에 비용은 무료이다.

넛록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넛록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기업 PoC(개념증명) 종료 후, 채널 확보를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LoxiLB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서비스 인프라 정보(로깅, 트레이싱, 메트릭)를 수집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샌드박스에 등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LoxiLB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솔루션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AWS, NHN, 네이버 등)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발라, AI 기반 뷰티 콘텐츠
추천 및 화장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기업
더발라

대표자
임관령, 이종권

더발라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뷰티 산업을 혁신하고자 영상 이미지처리 AI와 ‘발라(VALLA)’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4월에 설립했다. 누적 19억 원의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발라랩 어플리케이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vall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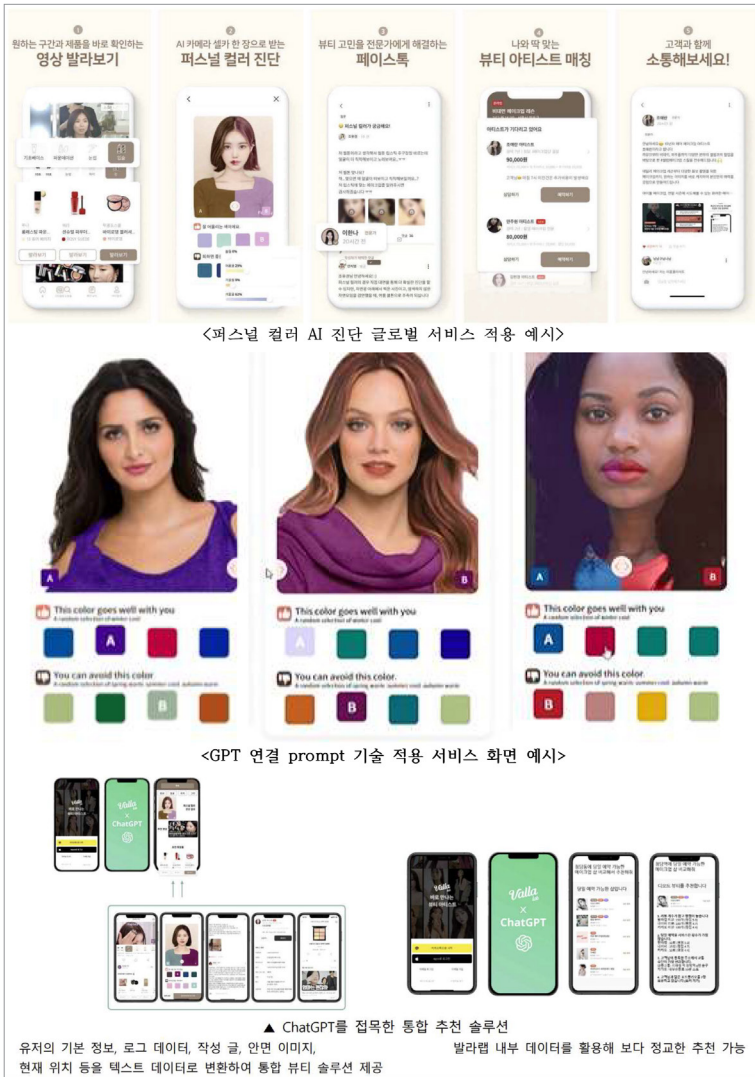
더발라 솔루션 이야기

더발라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뷰티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이다. ‘발라(VALLA)’ 플랫폼과 영상 이미지처리 AI를 개발했다. 더발라의 핵심기능에는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영상 콘텐츠 큐레이션, 나에게 맞는 화장품 큐레이션,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칭, 퍼스널컬러 온라인진단 등이 있다.

더발라가 개발·사용하는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및 분류(화장품과 뷰티 크리에이터 크롤링, 정제기술), 영상 분석(메이크업 영상 자동 판별 인공지능), 영상 추천(뷰티 영상 추천), 얼굴인식 및 분석(얼굴인식과 매칭 인공지능), GPT 연결 프롬프트 AI 등이 있다.

더발라의 차별 포인트

발라랩 서비스의 차별 포인트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통해 메이크업 스킬과 화장품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칭, 전문가 커뮤니티, AI 퍼스널 컬러 시뮬레이터 등도 발라랩만의



더발라 플랫폼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더발라)

차별점이다.

더발라는 앞으로 영상 이미지 기반 얼굴 매칭 시, 화장품 호환성 추천시, 메이크업 시뮬레이터 등 시 등의 기술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더발라는 현재 영상분석 시 기술과 관련해 12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 1개 특허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

더발라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발라랩 서비스 내 'Face & Cloth Color Changer' 기술은 시를 활용해 퍼스널 컬러를 온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술은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월 간활성이용자수(MAU) 11만명으로 양대 앱스토어 뷰티 앱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더발라는 최근 GPT연결 프롬프트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오픈AI 기술과 더발라의 추천 시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활용해 유저와 닮은 뷰티 전문가를 추천하고, 유저와 닮은 다른 유저의 구매 기록 등을 추천한다. 이에 유저에게 개인화된 뷰티 영상과 화장을 추천할 수도 있다.

더발라는 현재 20만명의 유명인 안면 이미지를 통해 얼굴 특징을 세분화하고, 발라랩 유저의 얼굴을 GPT 프롬프트에 적합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맨드언맨드,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해
원하는 검색 찾아낸다”

기업
맨드언맨드

대표자
최홍섭

맨드언맨드는 멀티모달, 멀티 태스크로 범용적
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5월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VIM(Video Intelligence Model)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unmd.ai

맨드언맨드의 솔루션 'VIM' 이야기

맨드언맨드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인 'VIM(Video Intelligence Model)' 'VIM(Video Intelligence Model)' 을 개발했다.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한 후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해 사용자가 결과를 텍스트 생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돕는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에서 토끼 머리띠를 한 여자 아이가 나오는 장면만 찾아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CCTV 영상 중에서 원하는 장면을 찾아주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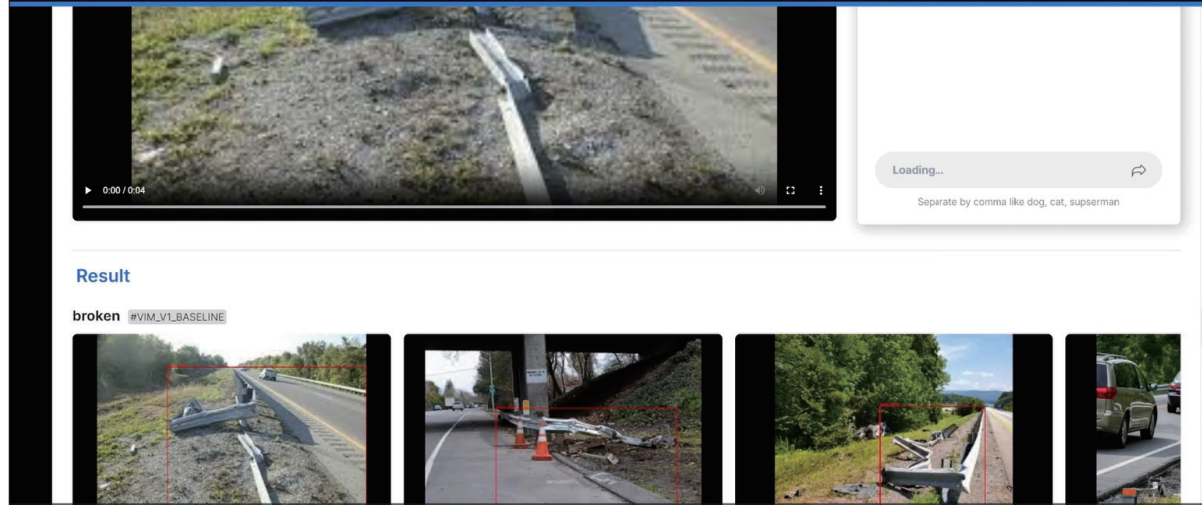
VIM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와 같은 검색 기능 외에도, 주어진 영상·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맨드언맨드의 차별 포인트

맨드언맨드는 영상 입력을 수십배 압축할 수 있는 TI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보유한 솔루션 VIM으로 유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영상 분석 기술들은 대부분 학습한 특정 도메인과 과업(task)으로만 작동하는 '특정 과업(task

With the addition of just a few hundred data samples, the performance is expected to improve significantly.



멀티모달 기초모델인 'VIM'을 영상에 적용한 화면
(사진 제공 : 맨드언맨드)

specific)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저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VIM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과업이든 고객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특정 색깔이나 모양, 인상착의의 사람이나 오브젝트 검색

▲방송사, 개인방송 편집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에서 원하는 장면을 검색(검색 시간 단축)

▲오브젝트 뿐 아니라 영상의 상황 전체에 대한 요약 ▲질문 기능을 통해 영상에서 원하는 고품질의 정보 추출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시간 단축을 돕는다. 특히 질문 기능을 활용하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사람들 중 특정 브랜드 셔츠 입은 사람 숫자 파악' 등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맨드언맨드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맨드언맨드 VIM 용도는 CCTV 영상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다. 맨드언맨드는 VIM에 눈으로 보고 이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상식을 학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범용적인 기초모델을 추후 자율주행, 범용 서비스 로봇 제어에 활용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개념을 학습시키고, 점차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의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 질의응답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모빅랩, 초음파 음향데이터로
설비 고장 예측

기업
모빅랩

대표자
이원근

2017년 설립된 모빅랩은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초음파 대역의 음향신호를 활용해 인공지능(AI)으로 설비의 고장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빅랩은 초음파 음향데이터를 가장 넓은 범위까지 수집할 수 있는 AI 옛지 디바이스와 설비 이상 작동 감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초음파 음향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고장진단 서비스 '왓치뱃(WhatchBat)'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moviclab.com

초음파 음향데이터 기반 설비 고장진단 서비스 '왓치뱃' 이야기

모빅랩의 '왓치뱃'은 AI 기반으로 초음파 음향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고장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왓치뱃을 활용해 설비 이상 신호 감지, 설비 이상 원인 판별을 할 수 있고, 잔여 수명 예측 알고리즘을 마련할 수 있다.

왓치뱃은 초음파 음향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설비의 이상 발생 징후인 소음과 진동 중 초음파 영역대의 음향 신호를 분석해 설비의 이상을 판단한다. 또 음향 신호 처리 전문기술 중 Non-Target 신호를 제거한 다음 비지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설비의 이상/정상 작동을 감지한다.

왓치뱃의 차별 포인트

고장진단 서비스가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고가의 진동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왓치뱃은 낮은 가격의 진동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다. 또한 비접촉



초음파 음향데이터를 활용한 설비 고장진단 서비스 '왓치벳'의 모니터링 이미지
(사진 제공 : 모빅랩)

식으로 센서 설치가 가능해 다양한 설비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왓치벳은 AI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ML옵스(MLOps) 도입으로 누구나 쉽게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커터 설비의 커터날 마모율 파악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측정해 베어링의 이상 작동 감지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측정해 베어링의 이상 작동을 감지 ▲

진공 펌프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비접촉 초음파 센서를 통해 측정해 이상 작동을 감지 ▲초음파 센서 활용을 통한 초음파 용접기의 이상 작동을 감지해 품질 불량률 감소 등이다.

모빅랩의 성과 그리고 미래

모빅랩은 202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우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빅랩은 액추에이터 작동 중 발생하는 초음파 측정을 통해 설비 이상을 예측하는 솔루션, 운동화 품질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AI 영상처리 솔루션을 구축한 성과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2023년 10월, 서울 AI 허브 입주에 선정되면서 기존 인천에 위치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양재로 이전했다. 모빅랩은 AI 양재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모빅랩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공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설비에 대한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검증 확장을 통해 제조 분야 시장외에도 향후 안전 분야, 자동차 진단, 가전제품 진단 등 B2C 시장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바비디, 기업 분석 돕는
금융 AI 어시스턴트 제공

기업
바비디

대표자
배수현



주요 제품(서비스)
기업분석 AI (BullGPT)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bobidi.com

바비디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을 구축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인식 모델에 비해 모델의 초경량화를 이뤄, 하드웨어 및 환경의 제약을 없애고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7월 설립해 7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바비디의 솔루션 이야기

바비디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무제표 포함 각종 기업 공시 자료를 모아 기업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AI 어시스턴트 'BullGPT'를 제공하고 있다.

BullGPT는 기업의 재무제표 뿐 아니라, 기업의 수주현황, 특수관계자, 우발 부채,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 같은 다양한 기업 공시 내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취합해주거나 재가공해주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해 주고, 필요할 경우 분석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해준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사나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종사자가 수작업으로 해왔던 업무를 자동화해 이들이 더욱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다.



AI 모델 테스트 이미지
(사진 제공 : 바비디)

바비디의 차별 포인트

바비디의 BullGPT는 생성형 AI 뿐 아니라 크롤링 및 검색 기술을 결합해, 자료를 수집하고 재가공하며 필요한 분석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생산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미 공개된 비정형 데이터(공시자료, 홈페이지

등)를 기반으로 하고, 기업 내부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걱정도 없다. 예를 들어 해외에 위치한 기업의 공장에서 관리비가 증가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전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식이다.

바비디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바비디는 현재 기업공시자료에 특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만,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 재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바비디의 서비스는 숫자와 표로 표시된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분석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에 세무 정책을 빠르게 읽고 기업의 절세 방안을 마련한다던가, 기업공시자료에 더해 통계청 데이터, 관련 뉴스, 미국 기업 공시자료 (EDGAR)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투자 결정을 도와주는 등의 기능 구현에 적합하다.

향후 금융 기업의 다양한 고유 데이터, 내부 정책, 결제 정보 등과 연계해 금융 기업의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바비디는 기술을 API로 구현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금융 기업의 내부 서비스에 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많은 금융 기업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내부 서비스를 크게 바꾸지 않고 생성형 AI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마인드, 타노SQL
‘혁신적인 DB시스템으로
비전문가도 AI 모델 구축’

기업
스마트마인드

대표자
이상수

스마트마인드는 2018년 설립했다. 2023년 10월 기준 프리A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비정형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화해 SQL만으로 빅데이터 처리에서부터 AI 모델링·운영·배포까지 가능한 타노SQL(ThanoSQL)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ThanoSQL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thanosql.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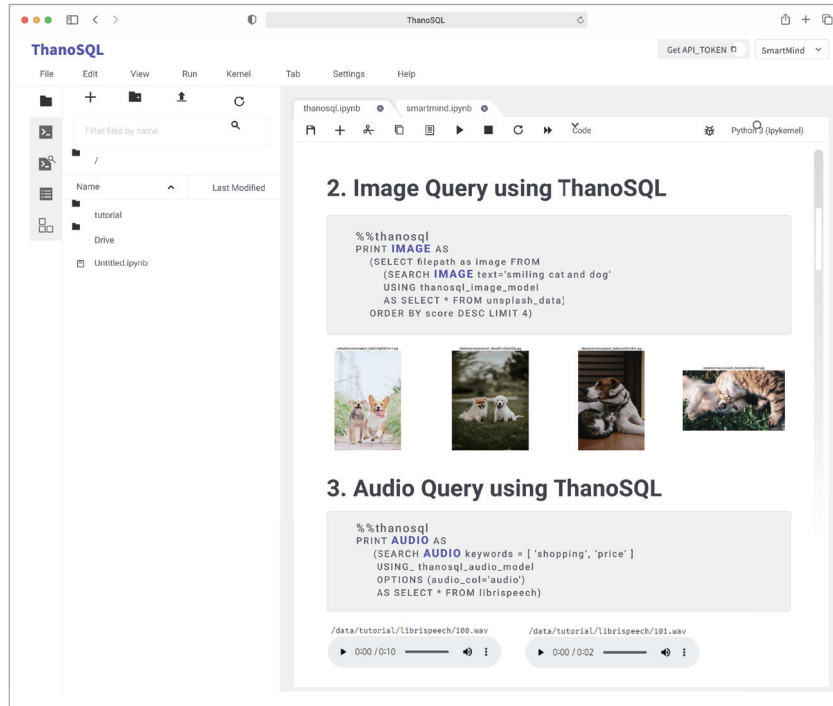
스마트마인드의 솔루션 이야기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AI모델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성능의 AI 솔루션을 마치 엑셀을 사용하는 것같이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스마트마인드는 AI를 현업에 손쉽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타노SQL(ThanoSQL)을 내놨다.

스마트마인드의 차별 포인트

스마트마인드의 타노SQL은 비정형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와 같이 손쉽게 분석해 AI 모델링에서부터 현업 배포까지 가능한 혁신적인 AI 플랫폼이다.

비정형의 빅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프레임 워크와 다양한 언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1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현실



스마트마인드의 AI 모델링 플랫폼 'ThanoSQL' 메인 화면
(사진 제공 : 스마트마인드)

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데이터 형식마다 별개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시스템간 단절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노SQL은 특히 기술인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IoT

등)를 벡터화(정형화)해 정형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RDB(Relational DataBase)에 저장한다. 이를 통해 타노SQL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다. SQL만으로도 AI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비전문가도 AI 모델을 손쉽게 구축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 API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도 간단하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마인드의 성과 그리고 미래

타노SQL은 AI 솔루션간 데이터 단절 현상을 제거해 유기적인 연결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한 확장성을 특징으로 업종 및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점으로 타노SQL은 제조, 제강, 해운, 에너지, 병원, 헬스케어, 화장품, 의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타노SQL은 삼성디스플레이와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삼천리 도시가스와 신한카드도 타노SQL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마인드는 기술력을 검증받은 만큼, 더욱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해 매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외형 성장과 더불어 타노SQL을 고도화해 질적 성장도 추진하고자 한다.

스트라의 '리스픽' 앱
"외국인도 K팝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기업
스트라

대표자
김용호



주요 제품(서비스)
외국인 대상 K팝 노래 앱
'리스픽(Lyspeak)'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lyspe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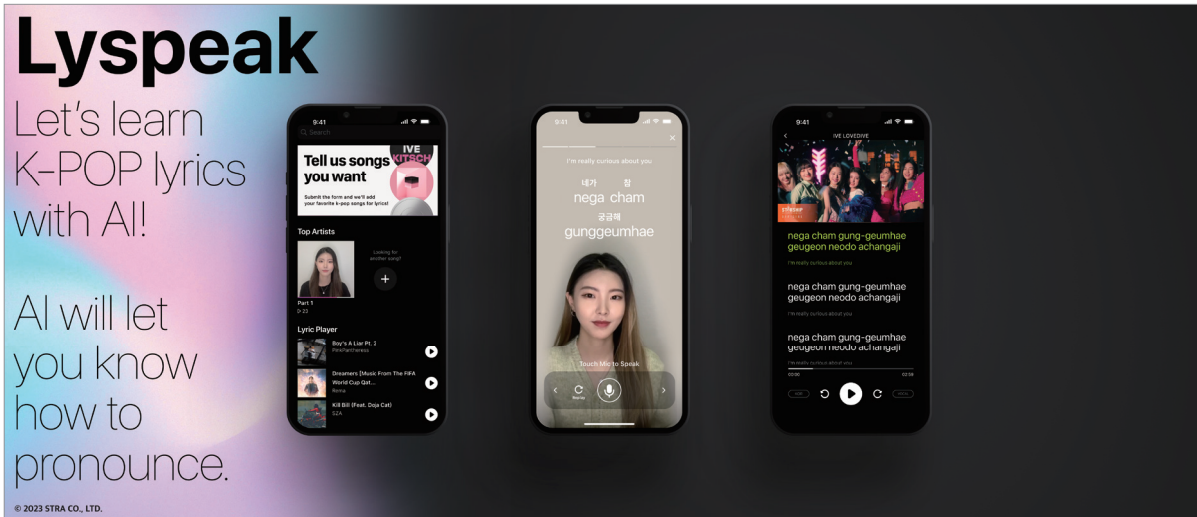
스트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K팝의 노래 가사를 알파벳으로 변환해주는 앱 개발 기업으로, 2021년 5월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누적 13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외국인 대상 K팝 노래 앱 '리스픽' 이야기

스트라의 '리스픽(Lyspeak)'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팝 노래 앱이다. 리스픽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어려운 해외 K팝 팬들에게 로마자 형태(한국말을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 표기)로 표기해준다. 또한 전문 K팝 트레이너가 영어로 한 소절씩 설명해주고 유저들이 음성 인식 기술로 직접 불러보며 연습할 수 있는 '레슨'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게임처럼 쉽고 재밌게 K팝 노래를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

스트라는 'AI 음악 채보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어떤 곡이든 MP3 파일을 분석해 코드, 멜로디, 마디, BPM 등을 감지해 디지털 악보를 그릴 수 있는 미디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모 교육 업체와 최근 공급 계약을 맺어 동요의 가창 멜로디 악보를 그려주는 솔루션을 디지털 음악 교과서 제작 자동화에 사용 중이며 대구시 R&D 사업을 통해 2023년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악기 별로 각각 분리해 미디 파일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외국인 대상 K팝 노래 앱 '리스픽' 모바일 앱 화면
(사진 제공 : 스트라)

리스픽, 출시 4개월 만에 10만 다운로드 기록

리스픽의 경우 한국어 교육 앱과 노래방 앱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 펀러닝(Fun learning)이 가능한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 출시한 리스픽은 4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을 돌파하고, 월 이용자가 3.5만명에 달했다. 또 90%가 해외 10대 여학생이며 인도, 브라질, 터키, 동남아,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이용 중이다.

AI 음악 채보 기술은 에듀테크 업계에서 악보 제작 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에 태진, 금영 등 반주 제작업체

또는 음감이 부족해 귀 청음을 통해 연주를 익혀온 수많은 음악 취미 애호가 및 뮤지션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라의 성과와 미래

스트라는 2023년 9월 중기부 팁스(TIPS, 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돼 '다국어 가사 교육 시스템 개발'을 2년간 연구 과제로 진행하게 됐다. 해당 기술은 어떤 곡이든 시가 분석해 가사를 추출하고 또 여러 나라 사용자가 따라할 수 있게 소리 및 의미 번역을 해 주는 기술로, 스트라의 리스픽 고도화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해 현재 약 2000곡 수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 제약을 무제한 접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 여러 국가로 서비스를 확산하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2024년부터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등 K팝 인기 국가들의 현지 언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스트라는 AI 음악 분석 기술을 상용화해 온 스타트업으로, 음악의 필수 요소인 멜로디, 코드, 박자, 반주, 가사 등을 모두 AI를 통해 자동화 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절대 음감 시가 그간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사보, 채보 수고를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음악 제작 과정 자체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쓰리알이노베이션,
AI기술로 청소년의
'마음 건강·학습 건강'
챙긴다

기업
쓰리알이노베이션

대표자
조광수

쓰리알이노베이션은 디지털 표현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청소년 전문 주의력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포커스팡(focuspang) ai'와 '닥터 사이먼'이 있다. 회사는 2021년 9월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focuspang ai, 닥터 사이먼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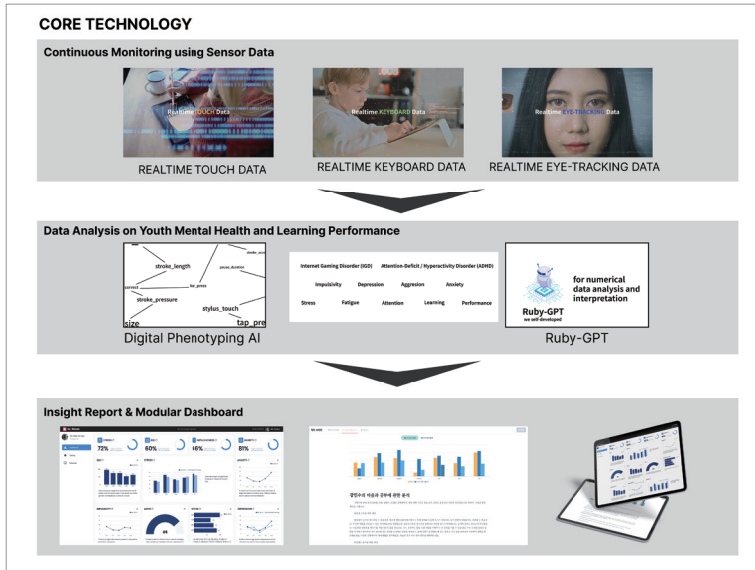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focuspang.com, drsimon.ai

쓰리알이노베이션의 솔루션 이야기

'닥터 사이먼'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디지털 로그 데이터만으로 주의력, 학습, 정신건강(인터넷 게임장애, 충동, 우울, 공격, 불안, ADHD)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태 맞춤형으로 케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핵심 기술은 디지털 페노타이핑(Digital-Phenotyping)과 Ruby-GPT이다. 디지털 페노타이핑은 일상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표현형 혹은 페노타이핑 인공지능이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청소년이 하는 터치, 키보딩, 스타일러스 펜쓰기, 눈의 움직임 등 기기 사용 행동에서 표현되는 주의집중력, 학습, 정신 건강을 포착하는 AI 기술이다. Ruby-GPT는 챗GPT의 단점인 수치 분석 및 해석 문제를 극복하는 자체 개발 기술로, 디지털 표현형 데이터 분석결과를 피드백하고, 정신건강 위험 상태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된다.

디지털 페노타이핑과 Ruby-GPT를 통해 나온 분석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자기조절할



쓰리알이노베이션 '닥터 사이먼'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쓰리알이노베이션)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에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집중력, 학습,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제안을 제공한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차별 포인트

닥터 사이먼은 세계 최초 디지털 표현형 AI 기반 어린이, 청소년 전문 상용 정신건강 서비스다. 스마트 기기의 센서데

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표현형 AI로 일상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예측 및 예후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질문에 응답하는 침묵적 방식, 1대1 면담식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포인트로, 기존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사 및 상담사의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포함될 수 있는 질문지 방식에 비해 센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양질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성과 그리고 미래

포커스팡 ai는 서울시 259개 학교에서 약 8만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학급에서는 화면공유 서비스로 선생님과 학생간 화면을 공유하고, 퀴즈팡을 이용해 수업 내에서 퀴즈 배틀로 학생들의 학습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은 포커스팡 AI 서비스 내에 닥터 사이먼 서비스를 포함해 학교에서 포커스팡 AI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은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중독 등 각종 마음 건강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돌보는 부모, 교사, 상담사, 정신과 의사의 케어 품질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정신과학, 인지과학 및 학습과학을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마음 건강 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향상하고자 한다.

어크로스비, 이커머스 기업
해외 진출 돕는
물류 서비스 운영

기업
어크로스비

대표자
이성우

어크로스비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딥러닝 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으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0년 5월 설립했고, 누적 3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acrossB
E-COMMERCE ORCHESTRATOR

주요 제품(서비스)
워크패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crossb.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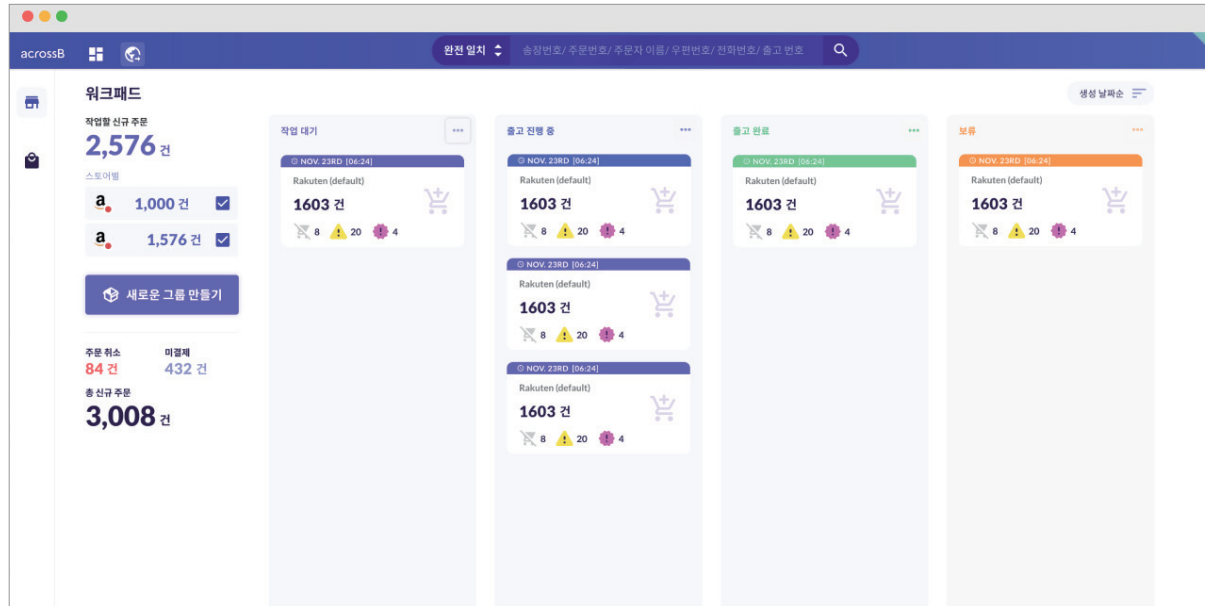
어크로스비의 솔루션 이야기

어크로스비는 프로세스 자동화 및 재고 최적화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 기업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전체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멀티 판매채널의 주문과 재고를 통합 관리하고, 화물과 지역 특성에 맞게 다변화된 최적의 배송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한다. 현지 반품과 물류 관련 고객센터(CS)를 처리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배송-비용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어크로스비의 차별 포인트

기존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송비용이 높고, 수차례 엑셀과 문서작업으로 과다한 운영공수가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통관, CS, 반품 처리와 판매수요 예측 및 적정재고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어크로스비는 화물조건과 지역에 맞춰 운



어크로스비의 이커머스 물류 플랫폼 '워크패드' 실행 화면
(사진 제공 : 어크로스비)

송 수단, 배송사, 창고를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해 비용을 절감한다. 룰 엔진(Rule Engine) 및 API 연계를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요예측 및 재고 최적화를 이루고, 비용 낭비와 판매기회 실기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송지역별 다양한 글로벌 운송 수단 활용▲해외 창고 연결로 글로벌 재고 전진 배치▲전체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프로모션 등 수요 예측▲적정 재고, 판매속도, 생산리드 타임을 분석해 생산발주시기 추천 등이 있다.

어크로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어크로스비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산업은행 넥스트윈,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펍권, 엔비디아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엔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2021년 3월에 서울 AI 허브 입주에 선정되면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연구지원, 네트워킹을 활용해 머신러닝 모델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크림, 코스알엑스, 클리오, 네이처 리퍼블릭 등 주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미국, 일본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동아시아 중심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블록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에임퓨처, AI처리에 필수인
NPU 가속·구동 솔루션 개발

기업
에임퓨처

대표자
김창수

에임퓨처는 인공지능(AI) 처리에 필수적인 NPU(신경망처리장치) 가속기 하드웨어를 IP(설계자산)의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2020년 10월 회사를 설립했다. 82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에임퓨처의 솔루션 이야기

에임퓨처는 NPU 가속기 하드웨어인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NeuroMosAlc Process)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인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NeuroMosAlc SUIdio)'를 제공한다. 이 솔루션들은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딥러닝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신경망처리장치로 불리는 NPU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학습, 추론을 담당하며 인공지능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다. CPU나 GPU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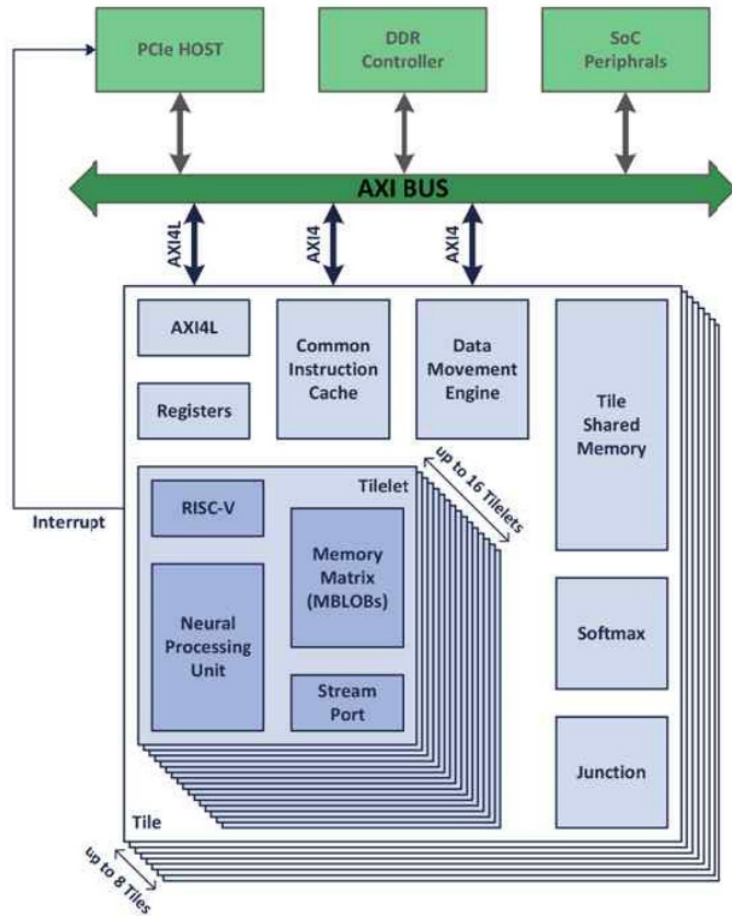
에임퓨처의 뉴로모자이크 하드웨어 프로세서로는 NMP-300, NMP-500, NMP-700 시리즈 등이 있다. 에임퓨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저성능 디바이스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엣지 인프라까지 최종 애플리케이션단의 성능, 소비 전력, 비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자산을 제공한다.



주요 제품(서비스)
NPU 가속기 하드웨어
'뉴로모자이크(Neuro MosAlc)
프로세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imfuture.ai



에임퓨처의 뉴로모자이크 하드웨어 프로세서 NMP 아키텍처
(사진 제공 : 에임퓨처)

에임퓨처의 차별 포인트

에임퓨처의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는 카페(Caffe), 텐서플로우(TensorFlow), 파이토치(PyTorch), 케라스(Keras)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정확도, 성능, 메모리 대역폭과 런타임과 같은 프로파일링 정보를 제공한다. 훈련된 다양한 모델을 수행 대상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RISC-V 바이너리로 변환해 준다.

에임퓨처의 솔루션은 사용자의 다양한 성능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업무를 동적으로 처리하는 유연성, 최적의 하드웨어 조합을 지원하는 구성성도 갖췄다.

에임퓨처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에임퓨처의 솔루션은 LG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칩 형태로 장착돼, 객체인식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4K TV에서 슈퍼 레졸루션(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이라는 알고리즘을 수행해 화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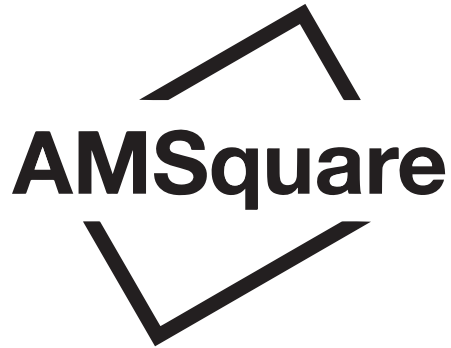
에임퓨처는 기존의 NPU 보다 더 높은 성능을 더 낮은 전력소모 및 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GAIA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에 기반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내에 하드웨어 IP 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지원하는 SDK는 2024년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MPW 칩 제작을 통해 고성능을 요하는 로봇틱스, AR/VR,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에 활용될 NPU IP를 실리콘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삼성 또는 TSMC 7나노미터(nm) 이상의 하이엔드 공정을 통해 32 TOPS 정도의 성능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에이엠스퀘어,
AI 모델 성능 유지·관리 돕는
솔루션 제공

기업
에이엠스퀘어

대표자
황형주



주요 제품(서비스)
ML 성능 관리 솔루션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msquare.ai

에이엠스퀘어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9년 3월 설립했다.

에이엠스퀘어 솔루션 이야기

에이엠스퀘어는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을 추정하고 파이프라인 건전성을 추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AI 모델의 성능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의 파이프라인 건전성을 추정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의 어느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저하 원인을 진단한다. 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이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에이엠스퀘어의 차별 포인트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MLOps(ML옵스, 머신러닝운영) 솔루션은 고가에, 사전 지식을 많이 필요로 했다. 에이엠스퀘어의 솔루션은 ML옵스 솔루션에 비해 콤팩트한 사이즈로, 사용자가 인공지능 모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고 있다.

또한 에이엠스퀘어의 솔루션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가 학습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UI를 가지고 있다.



에이엠스퀘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에이엠스퀘어의 솔루션은 일부 철강제조기업의 소둔산세공정에서 운전자 설정값 추천 모델에 프로토타입으로 적용됐다.

에이엠스퀘어의 솔루션은 인공지능 모델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와 이미 구축된 모델을 관리하는 경우 모두 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반영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델 관리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향후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반영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델 관리를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에이엠스퀘어의 ML 성능 관리 솔루션 구현 이미지
(사진 제공 : 에이엠스퀘어)

예스나우, AI로 안성맞춤
사이즈 추천하고 재고 줄여

기업
예스나우

대표자
황예슬

예스나우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알맞은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핏파인더'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5월 회사를 설립
했으며,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핏파인더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yesnowinc.io

딱 맞는 사이즈 추천해주는 '핏파인더'

예스나우의 주요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알맞은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핏파인더' ▲판매자에게 구매 데이터 통계를 제공해주는 '핏디스커버리' ▲상품 이미지를 올리면 상품 속을 추출해주는 '핏파인더 태거' 등이 있다.

예스나우의 대표적인 서비스 핏파인더는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이미지 및 다양한 정보(나이, 키, 몸무게, 신체 치수 등)를 바탕으로 AI가 적정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핏파인더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상세 프로필을 확보하기 위해 AI 엔진을 개발할 때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결과 고객 스타일과 사이즈의 매칭 정확도가 높다.

서비스 초기에는 보세 의류 판매사를 중심으로 판매했으며 이후 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 이용 성과를 쌓으면서 패션 대기업으로 판매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핏파인더,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장

예스나우는 현재 프리미엄 브랜드 재고를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앱



예스나우의 AI 기반 사이즈 추천 서비스 '핏파인더'
(사진 제공 : 예스나우)

을 제작하고 있다. 이 앱은 수많은 상품을 모두 검색해볼 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적의 프리미엄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재고품을 상품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 앱에서는 모든 개인이 각자 다른 상품을 추천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 관점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프리미엄 브랜드 추천 앱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예스나우의 지금, 그리고 미래

예스나우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해 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립/소각되는 악성 재고를 아울렛 시장으로 끌어와 패션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악성 재고 판매는 더한섬닷컴, 블랙야크 등의 브랜드와 PoC(개념 증명)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차별점은 핏파인더 수요처와 악성 재고 조달처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패션 기업에게 핏파인더를 판매하면 같은 기업에게 악성 재고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스나우는 설립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을 꾸준히 성장시켰다. 2022년 매출은 약 2억 원이며, 2023년 약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패션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위챗을 이용한 중국 시장 진출, 라인을 이용한 일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위챗, 라인 등 판매 유통 채널의 피드형 커머스화를 통해 고객 행동, 상품, 물류예측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오투오, 메타데이터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
AI 추천 시스템 제공

기업
오투오

대표자
안성민



주요 제품(서비스)
메타지식 기반 AI 추천 시스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o2o.kr

오투오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7년 8월 회사를 설립했고 1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오투오의 메타지식 기반 AI 추천 시스템 이야기

오투오는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반영된 콘텐츠를 추천하고 검색, 큐레이션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투오는 사용자의 콘텐츠 시청 기록이나 선호도를 분석해 사용자별 취향 분석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생성 큐레이션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오투오는 크롤링 범위를 확장하고, 신규 콘텐츠의 경우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 텍스트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KeyBERT' 방식에 LLM 기술을 추가해 정확도 높은 메타 지식을 추출하고 분류한다.

오투오는 메타지식 구축모델을 도서, 음반, 광고, 홈쇼핑 등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도메인에 맞춰 메타지식을 구축하고, 사용자 취향에 맞는 분석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투오의 메타지식 기반 AI 추천 시스템 생성 과정
(사진 제공 : 오투오)

오투오의 차별 포인트

오투오의 서비스는 '메타지식 추출 시스템'을 통해 메타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적화된 프롬프트와 LLM을 토대로 다양한 메타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자동화된 메타지식 추출 시스템을 통해 트렌드 및 고객 의견 최신화에도 용이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 이슈와 콘텐츠의 유사성을 계산해 추천 카테고리 구성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

또 오투오는 자사가 특허를 낸 빅데이터 기반의 유저 취향 정보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에 저작권,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오투오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오투오는 현재 메타데이터 추출 기반 AI 추천 시스템을 셋톱박스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미디어 데이터의 메타지식을 활용한 큐레이션 서비스'로 기술검증(PoC)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T의 핵심 사업인 미디어 분야의 파트너사로 선정돼 2023년 9월 IBC 전시회에서 KT 파트너사로 자사 솔루션을 전시했다.

오투오는 향후 메타지식 구축모델을 도서, 음반, 광고, 홈쇼핑 등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해 사용자 취향 분석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딥러닝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인절미'

기업
인절미

대표자
문지명

인절미는 딥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2020년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딥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injewelm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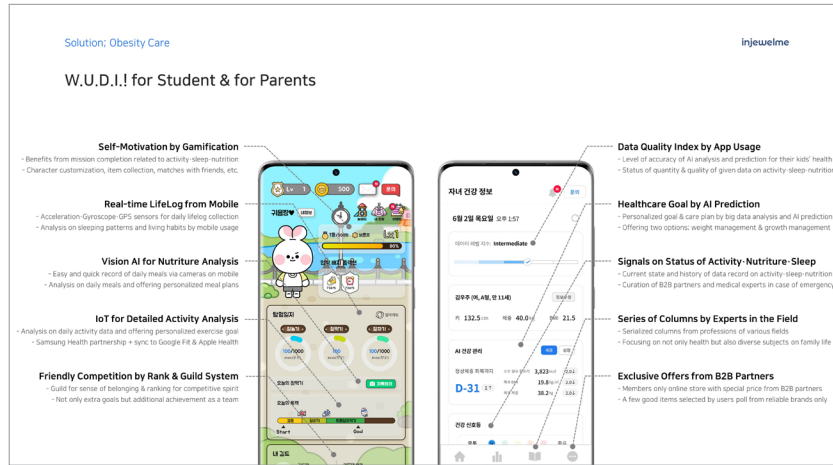
인절미의 딥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이야기

인절미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우주두잇'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출시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 맞춤형 건강 관리를 게임처럼 제공하고, 맞춤형 콘텐츠와 리워드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습관을 일상에서 키워준다. 또 학부모 및 커뮤니티를 연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비만관리' 서비스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정신관리'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시범사업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인절미 '우주두잇'의 차별 포인트

우주두잇의 차별 포인트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동기부여와 지속사용성이다. 전문의와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실제 치료기법을 게임화했다는 점과 AI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방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딥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 '우주두잇' 모바일 서비스 화면
(사진 제공 : 인절미)

해외에서는 딥러닝 기반 예측기술 활용에 대한 2편의 국제 논문을 제출했고, 국제 행사인 싱가포르 CHI Innovate 2023 및 Big Data & AI World 2023에 초청받아 참여했다. 현재는 국영 대기업 NDA를 체결하고 시범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절미는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비만관리 서비스와 정신관리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디지털 치료제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안구관리, 피부관리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5년 내 아시아 최대의 아동청소년 전문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파트너사 데이터를 공유해 O2O(온·오프라인 연계) 종합관리를 실현한다.

인절미의 성과 그리고 미래

인절미는 국내에서 비만관리 실증연구를 총 4회 진행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남도교육청의 도서벽지 지원사업 서비스, 제주도 아동비만관리 사업 서비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국 50여 개 초등학교, 3000명 이상 사용자가 비만관리 서비스를 사용(2023년 10월 기준) 중이다.

웍스비, O.B.C엔진으로
구인-구직자 일자리 매칭
만족도 높여

기업
웍스비

대표자
김현호

웍스비는 OBC(최적 매칭 검색엔진)를 활용해
최적의 단시간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2월 설립했으며 누적 12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현재는 프리A를 준비
하고 있다.

WorksBe.

주요 제품(서비스)
OBC(최적 매칭 검색엔진) 적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더벌자'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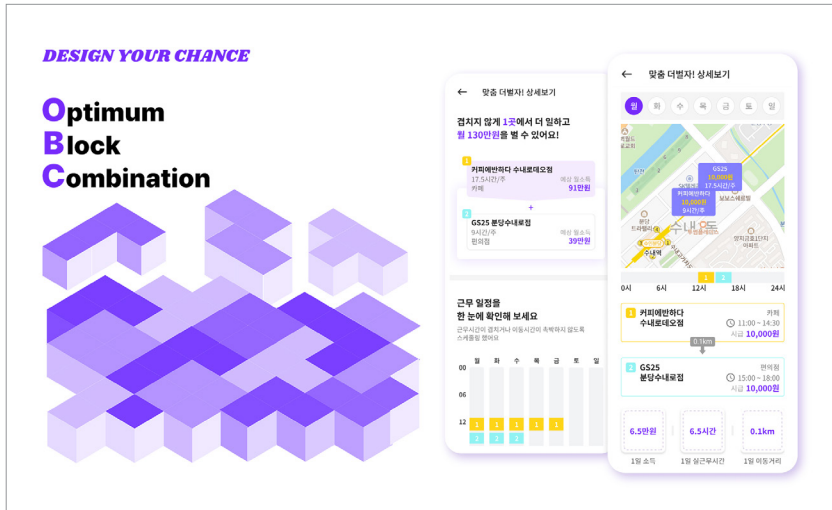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worksbe.com

웍스비의 솔루션 이야기

웍스비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최적 조합 매칭엔진, O.B.C(Optimum Block Combination)다. O.B.C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수량, 금액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조합해 찾아내고, 예측된 각자의 선호에 따라 개인화된 최적의 매칭 결과를 제공한다.

웍스비는 단시간 일자리 매칭 시장에 O.B.C 엔진을 우선 적용한 플랫폼, '더벌자'를 서비스 하고 있다. 더벌자는 개인회원에게 각자 원하는 조건에 목표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을 구인하는 기업회원에게 원하는 조건 및 목표 인건비 내에 최적의 인재들을 단시간 내에 매칭하고 있다.

웍스비는 O.B.C를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최적의 상호보완관계의 대상을 찾아 조합한다. O.B.C는 매칭 시 실제 사용자가 고려할 모든 조건과 선호·불호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 사용자의 선호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최적의 조합을 제공하고 매칭



최적 매칭 검색엔진을 적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더별자'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 : 웨스비)

품질을 극대화한다.

웨스비의 차별 포인트

웨스비는 사용자에게 저비용, 단시간으로 적합한 매칭을 제공한다. O.B.C 매칭엔진을 적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더별자'는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매칭 기술을 선보인다. 더별자는 이미 타사 플랫폼 대비 5배 이상의 매칭 전환율을 검증했다. 또 사용자가 기존에 수십 분을 소모하던 구직 탐색 시간을 3초 내로 단축하고, 보다 고품질의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더별자는 구인-구직자 각자가 목표한 소득(또는 인건비) 및 기타 스케줄, 조건들을 달성가능한지 매칭 단계에서부터 확인한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 조건을 달성 가능한 최적의 매칭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웨스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웨스비는 현재 더별자를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에게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 성공률은 시장의 주요플레이어 대비 4배 이상이며, 개인, 기업회원 트래픽 및 매칭 건수 모두 고속 성장 중이다.

웨스비는 더별자의 서비스 유료화 및 서비스 지역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매칭을 통한 개인의 소득경로데이터의 취합 속도 및 품질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O.B.C가 적용되는 매칭 분야를 일자리 매칭 이외의 라이프스타일 매칭으로 확장하고, 글로벌 개인화 라이프스타일 매칭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카이어, 보안 유출 걱정 없이
AI 프로젝트 원클릭 구축 지원

기업
카이어

대표자
이교혁

카이어는 클릭 한 번으로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AI) 모델을 15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학습 완료 하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automation)'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2019년 11월 설립 했다.

Kaier

주요 제품(서비스)
카이에스(KAI.S)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kaier.co.kr

카이어의 솔루션 이야기

카이어는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카이어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하나의 GPU(그래픽 처리장치)에서 구동할 수 있어,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솔루션을 고객사 내부에 위치한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없다.

카이어의 차별 포인트

카이어의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쉽게 구동할 수 있어,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에 AI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응용 분야 전문가가 AI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저비용·고효율로 AI 모델을 여러 분야에 동



카이어의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카이어)

시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카이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카이어는 종전 기술로는 검출하지 못했던 미세 결함을 검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기존 대비 1/3 이하로 단축한다. 또한 사람이 해오던 최적 공정 변수 검색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등 운영 과정을 단순화·자동화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카이어의 솔루션은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등의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삼성, LG, DB, 삼양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는 카이어의 솔루션을 제조 결함 검출, 공정 불량 원인 분석, 공정 최적화, 프로세스 최적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카이어는 향후 금융, 헬스케어, 자율주행, 국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활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AI 프로젝트에 카이어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 기술을 도입해 산업 지능화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포부다.

크로프트, 작물 상태 보면서
제어하는 'AI 온실 시스템' 개발

기업
크로프트

대표자
류희경, 이우람

크로프트는 2022년 7월 설립한 '스마트팜'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온실 자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스마트 온실 자율제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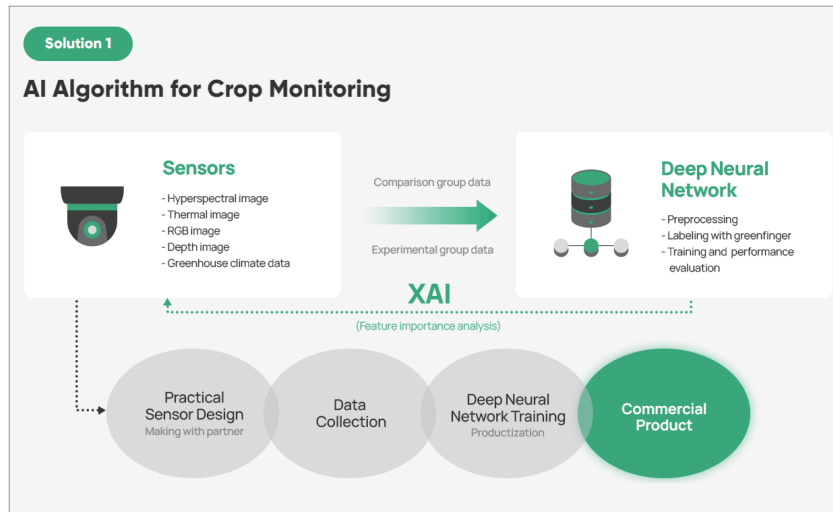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croft-ai.com

크로프트의 AI 기반 스마트 온실 자율제어 시스템
크로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AI가 작물을 관찰하면서 작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해 작물에 최적화 된 온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재배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경험에 의해 최적으로 온실 조건을 제시해줬으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농업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AI 기반 스마트 온실 자율제어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다.

AI가 센서로 작물 보면서 제어
크로프트 솔루션의 차별점은 다양한 이미지 센서들을 이용해 작물을 실제로 보면서 제어한다는 점이다. 작물을 보지 않고 이론에 입각해 온실 환경을 제어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물을 보며 제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크로프트는 설명한다.

AI가 온실을 완전히 자율로 제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실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크로프트



크로프트의 AI 알고리즘 기반 작물 재배 모니터링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크로프트)

는 크게 세 단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1단계는 온실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온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온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작물 재배나 온실 운영에 필요한 분석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온실 제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단계는 AI가 온실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앞서 개발된 온실 관리 앱과 연동돼 온실 제어에 필요

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온실 부분제어를 수행한다. 가령 온실의 온도, 히터, 설비 등 부분별로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AI로 온실 전체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다. 이 기술 기반의 AI 에이전트는 작물 상태와 온실 상태, 그리고 재정 상황(에너지/원자재 가격, 작물 판매 가격, 재배 원가 등)을 판단해 온실 수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배 전략을 수립해 온실을 제어하게 된다.

크로프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크로프트는 해외(네덜란드)에서 이미 AI 기반 온실 자율 제어 기술을 인정 받았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해 온실 관리 앱(GPT 기반)을 런칭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AI 기반 부분적 온실 제어', 'AI 기반 완전한 온실 제어' 기술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AI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온실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AI 기반 스마트 온실 자율 제어 시스템을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목표로 두고 있다.

투와이, '인버즈'로
저비용 고품질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기업
투와이

대표자
양도현

투와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서비스 기업이다.
2021년 7월 회사를 설립했다. 누적 7억 3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고, 시리즈A 투자를 유치(2023
년 10월 기준)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인버즈(Inbuzz)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inbuzz.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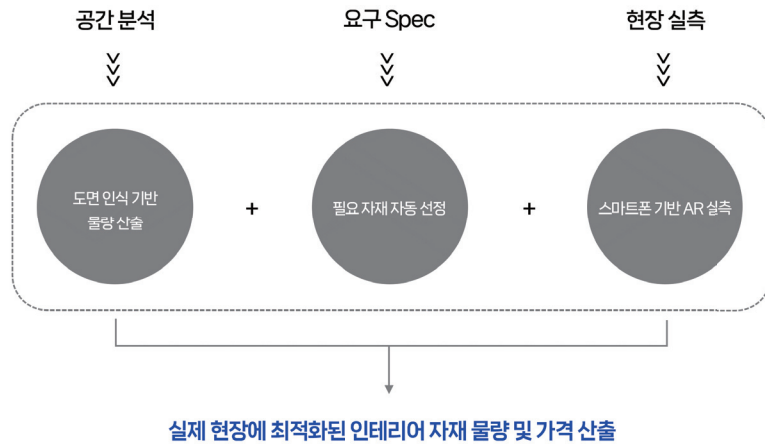
투와이의 솔루션 '인버즈' 이야기

투와이의 솔루션 '인버즈'는 국내 최초로 인테리어 자재·시공 시장의 비과학적인 자재물량 산출 방식과 수의계약 중심의 하도급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서비스다. 투와이는 기존 인테리어 시장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 집행이 만연해 고객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인버즈를 내놨다.

인버즈는 도면 인식 기술을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인테리어 자재 물량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또 다양한 인테리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고객 요구에 맞는 자재를 최적의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역경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현장 실측에 AR(증강현실) 측정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투와이의 차별 포인트

투와이의 솔루션 '인버즈'는 자체 구축한 물량 및 공급가격의 최적화로 복잡한 인테리어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투와이의 AI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프로세스
(사진 제공 : 투와이)

가격 거품을 해소할 수 있다는 특징점을 가진다.

단순히 제품 등급 또는 시공 퀄리티를 낮추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 등급 및 시공 퀄리티 기준에서 테크 기술을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와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투와이는 현재 F&B, 병원, 학원,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산업 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고객사는 인버즈 인테리어 서비스를 통

해 평균 15~30% 이상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고 있다.

투와이는 올해 1월 인버즈 인테리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기류, 가구 등 상업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보급하는 크로스 셀링(Cross-Selling)을 강화해 B2B 전문 토털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 한다. 또한 국내 핀테크사 등과 협업해 고객사들의 결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테리어 할부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툰스퀘어, AI 활용해
웹툰 제작 혁신 주도

기업
툰스퀘어

대표자
이호영

TOONSQUARE

주요 제품(서비스)
툰닝 에디터, 툰닝 매직 AI,
툰닝 월드

사업 분야
범용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tooning.io

툰스퀘어는 인공지능 관련 생성형 AI 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2017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젝트 'C-Lab'으로 통해 공식 출범했고, 2019년 분사했다. 현재 툰닝 (Tooning) 에디터, 툰닝 매직 AI, 툰닝 월드 등 글로벌 SaaS 서비스를 출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억 원을 투자 받았다.

툰스퀘어의 솔루션 이야기

툰스퀘어의 툰닝은 누구나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창작형 인터랙티브 웹툰 저작 도구이자, '저작 도구 기반 UGC(User-Generated Content) 웹툰 플랫폼'으로서 혁신을 목표로 한다.

툰스퀘어는 '감정 분석'과 '형태소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과 챗GPT 기술을 접목했다. 이를 통해 웹툰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공정에서 작업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뤘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디지털 창작 파이프라인에 효율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웹툰 제작 AI 솔루션 '투닝'의 차별 포인트

투닝은 웹툰 솔루션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확장 가능한 풀 스택 플랫폼이다. 투닝 매직 AI, 에디터, 윌드는 각각 독자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세 가지의 서비스가 연결됐을 때 더 많은 유저들에게 효율성과 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강점이 생긴다.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운영사 측에서도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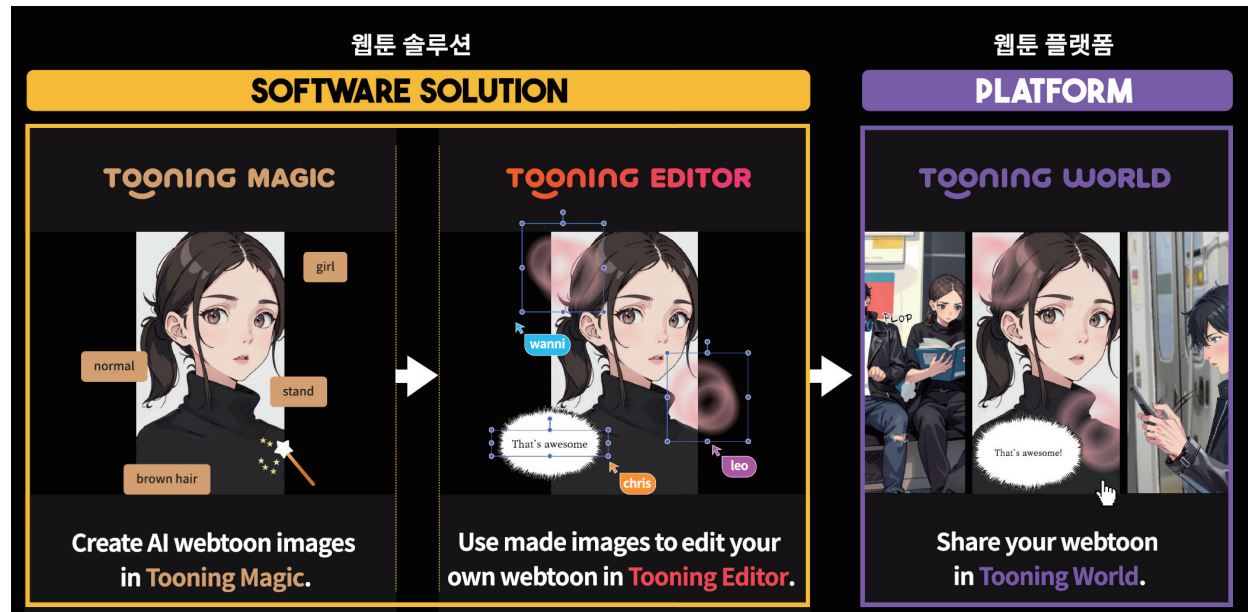
툰스퀘어는 현재 '동적 가변이 가능한 스마트 모듈형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 및 서버' 특허를 등록했다. 또 '입력된 문장 기반의 만화 이미지 자동 생성 장치 및 방법'의 해외 특허 출원을 비롯해 29개국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툰스퀘어의 성과 그리고 미래

툰스퀘어는 AI 기술과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제작 소요 시간을 기존 대비 약 5배 이상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투닝을 활용해 디지털 창작 파이프라인에 효율성을 더하고, 창작형 인터랙티브 웹툰 저작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작 도구 기반 UGC 웹툰 플랫폼'으로써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툰스퀘어는 '웹툰 제작 AI 솔루션'을 개발 고도화하고 상용화해 웹툰 제작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웹툰 제작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툰스퀘어의 투닝 매직, 투닝 에디터, 투닝 윌드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툰스퀘어)

지능형 에이전트



스모어톡, 생성 AI 기반
'플라멜' 통해 사용자 의도
비주얼 콘텐츠로 만든다

기업
스모어톡

대표자
황현지

스모어톡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주얼 콘텐츠 생성 서비스 '플라멜'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3년 4월 설립했다. 2개 기관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플라멜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주소
smoretalk.oopy.io

스모어톡의 솔루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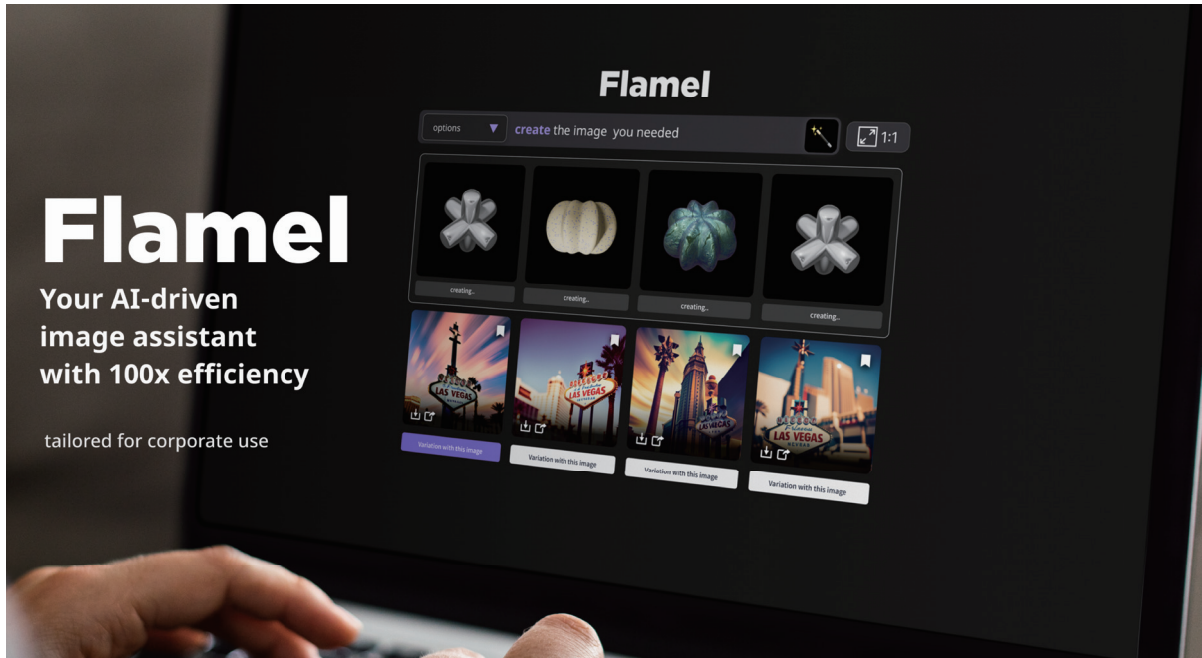
스모어톡의 서비스 '플라멜'은 AI-퍼스트 이미지 어시스턴트다. 수요자가 필요한 비주얼 애셋을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플라멜에는 3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이 담겨있다. 우선 플라멜에는 '최적 프롬프팅' 기술이 탑재됐다.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AI가 가장 잘 인식하는 형태인 프롬프트로 자동 변환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에이전트다.

'자동 라벨링' 기술은 수요자의 이미지 자산을 모델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 학습에 적합한 라벨링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 '다이나믹 API' 기술은 다양한 이미지 생성 및 편집과 관련해 오픈소스 모델, 수요자 특화 모델을 빠르게 API 형태로 구현해준다.

스모어톡의 차별 포인트

비전 분야의 오픈소스 모델은 생성과 편집 과정에서 최고의 성능, 차별적인 기능을 제시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AI-퍼스트 이미지 어시스턴트 '플라멜'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스모어톡)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기에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나 웹 기반 툴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모어톡은 플라멜에 LLM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빠르게 배포되는 오픈소스 이미지 시를 최적화해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용 이미지 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상의 편의성 및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스모어톡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모어톡은 2023년 10월 현재 3곳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15건 이상의 도입 문의를 제안받고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는 300명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시장의 반응을 확인했다.

베타 테스트를 통해 고도화한 플라멜의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사용성이 높은 이미지 도구로서 브랜딩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반응을 근거로 다양한 고객사들과 이미지 생성 모델 또는 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거대언어모델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수요 기업의 니즈를 충족할 계획이다.

스웨번즈, AI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 입찰 제안

기업
스웨번즈

대표자
이우진

스웨번즈는 인공지능(AI)기반 최적 예산 입찰 전략의 실시간 입찰 광고 구매 플랫폼 '덱스DSP'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2022년 8월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DEX DSP (덱스DSP)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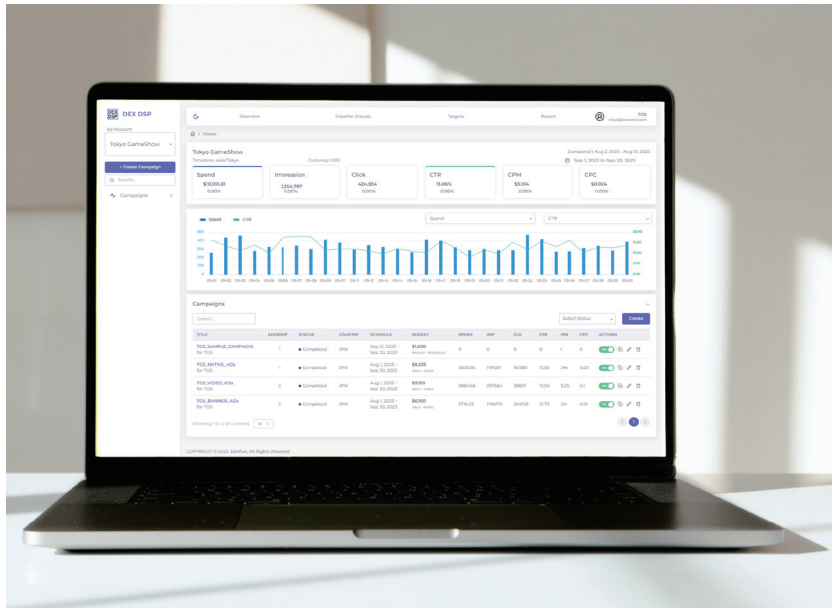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swevenz.com

스웨번즈의 솔루션 '덱스DSP' 이야기

스웨번즈는 실시간 입찰 광고구매 플랫폼 '덱스DSP'를 운영하고 있다. 덱스DSP는 AI 기반으로 최적 예산 입찰전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DSP(광고구매플랫폼, Demand-Side Platform)란 광고주 혹은 광고 대행사가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 다양한 광고 공급 플랫폼으로부터 고효율의 광고 지면(인벤토리)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플랫폼이다. 캠페인의 세부 사항(기간·예산·타겟 등)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으며, AI를 통해 광고 효율을 최적화한다.

광고 지면의 종류와 수량 등 지면의 특징 데이터와 입찰 요청의 분포 특성을 분석해 최적화된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입찰전략 모델이다. 기존의 사용자 타겟팅과 함께 지면 타겟팅을 적용하면 캠페인 효율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캠페인에 따라 어느 지면, 어느 시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해, 예산분배를 통해 최적화를 이룬다.



실시간 입찰 광고구매 플랫폼 '덱스DSP'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스웨번즈)

스웨번즈의 차별 포인트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로 인해 개인화 광고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사용자 타겟 광고가 더 이상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졌다.

스웨번즈는 이 문제를 지면 타겟팅으로 보완해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지면 타겟팅은 지면의 특징과 그 지면을 방문하는 사용자 특성을 분석해 효율적인 캠페인

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웨번즈의 실시간 입찰 광고 구매 플랫폼 '덱스DSP'에는 솔루션 캠페인의 세부 사항(기간·예산·타겟 등)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된다.

스웨번즈의 성과 그리고 미래

스웨번즈는 국내외 공급 플랫폼과 제휴를 체결해 실 광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타겟 모바일 게임 광고와 해외 특정 국가 타겟의 브랜딩 및 게임 광고 캠페인 등을 수행해, 수학적 모델을 활용한 예산 분배 전략을 검증했다. 수집되는 입찰 요청 데이터는 강화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셀프서브 기능을 추가해 덱스DSP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기능이 추가되면, 소규모 광고주도 직접 광고 캠페인을 설정하고 실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캠페인 타겟 및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을 추가 개발해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현재 디지털 광고로 전환되고 있는 커넥티드TV(CTV)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스마트TV 보급 증가와 OTT 시장 규모 확대로 CTV 광고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임팩티브AI,
기업용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기업 수익 극대화

기업
임팩티브AI

대표자
정두희

임팩티브AI는 인공지능(AI)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에게 신제품 성과예측과 제품 수요예측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 극대화를 돕는 기업이다. 2021년 7월 설립했다. 2023년 프리 시리즈 A 단계의 펀딩 라운드를 진행했고, 누적 21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Impactive AI

주요 제품(서비스)
딥플로우(Deep Flow)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주소
impactive-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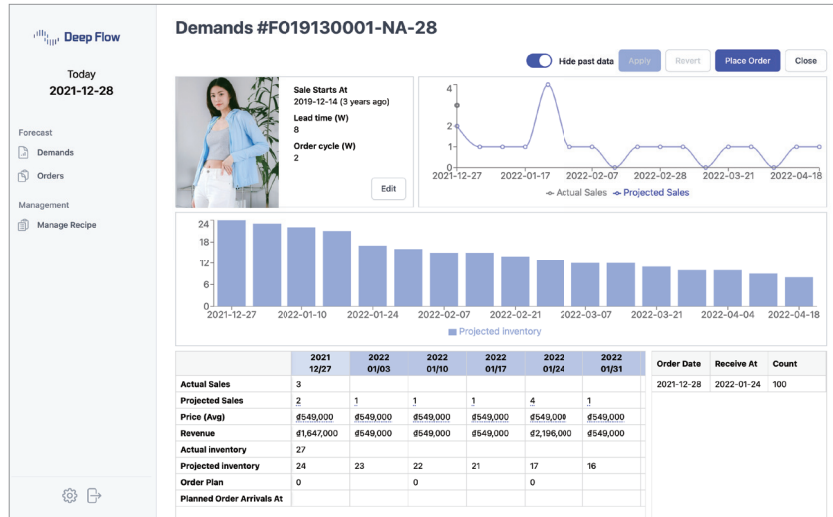
임팩티브AI 솔루션 이야기

임팩티브AI는 기업용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자체 AI 예측모델을 고객사의 제품 출시부터 단종까지 전 사이클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사별로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임팩티브AI는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판매량을 예측해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제품 성과예측으로 제품 출시 전 성공 여부 예측▲미래에 발생할 주문량 예측을 통한 재고관리 최적화▲제품의 수명 및 생애주기 동안 총 매출액을 예측해 수익성을 높이는 제품 포트폴리오 사전도출 등이 있다. 이러한 AI 기능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한다.

임팩티브AI의 차별 포인트

임팩티브AI는 제품관리 전 사이클에 대한 예측모델을 적



딥플로우 모니터링 화면
(사진 제공 : 임팩티브AI)

다. 이를 통해 제품의 수주량과 생산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정하게 도움을 줘, 과잉재고와 재고 부족량을 큰 폭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임팩티브AI의 성과 그리고 미래

임팩티브AI는 현재 고급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예측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정교화할 계획이다. 고급 모델은 더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의 요구를 더욱 세밀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 전/후처리, 모델 학습 및 배포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자동화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해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솔루션 공급 레퍼런스를 확대해 신뢰성 있는 레퍼런스 사례를 구축하고 신규 고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스템에 대한 영업과 고객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용하고 수익성을 향상시켜주는 독보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예측적 신제품개발(NPD)과 포트폴리오 관리(PTF)는 업계에서 유일하다.

또 임팩티브AI는 100개 AI 예측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탭티어 레벨의 예측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예측모델 성능(정확도) 측면에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예측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

임팩티브AI의 시스템은 ERP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수치와 그래프로 제공한

“설계 경험 없어도 OK”
트라이피프티,
GPT 기반 SW ‘런치바운드’

기업
트라이피프티

대표자
이현우

트라이피프티는 GPT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획 SaaS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2
년 10월 설립했다.

Tryfifty

주요 제품(서비스)
런치바운드

사업 분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트 주소
tryfif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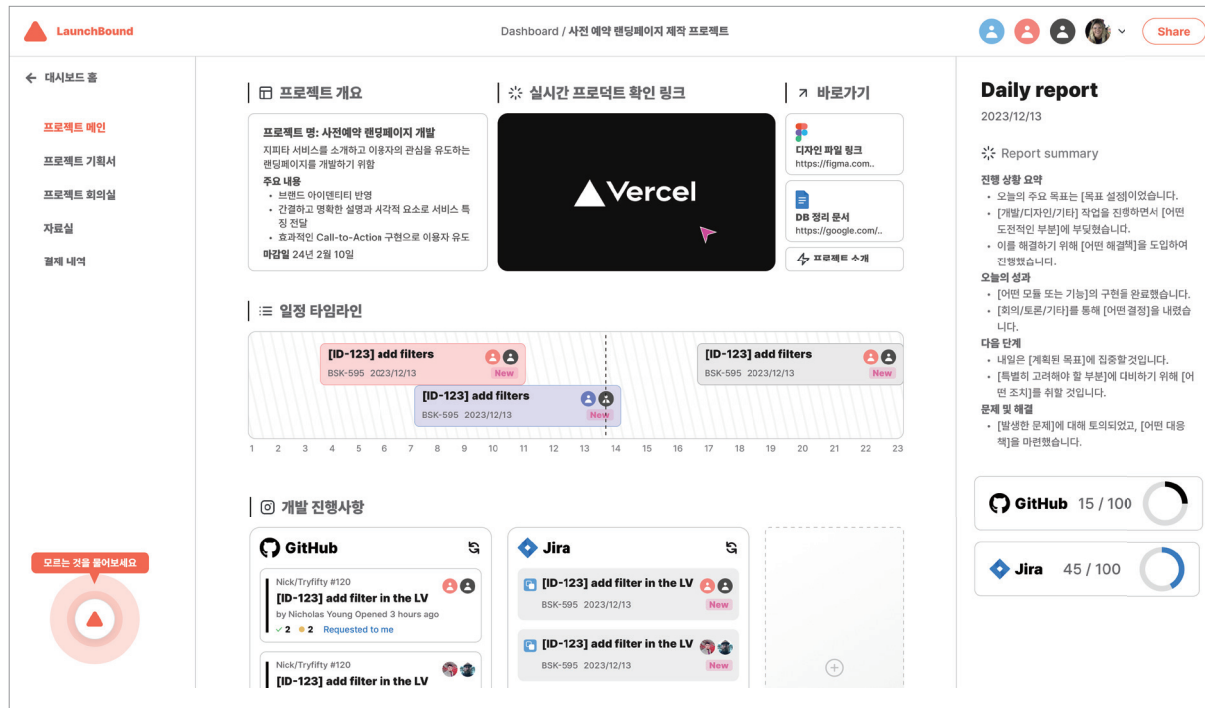
트라이피프티의 솔루션 이야기

트라이피프티는 언어 이해 챗봇, 소프트웨어 계획 영역을 위한 가상 비서, 소프트웨어 기획, 디자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을 제공한다. 트라이피프티가 운영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텍스트를 입력 받아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기존의 서비스들과는 다르다.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추천, 정리, 보완을 돕고 이를 통해 개발 혹은 디자인이 가능한 전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계획(Full Architected Software Planning) 수립을 제공한다.

트라이피프티의 차별 포인트

트라이피프티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예비창업팀을 주 타겟으로 한다. 이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의 설계를 진행하고, 실제 디자이너 혹은 개발자 등의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하드웨어 창업팀 GoTeath의 경우 자사의 하드웨어와 연동할 소프트웨어 앱의 기획 및 설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트라이피프티와 협업해 아웃소



AI 기반의 아웃소싱 프로젝트 관리 대쉬보드
(사진 제공 : 트라이피프티)

싱 벤더사를 통해 무사히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트라이피프티의 성과 그리고 미래

LLM(거대언어모델)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텍스트-코드, 텍스트-UI 디자인 변환 등의 툴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그 기조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런치바운드는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단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파트너십, API 등을 통한 연관 서비스들과의 통합을 통해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궁극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로보 틱스



루나랩스, 다양한 레시피
조리하는 로봇 '봇띠' 운영

기업
루나랩스

대표자
김원창

루나랩스는 AI, 디지털 트윈, 블록코딩, 3D 카메라 등의 기술을 활용해 조리 로봇 '봇띠'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2018년 10월 회사를 설립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봇띠(Botty)

사업 분야
로보틱스

사이트 주소
lunalabs.net

루나랩스의 솔루션 '봇띠' 이야기

루나랩스의 봇띠는 다양한 레시피 조리가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조리 로봇이다. 1인 로봇 프랜차이즈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며 핵심 기술은 디지털 트윈, 블록코딩, 3D 카메라, AI 등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디지털 화면으로 전달받고, 화면을 통해 게임처럼 쉽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로봇을 설치·기동하지 않아도 효율성과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봇띠 사용자는 블록코딩을 통해 직접 레시피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조리의 순서, 재료의 양, 재료의 변경 등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 본래 로봇 조작은 전문 엔지니어만 가능했지만, 일반 사용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3D카메라는 로봇이 정교한 조리 수행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기존에는 지정된 좌표에서 반복된 움직임만 가능했지만, 봇띠는 사람처럼 직접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해 인터랙티브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루나랩스의 조리 로봇 '봇띠'
(사진 제공 : 루나랩스)

루나랩스 봇띠의 차별 포인트

루나랩스의 봇띠의 장점은 높은 접근성이다. 타사 로봇은 로봇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로봇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만, 봇띠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다. 또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을 구동할 수 있다는 효율성도 가진다.

봇띠는 1로봇 다메뉴 조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맞춤형 레시피를 생성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지정 위치로만 움직이는 타 로봇과 달리 봇띠는 3D 카메라가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해 인터랙티브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루나랩스 봇띠의 성과 그리고 미래

봇띠는 2023년에 월드 IT쇼, AFRO 박람회 등 여러 전시회에 참여해 라면 조리를 선보였다. 봇띠는 닭발, 치킨, 요거트 등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 옵션 조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요거트에서 토핑의 종류를 달리 하든지, 마라탕에서 맵기를 다르게 하든지 고객 맞춤으로 요리를 조리할 수 있다.

루나랩스는 현재 기술 개발과 동시에 사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봇띠가 조리할 수 있는 전용 밀키트를 제작해, 24시간 영업 가능한 배달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루나랩스는 해당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고, 봇띠를 1인 로봇 프랜차이즈화 할 계획이다. 또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로봇 밀키트' 특허를 획득하고, 밀키트 시장 진출을 이를 예정이다.

매크로엑트, 강화학습 기반
로봇 솔루션 통해 개발
고도화 이끌어

기업
매크로엑트

대표자
강의혁



주요 제품(서비스)
강화학습 기반의 적응형 로봇 솔루션
'마이다이내믹스(maidynamics)'
마이다이내믹스 기반 홈 로봇
'마이캣(maicat)'

사업 분야
로보틱스

사이트 주소
macroact.com

매크로엑트는 2019년 5월 설립한 로봇 자율제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및 로봇공학 스타트업이다. 로봇 시뮬레이터를 위한 통합 솔루션 '마이다이내믹스(maidynamics)'와 이를 검증하는 홈 로봇 '마이캣(maicat)'을 개발했다.

강화학습 기반 적응형 로봇 솔루션

'마이다이내믹스' 이야기

로봇산업은 협동로봇을 넘어 한층 진화된 차세대 로봇 이론인 '적응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연히 서비스 로봇 등의 수요가 늘면서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하드웨어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로봇 시뮬레이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호환성(다른 모델의 로봇과 호환)의 어려움이 따른다.

매크로엑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로봇 개발의 전체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마이다이내믹스(maidynamics)'를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로봇 시뮬레이터에 강화학습을 도입해 가상의 환경에서 다양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동작 제어를 찾아낸다. 이를 통해 가변적인 실제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마이다이내믹스와 마이캣

마이다이내믹스는 기존에 여섯 단계에 거쳐 오류를 찾아



마이다이내믹스 기반 홈 로봇 '마이캣'
(사진 제공 : 매크로엑트)

내고 이를 보완하는 무한 반복적인 과정을 '정의', '학습', '배포'의 세 단계로 줄여 활용도와 경제적 효과를 높였다. 새로운 방식의 로봇과도 호환할 수 있다.

보행로봇처럼 관절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관절 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습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행동에서 역학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여기에 사용되는 관절 추론 신경

망은 99% 이상의 정확도에 도달했다. 이 기술들은 모두 특허에 등록된 상태다.

매크로엑트는 마이다이내믹스 솔루션을 검증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홈 로봇 '마이캣'을 개발했다. 마이캣은 시의 지능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결합한 로봇이다. 마이캣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얼굴을 인식하고 기분 및 행동을 인지한다.

매크로엑트의 성과 그리고 미래

매크로엑트는 2022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스마트홈 부분 혁신상을 수상했다. 팁스(TIPS, 정부의 기술 R&D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매크로엑트는 현재 로봇 자율제어 기술과 동적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메타팩토리를 로봇이 활동하는 제조산업 전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마이캣에 타사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SDK 및 스토어를 구현하고 메터(Matter) 표준을 적용해 스마트홈 시대의 중심이 되는 로봇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의 훈련을 돕는 컴퓨터 비전과 센서 활용 기술들을 연구개발하며 적응형 로봇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잇코리아, 빅데이터
활용해 최적화된
배차 추천 서비스 운영

기업
온잇코리아

대표자
정승범

온잇코리아는 B2B2C(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화물 운송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로 설계부터 분석 및 최적화 된 기사 매칭까지 해주는 기사·객사 맞춤 경로 최적화 및 배차 추천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0년 5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주요 제품(서비스)
짐랄라BIZ

사업 분야
로보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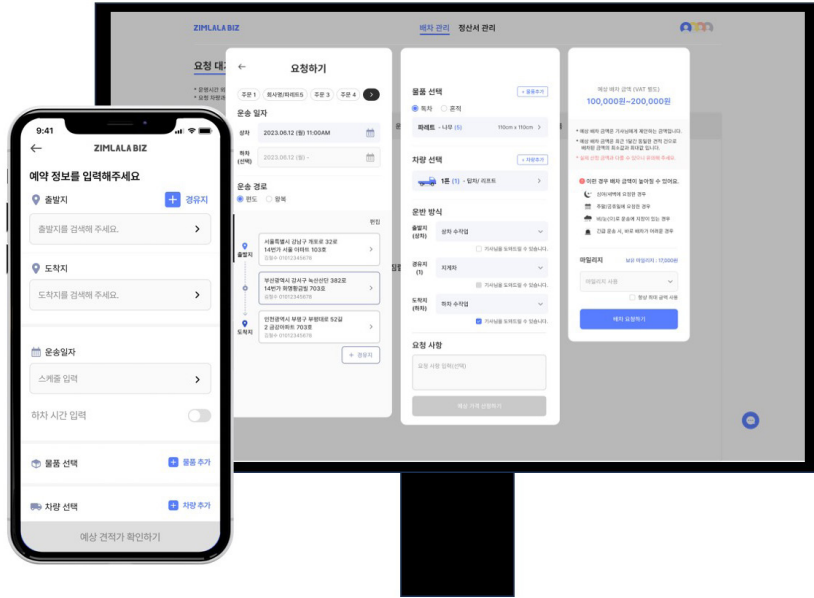
사이트 주소
zimlala.com

온잇코리아의 솔루션 '짐랄라BIZ' 이야기

온잇코리아는 기사·고객사 맞춤 경로 최적화 및 배차 추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온잇코리아의 '짐랄라BIZ'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B2B2C 화물 운송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로 설계부터 분석 및 최적화 된 기사 매칭까지 해주는 맞춤 경로 최적화 및 배차 추천 서비스다.

화물과 차량의 적재율, 공차 운송 거리율, 도착 일정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경로를 설계해 운송비용 감소와 업무시간을 단축한다. 또 화물 요청, 기사, 배차 데이터를 분석 및 체계화해 고객사에게 맞춤화 된 퀄리티 좋은 기사를 추천하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매칭 확률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요청 정보와 배차 정보(기사 전문성, 리뷰 및 평점, 매칭 여부 및 소요시간 등) 연관성을 바탕으로 지식 그래프를 설계하고 분석해, 화물 요청과 경로 기준에 맞는 최적의 배차건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온잇코리아의 '짐랄라BIZ' 서비스 이미지
(사진 제공 : 온잇코리아)

온잇코리아의 차별 포인트

온잇코리아의 서비스는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강점이 있다. 기존 배차 서비스는 고객 요청 오더 정보를 기사에게 전달해 선착순으로 먼저 잡는 기사부터 배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 적재율과 공차거리율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차가 어렵다. 이는 곧 화주 고객사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짐랄라BIZ는 SI기반 적재율 계산 및 차량 추천 알

고리즘과 공차 운송 거리를 최소화 경로 설계 기술을 적용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맞춤형 기사 추천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친절도, 청결도, 운반 및 배치 기술 등)에 부합하는 기사를 추천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온잇코리아의 성과 그리고 미래

온잇코리아는 2023년 5월 비대면 혁신 물류 기업으로 선정됐다. 'B2B2C화물 운송 빅데이터 기반 기사-고객사 맞춤 경로 최적화 및 배차 추천 시스템'으로 팁스(TIPS) R&D 과제에 선정돼 현재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서울 AI 허브에 입주사로 선정돼 기존 서울에 위치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양재로 이전했다. 온잇코리아는 서울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온잇코리아는 2023년 6월에 '짐랄라BIZ'를 정식 런칭했고, 고객사를 모집해 실제 서비스의 사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향후 B2B2C 화물 운송 시장의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의료 인공지능



더블유닷에이아이,
성형수술 분야
특화한 전문 진단 서비스

기업
더블유닷에이아이

대표자
김재홍

더블유닷에이아이는 가슴성형과 유방 재건 성형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2023년 2월 설립했고, 인벤션랩으로부터 5억 원의 개인투자조합을 유치했다.



주요 제품(서비스)
W Exp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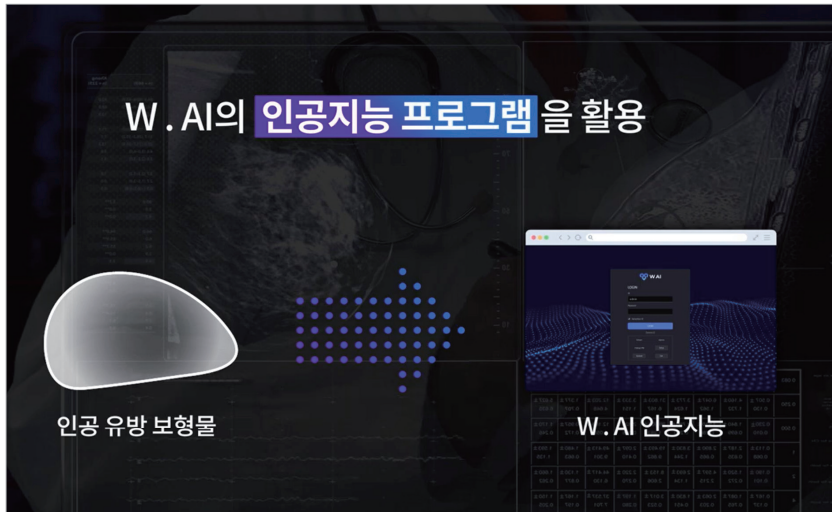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w-ai.ai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솔루션 ‘W Expert’ 이야기
더블유닷에이아이가 개발한 ‘W Expert’는 재수술 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방보형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용 초음파이미지 기반 AI 프로그램이다. AI를 활용해 가슴성형 혹은 유방재건에 사용된 인공유방보형물을 분석해 부작용진단을 하고, 림프종과 관련된 보형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일반 판독용 엑스레이가 아닌, 초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여타 이미지 기반 AI 프로그램개발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난도다.

회사의 창업자인 김재홍 대표는 20년 경력의 유방 외과 의사다. 국내·외 학술 활동을 통해 가슴성형에 활용되는 보형물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전파해 왔다. 김재홍 대표는 자사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차별 포인트
대부분 의료용 AI 서비스는 암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질환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W Expert는 성형



의료용 초음파이미지 기반 AI 프로그램 'W Expert'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 : 더블유닷에이아이)

수술 분야에 도입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이다.

기존에는 유방보형물 부작용 진단을 위해 초음파나 MRI를 사용했다. MRI는 비싼 가격과, 다양한 보형물정보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달리 초음파는 가격부담도 적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하며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유용한 진단 장비다.

더블유닷에이아이의 W Expert는 초음파에 기반한다. 유방보형물 검진분야에 기술력을 지닌 의료

팀이 수집, 전처리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높은 정확도가 장점이다.

더블유닷에이아이의 성과 그리고 미래

더블유닷에이아이는 임상시험을 준비(2023년 10월 기준)하고 있다. 임상시험 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우예를 통해 유방재건으로 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형환자들을 위해 검진센터나 유방외과의원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FDA, 유럽 CE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벤처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코성형 관련 진단 AI, 초음파이미지를 이용한 유방결절 진단과 같은 AI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3년 2월에 입주한 서울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디아비전, 스마트폰으로
신속 진단키트 분석·질병위험
관리

기업
디아비전

대표자
이석용



주요 제품(서비스)
스마트비전(Smart Vision),
디지털백신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diavision.co.kr

디아비전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 C랩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혁신 바이오기술과 소프트웨어(SW)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2021년 10월 회사를 설립했다. 7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프리A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디아비전의 솔루션 이야기

디아비전은 신속 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분석해주는 ‘스마트비전’과 질병위험도 관리를 돕는 ‘디지털백신’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비전에는 다양한 신속진단키트 이미지를 인식하고 정량분석하는 인공지능(AI), 고성능 디지털 이미지프로세싱 기술, 다양한 검사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데이터 증강기법이 사용된다.

디지털백신은 바이오마커데이터, 개인건강기록(PHR), 라이프로그킹(Life Logging) 데이터를 복합분석해서 질병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디아비전의 차별 포인트

디아비전의 솔루션은 기존 소형검사장비가 필요하던 정량분석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전문 검사장비를 완전 대체할 수 있고, 홈테스트 대중화가 가능하다.

기존에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부착해야만 했던



디아비전의 디지털 백신 서비스 소개 이미지
(사진 제공 : 디아비전)

다른 모바일 솔루션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자체만 가지고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편차보정 기술로 한정된 검사환경을 요구하던 다른 모바일 솔루션과 달리 일반적인 대부분의 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다.

디아비전의 성과 그리고 미래

현재 스마트비전 부분 사업화에 성공해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 완료 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한 곳과 3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런칭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헬스케어 회사, 진단키트 제조사들이 스마트비전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디아비전은 스마트비전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모은 데이터를 복합 분석해 질병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백신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의 특성상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분사업화를 진행해서 매출확보와 기술고도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모닛, 요로감염·욕창 해결하는
스마트 성인 기저귀 개발

기업
모닛

대표자
박도형



주요 제품(서비스)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
'맥스(MECS)'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monitcorp.com

모닛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독자적인 기저귀 감지 기술을 개발했다. 2017년 4월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4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 '맥스' 이야기

모닛의 '맥스(MECS)'는 기저귀 겉면에 부착되는 웨어러블 센서와 통신 허브, 모바일앱으로 구성된 성인 기저귀 케어시스템이다.

맥스는 국내만 1000만명을 넘어선 고령자를 대상으로 AI 센싱기술을 적용한 패턴러닝 알고리즘과 멀티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저귀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저귀의 교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맥스에는 고정밀 센서 3가지 온도센서, 습도센서, 정전 용량 센서가 탑재돼 있다. 이 센서를 통해 교체 시기를 알림으로 알려주고 자동으로 교체 기록까지 저장해 준다. 또 움직임도 감지되고 이를 모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간병인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다.

맥스의 차별점

맥스는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요로감염, 욕창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스마트 케어기술로 간병인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기존 상용화된 제품들이 정확도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 '맥스' 모바일 화면과 알림등 및 센서 스트랩
(사진 제공 : 모닛)

낮고, 대소변 이벤트만 제공한다는 한계성과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맥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혁신 복지용구로 선정돼 70%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인 가오그룹과 2020년부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 홈케어 시장에서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카톨릭대학 성빈센트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양평요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온누리 요양원에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저변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모닛의 성과와 미래

모닛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큰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스마트 센싱 시스템과 전용 기저귀가 결합된 맥스 스마트 기저귀 구독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접목시킨 비대면 환자 사전 진료시스템을 개발 진행중이다. 모닛은 기존 의료서비스에 가장 큰 불만이었던 진료시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의 현재 질환 상태를 의료진에게 설명할 수 있고, 보호자도 해당 원격진료에 배석할 수 있어 치료 및 경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의료진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편리하게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의 예후를 텍스트로 변환한 후 요약된 내용으로 진료 전에 리뷰할 수 있다.

모닛은 해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가오그룹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 성인기저귀 제조사인 '하트만(Hartmann)'과 전용기저귀 센싱시스템 공급을 협의 중에 있다. 모닛은 독일을 거점으로 전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트리스, 데이터 분석
'팬오믹스'로 제약사
맞춤형 신약개발 돕는다

기업
비트리스

대표자
홍윤석



주요 제품(서비스)
팬오믹스 분석 서비스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virtris.com

비트리스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팬오믹스(Pan-Omics)'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제약 고객사에게 맞춤형 신약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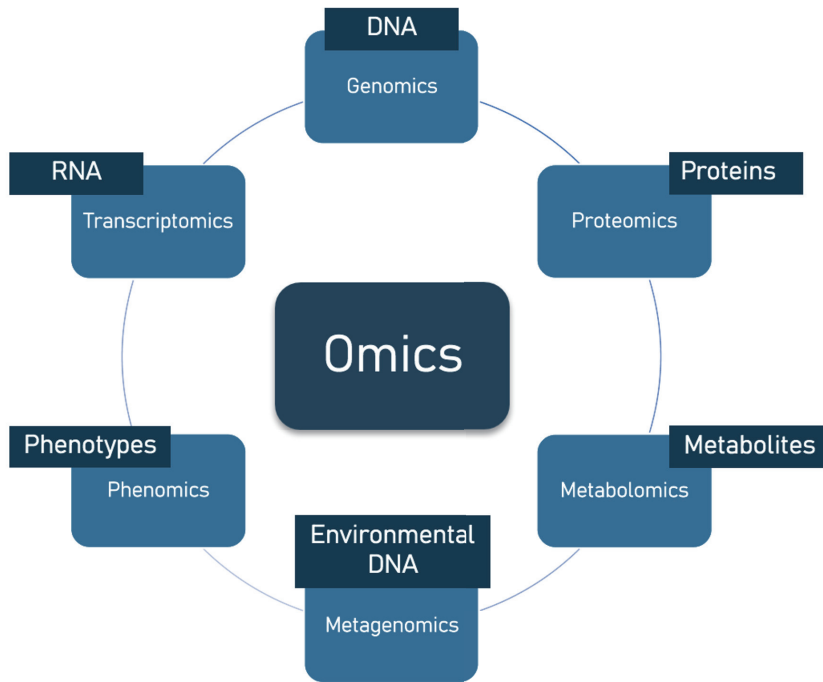
비트리스의 솔루션 이야기

비트리스는 정밀의료 기반의 '팬오믹스(Pan-Omics)'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제약 고객사에게 맞춤형 신약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인 '팬오믹스'는 유전체, 대사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의 여러 오믹스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비트리스는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등의 오믹스 데이터를 총망라해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대상 약물에 대한 신규 및 동반 진단 바이오 마커 발굴을 통해 환자 선택 기준을 최적화할 수 있다. 대상 약물에 대한 신규 질환 적응증 확대, 대상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타겟 도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비트리스의 차별 포인트

단일오믹스 분석기술은 DNA와 같은 하나의 분자 수준만을 보여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팬오믹스 분석은 다수의 오믹스 정보를 통합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트리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팬오믹스(Pan-Omics)' 기능
(사진 제공 : 비트리스)

팬오믹스 분석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암과 같은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약개발과정 초기에 오믹스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장성이 높은 특정 적

응증을 타깃해 신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다.

비트리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비트리스는 2023년 상반기에 지아이이노베이션과 현재 개발 중인 신약 면역항암제에 대한 팬오믹스 데이터 분석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모델링 기반 분석을 통한 환자 셀렉션 최적화, 신규 질환 적응증 확대 및 기존 타깃 질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세포 및 동물모델에서 신약 처리 이후 중요 유전자 및 신호 경로의 변화를 탐색해 약물 내성 기전 규명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셀랩메드의 파이프라인에서 추후 항암 표적치료제 개발 물질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비트리스는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타깃을 발굴하고 적응증 확대 서비스를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제약회사와 IP 공유를 기반으로한 공동 물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액티브레인바이오,
일상생활 중 MRI 찍는
신개념 메디컬테크 제시

기업
액티브레인바이오

대표자
김성연

2019년 1월 설립된 액티브레인바이오는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을 활용해 뇌 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스타트업이다.

actibrain

주요 제품(서비스)

AI와 XR 기반 뇌 질환 조기 발견
솔루션 '액티브 브레인 스캐닝
(Active Brain Scanning)'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ctibrain.bio

'액티브 브레인 스캐닝' 이야기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뇌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는 신경계 뇌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있어 AI와 XR을 접목한 기술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액티브 브레인 스캐닝(Active Brain Scanning)' 기술은 움직이지 않고 브레인을 찍는 MRI와 달리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모니터링해 의료진에게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뇌의 기능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환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중에도 뇌 활동을 캡처할 수 있다. 의료진 관점에서는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AI와 XR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관리

액티브레인바이오의 혁신은 단순히 진단에 그치지 않는다. AI와 XR의 결합은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뇌 건강 관리 경험을 선사한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환경에서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액티브레인바이오의 주요 서비스 '브레인케어' 사용 예시
(사진 제공 : 액티브레인바이오)

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다.

액티브레인바이오의 성과와 미래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무증상기가 15 ~ 20년이나 되는 신경계 뇌질환을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조기 발견을 시도하고 있다. 뇌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액티브레인바이오는 뇌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의 낙상, 치

매 예방의 주요 영역인 인지강화뿐 만 아니라 정서와 근육치료에 있어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과 치매예방·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사용자 친화적인 확장현실(XR) 기반 인지기능 측정 AI 시스템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액티브레인바이오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AI 허브'에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액티브레인바이오는 서울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성장 촉진, R&D 역량 강화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액티브레인바이오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뇌 의료와 건강 관리의 새로운 장을 서울대 윤주현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인터미디어랩 (Intermedia Lab)'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에이아이다이콤,
골밀도 진단·관리에
AI 알고리즘 활용

기업
에이아이다이콤

대표자
윤종헌



주요 제품(서비스)
BMD-X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aidicome.com

에이아이다이콤은 엑스레이(X-ray)를 활용한
골밀도 진단·관리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7월 설립했다.

에이아이다이콤의 솔루션 이야기

기존의 골밀도 측정 방식은 고준위/저준위 방사선을 모두 조사해서 획득한 골조직/연부조직 이미지를 비교해 골밀도를 측정했다.

에이아이다이콤의 'BMD-X' 기술은 골밀도 측정에 오토인코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X-ray에서 얻은 골조직 이미지만을 가지고 연부조직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골조직과 임의의 연부조직을 합성한 가상의 분석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 X-ray 이미지만으로 골밀도를 예측할 수 있다.

에이아이다이콤의 차별 포인트

에이아이다이콤의 'BMD-X'는 골밀도 진단·관리에 기존 고가의 장비로 2종류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과 다르게, X-ray 이미지만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실행과 진단,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프리베노틱스,
AI로 암 예방하고
진단 돕는다

기업
프리베노틱스(주)

대표자
장수연

프리베노틱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암 예방과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2021
년 7월 설립했다. 10억 이상(팁스 선정) 시드 투
자를 유치했다.



PREVENOTICS
AI. PREVENTION. DIAGNOSTICS

주요 제품(서비스)
AI 기반 암 예방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의료 인공지능

사이트 주소
prevenotics.co.kr

프리베노틱스의 암 예방과 진단 돕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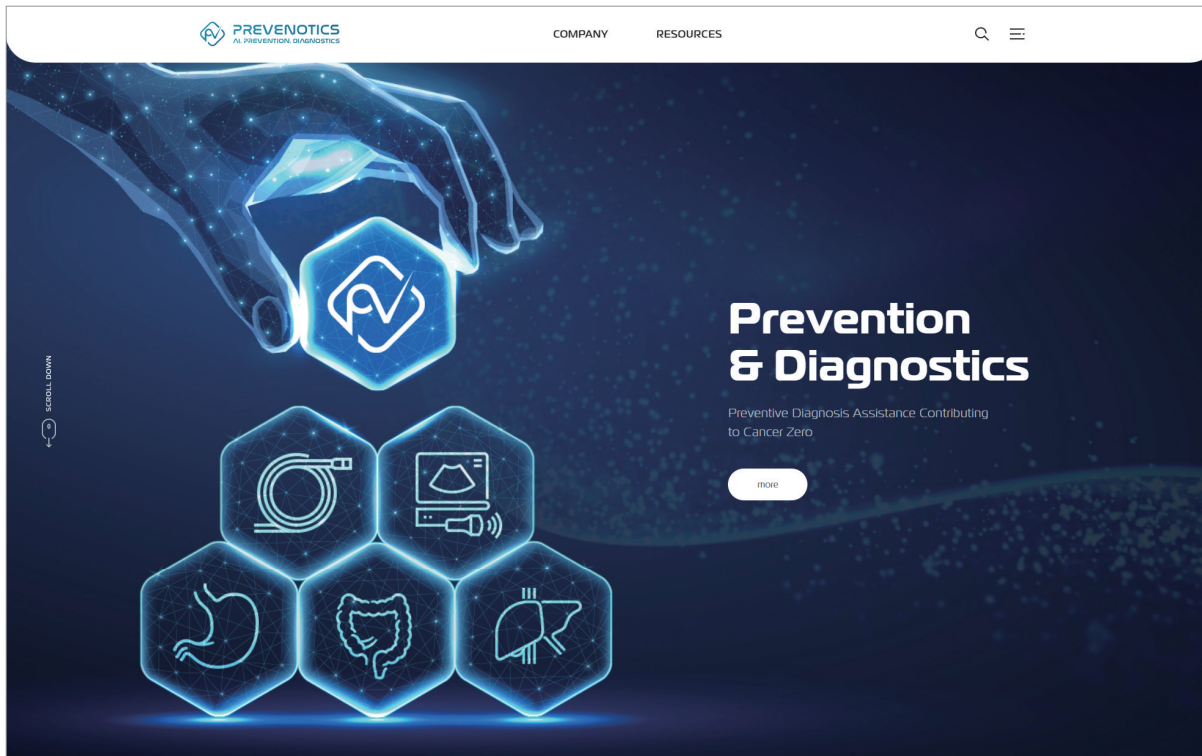
AI 솔루션 이야기

프리베노틱스는 AI를 활용해 암의 예방과 진단을 보
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내시경 육안진단 소
견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위암 고위험군
표적 질환을 시로 진단·보조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리베노틱스는 위암 자체의 조기 진단과 암 이
전 단계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반 내시경 이상 소견 실시간 진단 기술이 주요
기술이다. 실시간 AI 기술로 의사의 편의성, 진단 정
확도 등을 보조하면서 위암 고위험군 환자들의 맞춤형
위암 예방을 돕는다.

위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는 부분적으로 내시
경 육안 소견만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이에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암과 같은 고위험질환으로 발
전할 가능성도 커진다.

프리베노틱스의 AI 진단보조 및 예방관리 시스
템은 의료진의 진료 하에 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



프리베노틱스 홈페이지
(사진 제공 : 프리베노틱스)

을 목표로 한다.

프리베노틱스의 차별 포인트

프리베노틱스의 차별 포인트는 암 예방에 있다. 통상 위암 진단과 관련 질환 발견 기업의 특허는 예방보다 위암 진단과 질환 발견에 집중돼 있다. 프리베노틱스의 솔루션은 암 전 단계 고위험질환을 표적 진단하고, 적극적인 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기술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헬스케어 보고서 및 시스템을 통해 암 예방을 보조·관리할 수 있다.

프리베노틱스의 성과 그리고 미래

프리베노틱스는 자체 솔루션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POC(Proof of Concept)와 인허가를 시작(2023년 10월 기준)했다. 테스트를 거쳐 피드백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 출시는 2024년 이후로 보고 있다.

프리베노틱스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에서 위암 예방 인공지능 솔루션을 1차 상용화하려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암 뿐만 아니라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으로 진단하는 대장암, 간암 등 암의 전구단계를 진단 보조해 예방 관리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SEOUL AI STARTUP 100

인쇄 2023년 12월 1일
발행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서울 AI 허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2135.6818
팩스 02.2135.6819
이메일 info@seoulaihub.kr
사이트 www.seoulaihub.kr

도서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IT조선
원고 집필 이윤정, 조상록, 홍주연
편집 김유정
디자인 피크픽
제작 미래피엔피